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7월 12일(음력 6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586 호

‘미소와 보살핌’ 신도를 고객처럼

서울 봉은사 종무원·업무환경 ‘아름다운 변신’

지난 주말 각성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를 듣기위해 서울 봉은사를 처음 찾은 김재남(45·서울 송파구)씨는 일주문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봉은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부드러운 말과 함께 종무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기 때문이다.

각성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가 끝나자, 사찰 측은 참석자에게 오늘 법문이 재미있었는지, 다음 법회시간에는 무엇을 듣고 싶은지 등을 묻는 평가 설문지를 돌렸다.

박용철(32)씨는 “지난 번 평가지에 ‘뒷자리에서는 법문이 잘 안 들린다’고 써내자 즉각 마이크가 교체됐고 엠프 설비를 점검하더라”며 “내 평가가 반영돼서 그런지 봉은사 신도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동적인 입장에서 법문을 듣기만 해오던 김 씨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웠다.

봉은사(주지 원혜)가 ‘신도제일’ 사찰로 변하고 있다. 강남포교의 1번지를 담당하는 봉은사가 ‘신도’를 ‘고객처럼’ 모시며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스마일 운동을 전개해온 봉은사는 종무원의 복장을 통일하고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사무직, 접수원, 경비담당 및 주차요원에 이르는 모든 종무원에게 철저한 친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친절도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종무원 표창식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전 종무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의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5월부터는 경영분야의 인사관리 시스템인 직무분석제도를 도입, 외부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있다.

‘친절이 곧 포교’ 신념 사찰 분위기 업그레이드

직무분석이 일반 기업이나 중앙종무기관에서 시행된 적은 있지만 사찰에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봉은사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신도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사찰에 대한 주인의식과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찰에도 ‘친절 마인드’가 도입돼야 할 때”라는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타성적으로 처리하던 사찰업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신도를 소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은사의 표준화된 사찰종무 시스템과 ‘친절 마인드’가 각 사찰에도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태응 스님 원각사 해동선원장



도반의 향기 17면
군포교 30년 전철호 거사

기획/부산불교 이야기 5면
친환경 여름휴가 가요 28면

청소년 종교 ‘학교 영향’ 크다

종자연, 10개 종교 사학 학생설문… 세미나도 개최

의식·헌금 강요 거부감 높아, “인권 차원 접근 필요”

◇불교학교의 불자 21% 뿐

종교사학 중·고교의 종교비율에서 3대 종교 중 불교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NGO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내 소재 종교사학 중·고교 80개교(불교6, 개신교61, 가톨릭5, 기타8) 가운데 10개교(불교1, 개신교8, 가톨릭1)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교육에 관한 설문’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7월 4일 열린 ‘종교자유와 인권’ 세미나에서 밝혔다.

설문에서 불교는 8.3%, 개신교 32.1%, 가톨릭 16.4%, 기타종교 5.2%, 무종교 37.9%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종자연 설문결과와 2005인구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불교는 8.3%로 2005인구조사 당시 13.0% 보다 4.7%가 낮은 반면 개신교는 2005인구조사의 25.0% 보다 7.1% 높은 32.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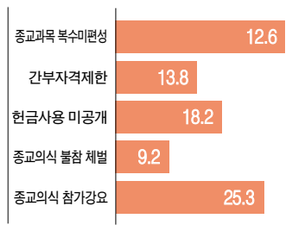
특히 주목해야할 결과는 개신교 학교에서 개신교신자의 비율은 36.0%, 불교 학교에서 불자는 21.2%,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신자는 32.3%로, 각 학교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2005인구총조사 결과보다 해당 종교인의 수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종교사학이 학생들의 종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교와 기독교 종교사학의 수적 차이가 곧 청소년 종교비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종교사학엔 종교자유 없다

종교사학 중·고교가 학교 공식행사와 수업시간 전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 종교자유 침해 행위(단위:%)



학내 종교의식 등 종교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학교 공식행사에서 특정한 종교의식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고, 특정요일의 수업시간에 전학년 예배(법회)를 진행했다는 답변은 78.4%였다.

‘수업시간 전에 전체 기도(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61.1%였고, ‘특정종교의 기념일 또는 행사시 헌금(보시)을 내게 한다’는 응답도 44.4%나 나왔다. 종교사학에서 사실상 종교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교자유 침해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종교자유 침해사례 중에서 ‘종교과목이 복수로 편성되지 않아 원치 않게 들어야 하는 경우(28.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종교의식 참가 강요(25.3%)’와 ‘헌금사용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18.2%)’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9.2%는 ‘종교의식 불참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수의 종교과목을 개설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종교교육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교 달라 학교 싫다” 17%

종교사학이 학생들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한 이번 설문결과는 불교계의 근심을 한층 더 높였다. 서울시내 80개 종교사학 가운데 기독교계열이 66곳인데 반해 불교 종립학교는 6곳에 불과해, 종립학교를 늘리지 않는 한 청소년 포교의 현장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손상훈 종자연 사무국장은 “법률에 따라 종교사학내에서의 진정한 종교자유 보장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며 “개신교계열 종교사학의 선교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교 종립학교내에서의 종교자유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 종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개신교계열 학교의 선교행위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학내 종교자유와 청소년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역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 종교의식 등에 대한 불만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증명한 이번 설문결과는 학내 종교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학교생활과 종교의식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학교생활의 만족도(47.6%)에 비해 종교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27.5%)가 현저하게 낮게 조사됐다. 또 종교의식 등이 불만이라고 답한 이들 중 ‘종교가 달라서’를 꼽은 학생들이 17.0%에 달했다. 종교강요 행위가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방증하는 결과다. ‘학내 종교의식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56.1%)’고 응답한 점도 청소년들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

윤남진 NGO리서치 부소장은 “우리 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합의수준은 아직 일천하다”며 “건드리기 껄끄러운 종교문제가 아닌 존중돼야할 인권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간화선 지도자 양성과정 150여명 응모

간화선 지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에 출·재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7월 4일부터 6일 오전까지 접수받은 결과 120여명의 출·재가자들이 접수했다”며 “우편발송분을 포함하면 150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20여명 중 출가자는 75명, 재가자는 45명. 재가자 중에는 한의사, 교장선생님 등 전문직업군 중 오랫동안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부처님의 보살핌과
불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박지성 선수(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7월 6일 화성 용주사를 참배했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만(卍)’자 목걸이를 선물했고, 박지성 선수는 2006독일월드컵 스위스전 당시 입었던 유니폼과 팀 가이스트 사인볼 1개, 대한축구협회 공인 사인볼 30개를 용주사에 기증했다. 박지성 선수는 효행기념관 법당에서 용주사 스님 및 불자들과 함께 법회도 봉행했다. 부처님 앞에서 가지런히 두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 더 많은 기사 buddhanews.com 관련기사 9면

화성/사진=고영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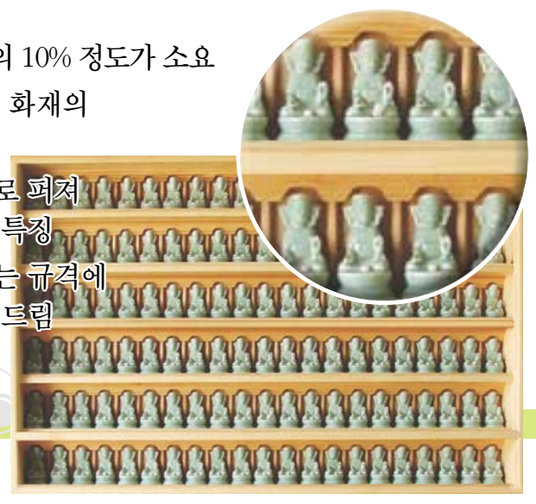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얘들아, 더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

포교원, 어린이용 설법 자료집 전국 사찰에 무료배포
지도자양성기관 9월경 설립 … 새싹포교 의지 '충천'

불교세가 약한 전라남도에서 어린이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최모(33) 법사. 최 법사는 어린이 법회에서 설법할 때마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포교 자료 부족을 절감했다. 그런 최 법사에게 최근 선물이 도착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포교자료 〈어린이에게 부처님 말씀 어떻게 전할까?〉를 1000부 발간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포교의 삼박자라고 할 수 있는 △주지스님의 관심과 의지 △어린이 법회 지도자 양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중 프로그램 개발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부처님 말씀 어떻게 전할까?〉는 포교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법회와 설법〉에 실렸던 어린이 설법문안을 취합 정리해 보기 쉽게 재구성한 것이다. 설법할 때마다 법문할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과 대한불교교사대학 교사, 본·말사 주지 연수에 참여하는 주지스님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최 법사에게 또 다른 선물도 기다리고 있다. 올 9월 서울에 어린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교사 양성기관(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포교원과 대한불교교사대학,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 법회 지도자 양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지스님의 관심과 의지'를 분발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있다. 6월 29일부터 7월 28일 중앙승가대학교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불기 2550년도 본·말사 주지연수에서 '노는 토요일, 동심을 잡아라!' 주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절차 및 기대효과' '사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놀토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주지스님들에게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심산 스님은 "사찰 예산 중 1%만 어린이 포교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획기적인 일"이라며 "어린이 포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어린이 포교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6월 28일 불교언론문화상 대표를 맡은 수불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어린이 포교 중요성과 제도적 대안마련을 언급한 데 이어(본지 585호 1면 기사 참조), 최근 열린 종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단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어린이 포교 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어린이 포교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현장 어린이 지도자들이 한층 고무되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정법으로 군포교에 매진을 …"

신임 군법사 18명 지관 스님에 임관 신고

각범 서재택 외 18명의 신임 군법사는 7월 3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임관 고불식을 봉행하고 이어 한국불교역사박물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임관 신고를 했다.

지관 스님은 "비겁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부처님의 법으로 불교의 본을 잘 보여야 한다"며 "군 포교의 서원을 세운 만큼 임관해서 조계종단을 빛내고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육군3사관학교에서 9주간의 교육을 마친 신임 군법사들은 육군 13명, 해군 1명, 공군 4명 등으로 배치되어 군포교에 매진하게 된다.

글·사진=김두식 기자

박 前 대표 지관스님 예방
두랏 카자흐스탄 대사도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가 7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 앞서 지관 스님은 "지난번 나쁜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을 때도 찾아가 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최근 한나당 대표에서 물러난 박 前 대표의 건강을 염려했다.

박 前 대표는 "스님의 평소 베풀어주신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지관 스님은 박 前 대표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호박으로 만든 염주와 단주를 선물했다.

한편, 두랏 바키세브 주한 카자흐스탄 신임대사도 7월 5일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9월에 열리는 제2회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지관 스님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두랏 대사는 "안보와 평화를 위해 지관 스님이 대회에 직접 참여해 주실것을 부탁드린다"며 스님의 대회 참석을 당부했다. **조용수 기자**

본사마다 의무적으로 해외포교당 건립

조계종 포교국장 회의서 제안, 직접 건립·결연방식 등 모색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교구본사 당 적어도 1개씩 해외포교당을 건립하자."

조계종 포교원이 7월 4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해외 포교당의 원활한 운영과 상임 지도법사제 유지를 위해서는 교구본사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적어도 1개씩의 포교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교원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현재 100여개 해외 포교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현지 신도에 의해 건립·운영되기 때문에 스님들의 역할과 입지가 제한돼 있고, 개별 인연차원에서 머물면 임기가 불확실하고 스님들의 현지 생활에 대한 관리 및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구본사 직할 포교당 건립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본사 직할 해외 포교당에는 해당 사찰의 역량 있는 젊은 스님들을 파견해 해당 지역 언어를 익히는 동시에 해외 신도들과 현지인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외 포교당을 개설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교구본사에서 직접 장소를 선정해 포교당을 건립하고 스님을 파견하는 것. 이 방식은 초기 비용과 운영비용이 들지만 전략적으로 건립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지도법사 스님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포교운영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해외 포교당 중 교구본사와 인연을 맺고 싶은 곳을 해당 포교당 신도 동의하에 추천받아 종단에 등록하고 스님 파견 및 운영 지원하는 것. 이 방식은 건립비용은 절감되지만 유지비용은 계속 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 번째는 현 해외 포교당 중 자매결연 형태로 스님을 파견하는 방법. 비용은 적게 들지만 구속력이 약해 스님의 지위가 보장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포교원 홍민석 팀장은 "한국불교 해외포교 활성화와 본사 차원의 해외포교역량 강화, 역량 있는 스님 육성 기회 제공 차원에서라도 본사 단위의 해외포교당 운영은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5급 승가고시
8월 31일 직지사에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불기 2550년도 제2차 제5급 승가고시를 8월 31일 김천 직지사에서 실시한다.

이번 31기 행자교육원 수료자와 행자교육원 수료자 중 5급 승가고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승가고시 과목은 △사미·사미율의 △사미·사미니 위의문 △초발심자경문 △부처님생애 △기초교리 △예시의궤 △42장경 △유교경 △조계종사(고승전 포함).

이전 5급 승가고시 불합격자는 시험당일 오전 11시까지 직지사로 도착해야 한다. (02)2011-1800

남동우 기자

"출납사무 마감시한 12월말일로"

조계종 재정분과위, 회계년도 기한 변경 논의

조계종의 회계연도 출납사무 마감 시한이 12월 말일(30일)로 바뀔 전망이다.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적)는 7월 3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31차 회의를 열고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논의 했다. 재정분과위는 회계년도에 속하는 출납사무의 마감 기한을 사회적 흐름에 맞춰 기존의 1월 20일에서 12월 말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정부나 종단의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관리 집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시행령의 제정근거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찰예산회계법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중앙종무기관의 예산회계 뿐만아니라, 본 말사의 단위사찰 예결산 편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을 기하도록 사찰예산회계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차기종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고침

본지는 584호 8면 기사의 '호국불교조계종'을 '불교호국조계종'으로 고칩니다.

만봉스님 49재
팔꿈치 사리 14과 공개

지난 5월 17일 입적한 금어 만봉(萬奉) 대종사 49재 및 진골사리친견법회가 7월 4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봉행됐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장 운산 스님, 사정원장 월운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 최복숙 만봉불화전승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영산대재와 추모법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만봉 스님의 팔꿈치 사리 14과가 공개됐으며, 스님의 유작품 50여점도 함께 전시됐다. 만봉스님의 사리는 봉원사 경내 부도에 안치된다. **김주일 기자**


종정 혜초 스님 등 태고종 중진스님들이 만봉 스님 영정 앞에서 참배하는 모습.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의견광고

인류화합 세계평화 3방안 제시

Three plans of suggestions for world harmony & world peace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1천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험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끼리의 충돌이 그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 종교가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척결을 양측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미국 등 몇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가지려 하므로 핵 확산 우려가 있고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UN기구의 관리하에 두기를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용으로만 세계가 함께 쓰면 각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어지고 가진 나라도 포기한 것이 되어 세계평화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6자회담 등 말썽이 되고 있는 나라도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어져서 포기치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한국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한국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난점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도덕적 의식수준을 높이고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으므로 반듯이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이곳에 건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립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宇宙的 新 淨土法門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비교설법
▶ 상기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 드림
又, 日本 の方にも要請があれば其處に趣いて極樂世界と 天國世界という題で 日本語で 說法 して上げます.

● 세계평화 정토회 가입안내
가입비 무료. 아래 전화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됨. 승속과 종파 초월.
집회는 추후 개별 통지.
(모여라! 세계평화 정토를 이룩하는 데 힘을 합치자!!)

본회의 대의명분과 목적 :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여 항상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함.

2006. 7. .

世界平和 淨土會 代表 法天 鶴山 合掌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2-67 402호 전화 02)3273-0841, 011-9230-2192 팩스 02)3273-0840

불교계 아동위탁 현실 "부끄럽다"

70% 가까이 기독교 가정서 돌봐
불교계 지원센터 한 곳도 없어
입양장려 캠페인 적극 벌여야

의정부 회룡사 신도 김정아(42 · 의정부시 가능동)씨에게 혜정(5 · 가명)이는 가슴으로 낳은 딸이다. 김 씨 부부의 친자녀들도 혜정이를 친동생으로 생각한다.

김 씨 가족이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혜정이를 만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제 '혜정이 없는 일상생활은 생각 할 수도 없다.'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위탁센터로 오게 된 혜정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으나 이제는 김 씨를 '큰엄마'라 부르며 따르고 있다.

혜정이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불교유치원에 입학 시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김 씨는 "다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라고 반문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아동복지방안 중 하나인 위탁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가정위탁사업은 보호받을 가정이 없거나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일반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다.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위탁아동의 수는 1만198명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2003년 7565명에 비해 34.8%나 급증한 것이다. 가정위탁아동 수는 2000년 1772명,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처와 지원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위탁아동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대부분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기독교계 복지재단에 의해 설립된 곳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전국 17곳에 설치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는 전부 기독교계 인사와 관련 있거나 기독교 복지재단이 설립한 곳이다.

이에 대해 불교아동복지 종사자들은 "비교적 신규사업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기독교가 선점한 것은 불교계의 '아동복지'에 대한 형편없는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이미 2003년부터 전국 17곳에 설립해 지방이양까지 끝마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더 늘리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불자 가정들을 상대로 한 입양장려 캠페인과 아동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단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기관 뿐 아니라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들 역시,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다. 한국복지재단이 지난 5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일반 위탁가정 470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 가정은 66.8%에 이르는 반면 불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가정 부모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도 목사나 전도사 등 교회에 종사한다는 대답이 전체의 30.4%에 달했다. 특히 장애아를 돌보는 위탁가정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지난해부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영호(2 · 가명)를 돌보고 있는 불자 최영란(38 · 인천 서구)씨는 "불자가 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도 불자가정은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 안타깝다"며 "어린 시절 기독교계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기독교를 모태신앙처럼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목탁소리

동국대 교수 성추행 시끌

총장후보자추천위 강행, 경주 교수회 징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국대가 또다시 법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끄럽다. 로스쿨 지정을 앞두고 대학당국은 쉬쉬하는 모양이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지난 6월 28일 동국대 이사회도 교수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동국대 법대 'ㅇ' 교수문제를 지적했다.

'ㅇ' 교수는 석사, 박사 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지난 2003년 이사회에서 전공불일치를 이유로 임용이 부결됐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이듬해인 2004년 마땅한 해명도 없이 슬그머니 그를 전임강사로 임용했다. 그런 교수가 지난해부터 제자들을 성(性)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피해자 중의 한명이 다른 피해 여학생들과 교내 성윤리위원회에 'ㅇ' 교수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홍기삼 총장은 28일 이사회에서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과내 교수들 간의 정치적 알력 때문에 불거진 사소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른 이사들에게 홍 총장의 답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교직원들은 "총장이 교수 개인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면 될 것을, 법과대학 전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교육자로서 제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가 불명예스러운 성추문에 연루가 됐는데도 피해자나 가해자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쉬쉬하면서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이 꼬리를 물고 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해 보인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찬송가 울려퍼진 용인시장 취임식

"외부서 선곡…몰랐다"발뺌

7월 3일 열린 용인시장 취임식에서 기독교찬송가를 축가로 불러 지역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사암연합회장 자광 스님(반야선원 주지)은 "용인시장 취임식장에 참석했는데 찬송가가 울려퍼지는 등 마치 교회행사 같은 분위기였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앞으로는 절대로 종교편향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확산되자 행사를 주관한 용인시청 행정과는 "축가는 외부에서 불러온 중창단이 선정했고, 사전에 독일민요라는 설명과 함께 곡명을 받았지만 찬송가인지 몰랐다"며 의도적인 선곡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인시사암연합회는 7월 5일 용인시장 앞으로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종교편향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템플스테이 사업 전적으로 신뢰"

운영사찰 주지회의 결의

최근 모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의해 제기됐던 템플스테이 운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스님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7월 5일 개최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임시주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템플스테이 사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보다 투명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성공적인 템플스테이 운영에 더욱 매진한다 등을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스님 회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남동우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
외교통상부 상대로 헌법소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9명이 7월 5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사진).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여 명과 나눔의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시민단체회원 30여 명은 "위안부 피해자 책임문제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할머니들은 지난해 8월 한일협정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 '외교통상부는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지난 4월 10일 '군대 위안부 피해자 보상관련 일본측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오자 '더 이상 국가의 답변만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이번 소원을 제출한 것이다.

한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외교통상부의 성명에 항의하는 뜻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워크숍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은 7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수발보험 중에서도 재가서비스의 한 분야인 '방문목욕'을 주제로 '노인수발보장법 2차 시범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외 보건복지부 직원, 대학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사회복지사 300여명이 몰린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오는 7월부터 수원, 안동, 강릉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의 운영방향과 체계가 논의됐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수발,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그룹홈 등의 시설서비스,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확대 제공될 예정.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의 '노인수발보험시행에 따른 2차 시범사업기본계획', 정영숙 건강보험공단 급여심사부 부장의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발표에 이어 이재근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팀 팀장이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방문목욕서비스 사례관리'를 발표했다.

이 팀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목욕단가를 높이고, 수발사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활동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연옥 서울경기이동목욕실무자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하는 복지관 및 기관은 서울, 경기지역에만 50여 곳이 넘는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담당자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파악, 대상자와 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적인 나눔, 실무자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해 사업진행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총장후보 추천위' 반대
동국대 교수회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수회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반대 및 참여거부를 재결의했다.

서울캠퍼스 교수회는 7월 6일 교내 상록원에서 교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이사회에서 통과된 '총추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한 · 미 FTA 협상중단 촉구
4대 종교인 선언문 발표

불교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등 4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7월 6일 '한 · 미 FTA 협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4대 종교인들은 선언문에서 "한 · 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그 정도는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우리 종교인들은 노무현 정부에게 우리 사회의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공동선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와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화계사 수행 · 환경 법회

숭산 스님의 수행가풍이 숨쉬는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는 7월 16일부터 매주 일요일 수행 · 환경 · 문화를 대표하는 법사를 초청,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특별법회를 연다.

법사는 빈그릇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토회 법륜 스님(16일),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통도사 축서암 수안 스님(23일)이 나선다.

25일에는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연다. 화계사 특별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다.

(02)902-2663 **조용수 기자**

한국불교학연구기금
7월 30일까지 접수

불교 소장학자들의 연구지원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불교학연구기금(상임대표 법상)이 '제3회 불교소장학자 연구 · 번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분야는 불교관련 박사논문,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 외국인 연구자 학위논문 등 이다.

7월 24~30일까지 접수이며, 8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한다. (02)539-2631~4

노병철 기자

반만년 민족혼을 찾아나서는 은빛바다 대항해

일연聖師 탄생 800주년 기념 민족문화 뿌리 찾기

삼국유사 大祭典

■ 일시 : 2006년 7월 6일(목) ~ 8월 1일(화)

집중행사기간 | 7월 6일(탄생법회) 7월 28일(전야제) 7월 29,30일(주제공연) 8월 1일(입적법회)

■ 장소 : 경북 군위 인각사, 영천 은해사 등 팔공산 일원

■ 주최 : 삼국유사 대제전 조직위원회

■ 후원 : 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군위군, 경산시, 한국학 중앙 연구원

■ 문의 : 054)383-1161 ■ 홈페이지 : www.ingaksa.org

은빛바다에 솟은 인각마루! 그 곳에서 만나는 일연의 꿈, 민족의 꿈

인연선사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삼국유사 대제전〉행사는 민족 문화사에 길이 남을 삼국유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족 정체성을 계승 발전하고자 마련한 민족문화축제입니다.

고려말기 외세의 침입과 지배층의 혼란에 시달리던 이 땅의 민중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일연선사가 평생을 바쳐 국토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집필한 삼국유사는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독창적 원형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문화 가치를 지닌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일연선사의 탄생 800주년을 맞아 오늘날 삼국유사가 지닌 문화사적 의미와 창조적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김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삼국유사 대제전〉행사가 7월 6일(목)부터 8월 1일(화)까지 경북 군위 인각사, 영천 은해사 등 팔공산 일대에서 축하 기념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7월 6일(목) 탄생법회 (11시, 군위 인각사)
경산시 주최 기념 음악회 (저녁 7시 30분, 경산 자인 계정숲 특설무대)

7월 20일(목) ~ 21일(금) 삼국유사 국제학술대회 (9시 30분 ~,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 중앙 연구원)

7월 28일(금) 삼국유사 대제전 개막식 및 주제 공연 1부 (저녁 6시 30분, 인각사 특설무대)
일연 문화상 시상식
전국 청소년 문화상 시상식
전국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시상식
삼국유사 탐방답사
이하석 시인과 함께 떠나는 삼국유사 답사 (오전9시, 대구시민회관 출발)
경주 남산 일대, 분황사와 황룡사 터

7월 30일(일) 주제공연 2부 및 불꽃제 (저녁 7시 30분, 인각사 특설무대)

8월 1일(화) 일연선사 열반 717주기 추모다래재
보각국사 재현 제막식 (예정)

‘원칙지키기’ 인식전환 절실

조계종 승가의제 통일 왜 안되고 있나


조계종의 상징문양인 삼보륜이 새겨진 새 가사지로 스님들이 가사를 만들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례1> 실상사의 모 스님은 대만을 여행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곳 스님이 한국에서 온 스님 일행을 보며 누가 스님이고 누가 재가자인지를 물었다는 것이다. 신발도 고무신, 만행화, 운동화, 구두를 신었는가 하면, 소재와 색상이 각양각색인데다 가사를 수한 스님 수하지 않은 스님 등 겉모습을 보아서 스님과 재가자를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의제(衣制)가 통일된 대만 스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온 스님들에게서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느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스님은 “편리만을 따른다면 재가자의 옷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의는 검소하고 청정한 불성의 존재를 드러내는 상징이면서 수행자의 위의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4년 의제실무연구회에서 통일

장삼	검정, 고동, 진회색 제외한 J모직의 ‘가마솥 1번 회색’ 사용.
일상복	검정 고동 빨강 노랑 진회색 제외한 ‘가마솥 4번 회색’ 사용.
장신구	걸망, 수대, 가방, 모자 등 모두 회색만 사용(단, 피혁제 가방과 등산용 가방은 사용금지).
속옷	회색으로만 착용.

사례2>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모 스님은 “지난 5월 기본교육기관인 모 종립대학 구내에서 사미의제를 하지 않는 5명의 예비승을 적발했지만 아직도 교육원의 사후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단에서는 상시적으로 사미의제를 단속하고 있지만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너비 10㎝ 갈색 동정과 소매깃을 달아 정식 스님들과 구분해 놓은 사미의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1년 유예되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다.

당시 적발된 이들은 “출가자는 모두가 평등한데 법의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상임감찰 스님은 “사미는 정식 스님이 아닌 예비승이기 때문에 의제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훈계했다.

■ 왜 의제통일인가?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내 ‘승가법의원(원장 수현)’에서는 지금 조계종의 통일 가사불사가 한창이다. 조계종의 상징인 삼보륜 문양을 새겨 넣을 뿐만 아니라 스님 개개인의 법계별 조수를 맞추고 승려번호와 법명까지 새겨 종단에서 직접 제작 지급키로 한 것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보조스님의 괴색가사를 ‘조계종의 가사’로 정한지 45년 만의 일이다.

의제실무위원 무관 스님(해인총림 율원장)은 “부처님 재세당시는 승가의 규모가 크지 않아 ‘좌차(座次)’를 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 현전승가는 의제를 명확히 갖추지 않으면 위계와 승단의 질서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의제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처님께서 법의를 제정한 이유를 <행사초자지기(行事抄資持記)>에서는 ‘△추위나 더위를 막고 △치부를 가려서 참괴심(慙愧心)을 엷애며 △마을에 나가 걸식하고 △자선을 행하며 △위의(威儀)가 청정하기 위함’ 이라고 정의했다.

본래 비구는 다 쓰고 버린 헝겊조각을 모아서 만든 ‘분소의’를 입어야 하며 값비싼 천의 사용은 금했다. 무엇보다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고 탐심을 버려 소욕지족의 생활을 통해 수행에 몰두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오늘날 조계종 스님들의 승복은 어떤가? 승가의 규모가 커지고 탁발보다는 보시에 의해 승가가 운영되면서 가사와 승복을 지어 보시하려는 재가신도도 늘어났다. 조계종은 ‘의제법’과 ‘사미 · 사미니 등의 의제에 관한 시행령’ 등을 통해 의제를 종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의제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 스님이 드물고, 사미의제는 정착단계라고 하지만 사중 밖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스님에 따라 각양각색의 가사와 장삼 등을 수하고 다녀 소속감과 일체감, 승가 위계질서 및 수행자의 위의를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안지키는 원인은?

승가의제 통일이 구성원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위계질서를 확립, 수행자의 위의를 드러내는 중요한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았다.

의제통일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소는 △통일되지 않은 규정 및 착용 원칙 △가격 및 유통구조 △비합리적 제작공정 △고급화 선호 △일부의 권위주의적 사고 △관리 · 감독할만한 행정체계 부실 등 ‘산 너머 산’이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의제위원회를 구성해 의제통일에 나선 1996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제통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까지 수시로 열리는 의제실무회의는 각종 복식과 형태, 착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제방에서 이렇게 정해진 원칙을 정확히 아는 스님은 드물다.

2004년 승복천의 색상과 소재 등이 정해졌지만 회의결과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없었고 강제성도 없어, 제도와 현실이 따로따로인 셈이다.

법의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시중 승복점의 유통구조도 의제통일이 지체되는데 한몫하고 있다. 승복 유통의 관리체계가 허술해 간혹 스님이 아닌 재가자나 무속인의 착용으로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없지 않다.

가격 또한 재료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에 이르러 청빈한 출가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각자의 취향이나 편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승복점에 의뢰해 제작해오면서 이들 영세업체가 임의적으로 생산한 승복은 색상이나 모양, 옷감의 소재 등이 천태만상이 됐다.

법의 전반에 대한 전통제작기법 전수를 위한 종단 차원의 지침서 제작과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의제실무위원인 명수 스님은 “의제는 무엇보다 승가의 위의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스님들이 입기에 편리하도록 기능성, 제작의 편의성,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승가복식 전반에 원칙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의 총무부 호법부 등을 통한 감독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의제에 맞춰 법의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은 종단의 행정체계도 문제다.

최소한 종단의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행자 · 기본교육기간 동안이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종단의 의제를 몸에 익게 해야 한다.

의제를 바꾼다는 것은 단지 수행자의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다. 승가의제의 통일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실에도 부합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가사통일 불사가 전반적인 의제통일의 통로가 될지 주목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가격 수십만~수백만원… 고급화 선호
공산품처럼 사고파는 유통구조 문제
관리 · 감독 맡을 행정시스템 마련해야

2002년 의제실무연구위 가동

■ 의제개혁 노력 어떻게 해왔나

속옷 · 모자 · 신발 · 바랑 등 몸에 걸치는 모든 것 ‘의제’

2002년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불학연구소를 통해 승복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유통구조와 소재 등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부상시켰다. 조계종은 가사뿐만 아니라 스님의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의제(衣制)’의 범주에 넣고 장삼 바지 저고리 속옷 모자 신발 바랑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있다.

조계종 의제실무위원장 종진 스님(해인총림 율주)은 “종단 스님들의 가사가 통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종단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려 만든 삼보륜 가사보급이 마무리되면 장기적으로 장삼 두루마기 동방 적삼 바지까지 통일하기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의제법을 처음 제정한 것은 통합종단이 출범한 1962년. 그러나 의제가 각양각색이자 67년 12월에 열린 중앙종회에서 의제위원회를 구성해 법의를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는 청담 자운 대의 일타 성철 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조계종은 72년에도 의제개혁을 시도했다. 72년 12월 열린 종단 중진회의에서 의제개혁을 결의했다. 73년 3월에는 성철 자운 영암 스님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여하는 의제(개혁)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의제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81년 일타 스님은 비구승과 사미승 구분을 위한 사미의제 시행방안을 담은 의제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93년 3월에 열린 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출가자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승가 복식(服飾)을 구분하기 위한 ‘성직자 의제법’을 중앙종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96년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종단 개혁 일환으로 의제개혁의 의지를 천명한다. 그해 8월 조계종 의제위원회는 행자복과 사미 · 사미니 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현재 이 제도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어 조계종은 2002년 7월 승복 통일 등을 위해 지금의 법계위원회 산하에 의제실무연구회(위원장 종진)가 발족돼 활동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풍주선원장 범추당 정수 종사 49재 및
출현사리 친견법회


범추당 정수 종사

귀의삼보 하옵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스님의 영결식에 먼길을 마다않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도형 큰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청주, 청원 불교사암 연합회 스님들 그리고 문도스님, 청주에 각 신행단체장 및 기관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범추당 정수 종사의 49재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 있사오니 두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추당 정수 종사 49재 일정

초재	6월 10일(음, 5월 15일) 오전 7시	풍주사 시민선방
2재	6월 17일(음, 5월 22일) 오전 7시	풍주사 시민선방
3재	6월 24일(음, 5월 29일) 오전 7시	풍주사 시민선방
4재	7월 1일(음, 6월 6일) 오전 7시	풍주사 시민선방
5재	7월 8일(음, 6월 13일) 오전 7시	풍주사 시민선방
6재	7월 15일(음, 6월 20일) 오전 7시	풍주사 시민선방
49재	7월 22일(음, 6월 27일) 오전 10시	풍주사 용주관음전

재단법인 선학원 충북교구본사 고령산 풍주선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7번지 전화 043)256-5585, 258-3199 / 팩스 043)221-4760

• 상좌 : 덕일. 덕수. 무념 • 풍주선원 거사림 회장 월광 합장 • 합장단장 보륜성 합장

수행 · 환경 · 문화 주제
큰스님 특별 초청 법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숭산스님의 수행가풍이 숨쉬는 화계사에서 수행과 환경 그리고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지도법사 : 법륜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7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지도법사 : 수안큰스님
통도사 축서암 주석
선화가

7월 25일 화요일
초하루 오전 11시 30분
지도법사 : 대원큰스님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홈페이지
www.hwagyesa.org

장 소 화계사 대적광전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주 지 수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전화 02)902-2663, 903-3361 팩스 990-1885

현장 전문가가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지역정서 맞춘 '틈새찾기' 성공적



김 윤 희
(맑은소리 맑은나라 발행인)

① 출판 · 문화 · 예술계의 변화 코드

'불교도시'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부산. 신행과 문화, 포교를 위한 인프라가 어느 지역보다 단단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부산불교의 현장이 마냥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다양해져 가는 신행과 수행의 패턴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산불교계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는 현실은 어또한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초청 법사의 법문은 이랬다. "스님과 일반인이 거리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럴 때, 충청지역이나 호남지역에서의 반응은 '아니, 스님이 수행은 안하고 거리에서 쌈질을 하고 있네' 라고 하고, 부산과 경상도 지역에서의 반응은 '아니, 속인이 스님께 덤비고 있네' 라는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경상도 지역의 불자들이 '전국의 절을 다 먹여 살린다'는 우스개 말도 있다.

이것이 부산불교의 현주소이며 부산불교를 대변하는 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실은 부산불교가 그렇게 활성화의 일로를 달린다거나 실속있는 정서만을 지닌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장을 뛰는 각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런 발전 가능성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들도 있다. 최근 부쩍 도약하고 있는 출판과 문화 예술활동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우선 부산의 불교출판 시장이 서울 중심의 출판문화를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불교 출판 분야에 뛰어든 곳은 대한기획(사장 김주환)이다. 대한기획은 1980년대 후반 기획출판사로 문을 열었다. 창립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사찰이나 단체의 기획물을 작업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단행본 위주의 서적과 경전을 주로 발간하는 업체로 우뚝 섰다. 대한기획은 구매율이 저조하다는 종교출판, 특히 불교출판 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시장성을 확보했다.

그런 가운데 비교적 후발주자로 꼽히는 신예 출판사 현대북스(대표 오세룡)가 출판업계에 맞불을 붙이고 있다. 2000년 창립, 월 평균 3권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다. 평균치로 환산하자면 대한기획을 앞지른다.

또 현대북스는 지역출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두어 중앙의 출판권을 확보하는 등 나름의 발전 방향을 꾀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불교출판시장에 뛰어든 도서출판 무량수(대표 주영배)는 1991년 창립된 회사로 다량의 기획물과 함께 서적을 발간하는 출판사로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무량수는 단행본의 출간은 연 2권 정도로 그리 많지 않으나 법요집과 경전, 사찰 사보 출판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불교 기획물에 있어 단연 1위를 고수하는 출판사다.

1999년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라는 불교 월간지를 발행하며 동명의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는 도서출판 맑은소리 맑은나라는 단행본과 함께 사찰 사보 전문 출판사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다.

이밖에도 불교용품을 취급하는 도서출판 백광(대표 김수현)과 군소 출판사가 경전 위주의 출판을 맡아 출판시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계를 들여다보자. 부산에는 불교문인협회(회장 양원식)가 있어 불교 문인들의 우의를 다지고 그들만의 문학성을 담은 도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시집을 발간, 무가지로 배포하는 등 소신 있는 활동으로 불교문인들의 명분을 쌓고 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련)는 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조직으로 크고 작은 불교 행사에서 그들의 역할은 지대하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부산 시내 사찰과 신행단체 소속의 35개 합창단 1600명 단원들의 연합체로, 지난 5월에는 합창단장의 이름을 건 찬불가 경연대회를 여는 등 찬불가 보급 및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는 유일한 불교 남성 중창단인 청공(단장 정성민)은 2004년 1월 발족돼 부산불교 음악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다. 청공의 멤버들은 이미 사찰 합창단의 지휘와 반주를 하며 불교 정서를 고스란히 익힌 사람들로 다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만도 20여 차례의 초청 공연을 하는 등 전문 불교 중창단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처럼 출판과 음악이라는 특별 장르이긴 하나 부산의 출판과 음악은 불심의 수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업체들과 합창단의 경우, 겉으로 비쳐지는 것처럼 그다지 화려하거나 흑자를 내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출판사들은 문화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아직도 적자인 업체도 있으며 이제야 비로소 적자수위를 면한 곳도 있다.

합창단의 경우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직업적인 합창단이 아니라 신행단체로서의 활동이기에 경제활동을 결부짓지 않아도 되지만 청공의 경우는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생활인이기에 보장되어야 할 경제활동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들은 부르면 달려가 해조음을 들려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부산 불교 집안의 젊은 에너지인 셈이다.

문서를 통한, 혹은 소리를 통한 포교의 전략은 사실 그 경계를 두지 않는다. 적자를 가까스로 면한 그들 문화인들은 모두 신심을 저변에 깔고 있기에 경영난을 꿋꿋하게 불심으로 극복한 인물들이다.

무용과 연극분야는 여전히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하지만, 한 때는 전국의 무용제와 연극제에서 기량을 인정받아 불교문화의 한 획을 그은 저력이 있어 언젠가 다시 그 힘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이른바 신행 단체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큼 부산은 지금 많은 신행단체들이 창립되고 나름의 활동반경을 넓히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어느 법사스님의 법문처럼 그래도 포교하기 좋은 곳이 부산이고 경상권이라면 우리들이 터를 닦고 있는 부산불교의 현주소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얘기이다. 출판 · 문화 · 예술계의 변화도 바로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틈새찾기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대중 속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깝고 먼 길인지는 관망이 아닌 참여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출판계 서울 중심 탈피 독자적 문화 형성
음악분야 질적 향상 비해 자생력 못 갖춰
무용 · 연극 저력 있어 그 힘 발휘될 것 기대
다양성 전문성 지닌 '뉴 페이스' 등장 요망돼



부산에서 유일한 남성중창단 '청공'의 공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TV 부산지사가 부산불교회관에 새 사무실을 마련, 6일 현판식을 봉행했다.

"세계를 향해 부처님 법 전하는 전법사"

불교TV 부산지사 사무실 이전 개소 및 현판식

불교TV부산지사가 부산진구 양정2동 부산불교회관에 새 둥지를 틀고 7월 6일 사무실 이전 개소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혜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혜륜 스님을 비롯 지역 불교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교TV 자문위원 정여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불교TV는 하나의 채널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사와 같다" 며 "불교TV의 발전을 위해 우리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이은아 기자

광성사, 27구 불상 점안식



부산 광성사는 7월 2일 광성사 3층 법당에 문수, 지장보살을 비롯해 네팔에서 조성한 27구(軀)의 불상을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30까지 네 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점안식은 티베트 전통의식으로 일체의 불보살을 초청해 조각에 불과한 불상에 부처님의 정신을 불어 넣고 예배의 대상으로 상주해 달라는 의미의 독경과 향, 초, 유목민의 상징인 우유, 등의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으로 이뤄졌다.

또한 달라이라마의 여름궁전인 노르블링카의 티베트예술센터에서 20명이 2년 동안 제작한 5m 크기의 자수 탱화도 함께 봉안됐다.

동래차밭골 다신제 성료

(사)한국다도협회 동래지구(지구장 양은순)는 7월 3일 부산 금정산 금어사(주지 월강)에서 제12회 동래차밭골 다신제를 봉행했다.

금어사 주지 월강스님,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동래차밭골 다신제는 기념비 제막, 동래 차밭골 동인지 및 차시집 봉헌, 인사말, 축사, 가훈규수 다례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다신제에서 금어사 주지 월강스님은 법어를 통해 "차는 곧 마음이고 차를 마시는 것은 마음을 씻고 다지는 과정"이라며 "이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차문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동래차밭골 다신제는 한국다도협회 양은순 동래지구장이 끊어졌던 동래차밭골 다신제의 맥을 잇고 국태민안과 차밭골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13년 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현 금어사 일대는 차밭이 조성됐던 곳으로 창포다례, 칠석제, 다신제 등이 봉행됐다고 한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 1588-3278

호국불교효에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7월 6일(음력 6월 11일)은 우리민족의 영원한 스승 일연 스님이 이 땅에 오신지 800돌이 되는 날. 우리가 해마다 일연 스님의 탄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스님이 남기신 <삼국유사> 5권이 민족불멸의 성서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7월 6일 일연 스님의 800번째 탄신일을 맞아 삼국유사 집필지인 군위 인각사에서 헌공다례제 봉행과 함께 탄생800주년 기념 '삼국유사대제전'의 막이 올랐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헌공 다례제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박영언 군위군수를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일연 스님의 뜻과 업적을 기리고, <삼국유사>를 통해 보여준 민족 사랑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8월 1일까지 27일간 진행
20~21일 국제학술대회
보각국사 비 · 성지 복원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01년 일연삼국유사문화제로 시작된 성사의 위업 추모 행사가 탄생 800돌을 맞아 삼국유사대제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가 동참하는 국제행사로 거듭나게 됐다"며, "삼국유사문화대제전을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보각국사 비를 복원 봉안하고 삼국유사를 집필한 성지 복원불사에 진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성탄사에서 "일연 성사는 <삼국유사>에서 국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모시고 자주적 민족사관을 정립함으로써 한민족이 독창적 문화를 발전 계승시켜온 위대한 단일민족임을 증명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삼국유사>를 지침서로 읽고 음미하면서 단일민족으로 평화통일 민족대화합을 이뤄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아름다운 강산을 가진 존경받는 문화민족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연 스님 탄생지인 경산시 자인면 계정 숲 특설무대에서 열린 일연선사 탄생기념음악회에는 설운도, 남궁옥분, 정태춘 등 인기가수 공연과 퓨전밴드 연주, 민요와 전통무용 공연이 이어졌다.

'삼국유사대제전'은 '반만년 민족혼을 찾아나서는 은빛바다 대항해'라는 주제로 일연 스님 열반일인 8월 1일까지 27일간 다채로운 학술, 문화, 공연 행사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가하는 일연삼국유사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삼국유사대제전 전야제와 개막식, 주제공연 등이 인각사 경내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또,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는 대구독립영화협회 주관으로 불교와 관련된 우수 단편영화들도 상영된다. 29일에는 이하석 시인과 함께 떠나는 삼국유사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일연문화상과 청소년 문학 상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그러나 8월1일 일연 스님 추모 다례제에 맞춰 복원 봉안하려던 보각국사비는 다소 시일이 걸려 오는 11월 경 군위군이 계획하고 있는 탄신 800돌 기념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맞춰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상인 스님은 "삼국유사대제전은 종교를 떠나 모든 국민이 일연 성사의 <삼국유사>를 통해 역사의 중요성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문화축제로 기획했다며",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축제로서 중심축을 이루는 문화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신임 주지 도산 스님 진산식
대구 천태종 대성사



대구 천태종 대성사 신임주지 도산 스님(사진)의 진산식이 7월 1일 서원당 3층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사북 달성사 주지 덕수 스님을 비롯해 전 대성사 보광 스님과 신도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도산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도산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법한 불자로 거듭나는 일이야말로 불사중의 불사이자 자등명 법등명"이라며 "역대 주지스님들이 힘써왔던 수행과 교육에 역점을 두어 본종의 종지구현은 물론 수행가풍 진작과 교육, 포교 프로그램을 더욱 여실하게 운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71년 입산 득도했으며, 총무원 사회국장, 규정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13대종의회부의장이자 강릉 삼개사, 옥계 개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배지선 기자

대광맹인불자회와 저녁공양
대구 마하사 봉사단

대구 마하사 주지 재원 스님과 봉사단 십여 명은 6월 30일 대광맹인불자회 법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기법회에 참석한 70여 명의 맹인 불자들을 위한 저녁공양을 준비하고 맹인불자들의 눈이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같은 불자로서 코드가 꼭 맞는 듯 마하사 봉사단원들은 맹인불자회원들과 금세 하나가 되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마하사 봉사단원들은 "많은 맹인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같은 불자로서 함께 더불어 가려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원 스님도 "작은 힘이 모이면 크다"며 "지역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기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맹인불자회 이경림 사무장은 "장애를 가진 불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신행생활을 이어가기위해서는 지역사찰과 불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마하사 주지 재원스님과 봉사단원들의 방문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단기출가학교 개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주지 우학)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의 제4기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한다.

대상은 45세미만의 미혼남성으로 하며 선착순 20명만 접수받는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입교식은 오후3시 대웅전 4층 법당에서 열린다. 법문 및 수계식, 입교자발원, 삭발식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문자는 21일 간 대구와 감포 도량에서 생활하게 된다. 엄격한 규칙으로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을 하며 발우공양은 물론이고 간경, 정근, 참선, 사경, 요가, 자비수참, 목탁 습의 및 염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배지선 기자

장애인 위한 치과순회진료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보건소 치과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구강관리가 미흡한 장애인들에게 구강진단을 통해 올바른 관리대안을 제시하고, 스케일링을 통해 충치예방과 구강청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7월 12일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며, 13일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14일은 재가 장애인 및 지역 거주 장애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54)633-6415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멋진 화음' 어디든 달려간다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7월 3일 밤, 대구시 남구 대명3동에 있는 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 사무실. 꽤 늦은 시간인데 불이 밝혀져 있다. 문밖으로 새어나오는 찬불가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대구 경북지역 전문성악인 불자들로 구성된 중창단,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Potala Solist Ensemble)의 연습시간이다.

박수진(31)씨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연습중인 중창단원은 모두 8명. 대표겸 트레이너 정무시(43)씨를 비롯해 테너 허철영(40) 박준홍(40)씨, 바리톤 권준대(37), 유원연(37)씨, 소프라노 김태란(45), 진소윤(35), 조장은(28)씨다. 이들은 모두 지역의 쟁쟁한 전문성악인이다.



대구 경북지역 전문 성악인 불자들로 구성된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정무시씨는 대구시립합창단 수석 테너, 유원연씨는 마산시립합창단원이다. 허철영씨는 몇해 전 인도 뉴델리 국립합창단 지휘자였다.

게다가 모두 지역의 불교합창단을 지휘 지도하고 있는 신심 돈독한 불자다. 정무시씨는 대성사, 진소윤씨는 원만사, 권준대씨는 영남불교대학 지휘자다. 모두 지역불교계가 음성포교에 눈을 돌리며 합창단을 창단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부터 지역합창단을 맡아왔으니 현 지역 불교합창단의 초석을 다진 이들이다.

포탈라솔리스트 앙상블은 지난 1월 부처님의 불음전파에 원력을 세우고 한국불교음악의 초석이 되기 위해 결성됐다. 3년 전 일회성 행사를 위해 보리수 중창단을 결성해 잠깐 활동한 적이 있는데, 모두 그때의 싱그러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마음을 다시 모으게 됐다. 포탈라란 티베트어로 관음의 성지,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란 뜻으로, 포탈라솔리스트 앙상블은 종교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중창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들은 음악인 90% 이상이 개신교, 가톨릭 신자인 음악계의 특성상 학창시절 성가곡을 많이 불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교회에도 다닌 경험이 있다.

뒤늦게 불교계가 음성포교에 뛰어들었지만 불교음악은 여전히 음악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은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 이런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불교음악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불교합창단 초석 다진 성악인들 '한 호흡'
타종교 부러움 사기도, 산사음악회 계획

그러자면 노력이 몇 배가 돼야 한다.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2시간의 연습 뒤에는 밤이 늦도록 이런 고민들을 주고받으며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각자 일이 바쁘니 매일 만날 수는 없고, 집에서 곡을 연습하고 외워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 완성된 음악을 만들자고 결론내렸다.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작곡한 이달철(53,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장)단장과 기획을 맡고 있는 강주현(40)사무국장을 또 조른다. 좋은 찬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의 찬불가를 3부 중창곡으로 편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걸음마를 떼어놓았으니 갈 길이 험하지만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불자 합창단을 여느 성가대 못지않게 키운 이들이기에 기대가 크다.

이달철 단장은 "기량 있고 개성이 강한 솔리스트들이 모이기란 쉽지 않은데, 10명에 가까운 전문성악인이 모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흐뭇해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3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안내 7월 19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수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연정국악원(구)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증심사 입구역' 역명 재심의 갈등

철도공사, 재심의 청원 계속되자 여론조사
불교계 "원칙없는 행정으로 주민 분열" 비판



현재 학동삼거리역과 중복역명을 쓰고 있는 증심사입구역.

광주 지하철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 명칭변경을 두고 시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원칙 없는 행정 때문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6월 27일 "지하철 1호선 역사 가운데 증심사입구역과 도청역, 호남대입구역 등 3곳의 역사 이름 변경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은 6월 30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결정한 역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역명 재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역명 변경 심의 발표에 따른 우리의 입장'에서 "지난 2003년 특정종교에 편향된 인사와 일부 주민들의 요구로 여론조사를 거쳐 2004년 3월 시의회에서 '증심사입구역' 명칭을 '학동삼거리'와 병행키로 최종확정했다"고 밝히고 "역명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분열시키고, 종교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명변경을 다시 논의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논의해야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년 전 역명변경 부결처리이후에도 재심의 청원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는 11일 역명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광주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종교인과 일부 주민들은 현행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 역사명에서 '증심사입구'명칭을 삭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김제 금산사는 김제 벽성대학과 협정을 맺고 전문 복지사 양성에 나섰다.



해남 대흥사는 전주한옥마을 생활체험단과 손잡고 지역불교알리기에 앞장선다.

사찰-대학 · 민간단체 상생 모색

김제 금산사 — 벽성대학과 宗學 협약 / 케어복지과 운영 동참
해남 대흥사 — 전주한옥마을 체험단과 / 전통문화 교류사업 추진

불교가 대중과 호흡하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찰이 대학, 민간단체와 손잡고 상생을 모색하고 있어 화제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지난 7월 5일 전북불교회관 강의실에서 김제 벽성대학(학장 류재경)과 전문 복지사 양성을 위한 종학(宗學)협약을 맺고 대학의 케어복지과 운영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산사는 2007학년도 케어복지과 신입생 모집에 참여하며 인력, 정보, 장비 등을 공유한다.

이날 '종학협동협약서' 서명에 앞서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는 불교의 으뜸가는 실천행이자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며 "지역에서 활동할 복지인력 양성을 위해 사찰과 대학이 연대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불교복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산사가 벽성대학과 상호협력하게 될 케어복지는 사회복지학에 보건의료학을 접목한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벽성대학이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케어복지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케어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금산사는 오는 9월부터 신입생 수시모집에 들어가며, 불자 복지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학업문턱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도 7월 4일 보현전에서 전주한옥마을 생활체험단(단장 김병수)과 '한국전통문화 체험 교류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전주 시청과 해남 군청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대흥사 주지 몽산, 수련원장 법인, 문화사업단장 설두 스님과 전주한옥생활체험관 김병수 관장,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이종민 단장 등 전주한옥마을 대표자, 해남 황산면 서해근 면장, 전주시 문화지원과 조희숙 계장 등 관공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흥사와 전주한옥마을은 한국문화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불교와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고 규정하고 "서로 손잡고 세계에 우리 것, 우리 정신,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알리자"고 강조했다.

대흥사 문화사업단장 설두 스님은 "대흥사는 2002년부터 새벽숲길이라는 특화된 브랜드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그동안 1000여명이 참가했다"며 "내국인에 의존하던 템플스테이를 2009년까지 외국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흥사는 전주한옥마을의 외국인 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체험단을 상호교류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한옥마을과 공동으로 5개국어로 된 안내책자와 팜플릿을 제작해 10월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 관광박람회를 순회한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옥천 대성사 초청 자원봉사 릴레이

청성초등전교생 과학관 견학



내륙의 오지인 충북 옥천군 청성면 청성초등학교 전교생 75명이 7월 6일 대전중앙과학관 나들이를 떠났다.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이 '종교단체 자원봉사 릴레이'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을 초청한 것. 충북도와 옥천군 자원봉사센터도 힘을 보탰다.

옥천 대성사에서 김밥과 치킨, 과일을 먹은 뒤 대전으로 출발한 어린이들은 국립중앙과학관내 기초과학관, 자연사관, 어린이 탐구반 등 곳곳을 돌며 다양한 영상과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했다(사진).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오지의 어린이들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음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봉영 기자

화엄사 지역농산물 판매장 개장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7월 15일 일주문 옆에 '구례 농산물 10대 전시 매장'을 설치하고 개원식을 갖는다.

이번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화엄사가 시설을 무상임대하고 구례군농민회가 자체 운영한다. 매장에는 구례군농민회가 생산한 쌀, 오이, 우리밀, 산수유, 단감, 토종꿀, 녹차, 고로쇠, 산채 등 구례지역 농특산물 10종이 전시판매 된다.

화엄사는 농산물 판매장 개설과 함께 사찰 공양물을 구례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바꾼다. 또한 사찰 홈페이지에 농산물 쇼핑몰을 개설해 농민회가 직접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무등산 풍경소리 15일 공연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와 무등산보호단체가 개최하는 무등산 풍경소리 공연이 7월 15일 오후 7시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44번째 열리는 이번 공연의 노래손님으로 신인 여성포키 수니와 광주 엔시안요델클럽이 출연해 서정미 넘치는 청청한 노래를 선보인다. 또한 이야기 손님으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김인주 본부장이 나와 '유별난 무등산 사랑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준엽 기자

제주 불교계 , 현실문제 참여 선언

제주불교총연합회 산하 제주불교사회문화협의회(의장 종호)가 7월 5일 "제주사회의 현실문제에 불교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교사회문화협의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의 사회, 문화, 경제, 도민생활이 도민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제주의 사회문화역량을 강화해 문화수준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불교인의 세속적 이기심, 종교적 집단이기심 충족, 종교적 가치관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5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6월 15일~ 2006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6년 9월 5, 6, 7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 성지대회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나무아미타불! 탑돌이 합시다!!!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보성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팔공산 은해사, 제주도 법화사, 충남 덕숭산 수덕사를 순례하였고 올해 2006년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에서 9차년도 염불성지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시없는, 금생에 한번뿐인 이번 행사에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7월 30일 ~ 8월 1일(2박 3일)
◆ 장 소 : 경주불국사, 석굴암
◆ 접 수 :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농 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 동 참 비 : 개인직접불국사로 오실 분 8만원 ·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실분 11만원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문 의 : 02)732-1215~17 / FAX 732-1207

※평소 염불수행을 원하는 신규회원 - 가입안내:가입비 3만원(염불수첩제공)
◎ 세계문화유산인 관계로 포시즌 호텔에서 숙식합니다.
◎ 전국염불만일회 불국사 성지대회에 동참하실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산불교회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태고종 스님 되려면 동방불교대 졸업해야

내년부터 '선교육 후득도' 제도 전면 시행

태고종의 득도 수계 자격 기준이 엄격해진다.

태고종(원장 운산)은 내년부터 종립교육기관인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방불교대학내에 설치 예정인 행자습의 강좌를 이수한 자에 한해 합동득도 수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고종으로 출가하려면 동방불교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총무원은 7월 3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승려 자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권고 사항으로만 돼 있던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동방불교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특정 사찰에서 일정기간(6개월~1년) 교육 받으면 득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방불교대학의 정규과정(통신 과정 포함)을 이수하지 않고서는 태고종 승려가 될 수 없게 됐다.

동방불교대학의 교육과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학처장은 "종단과 앞으로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겠지만 득도 수계 기준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며 "우선 스님을 양성하는 특화된 승과학과를 신설하는 방안과 승려를 지원한 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 이수학점제를 도입하는 안, 통신교육을 활용한 학점 이수제 등이 거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태고종은 1년간 한시적으로 현재 4주간 진행되는 합동집체교육과 합동 득도 수계식이 중단된다. 사실상 7월에 열리는 합동득도 제30기 과정이 동방불교대학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이 수계 가능한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그동안 종단이 사찰 및 스님들의 양적 팽창에 주력, 스님들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출가 스님이 단 한명도 안나오더라도 적법하고 엄정한 관리와 종단의 검증교육을 통해 정예화된 승려가 종단의 중심을 이루는 내실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10월안에 전국교구 종무원장 및 중진스님 연찬회를 통해 득도수계 기준 강화에 따른 동방불교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원효종 종단 증명서류 갱신 발급

7월 31일까지

원효종(총무원장 향운)은 7월 31일까지 각종 종단 증명서류를 갱신 발급한다.

원효종은 벽송 스님이 지난해 12월 임시 종정에 추대됨에 따라 이전까지 종단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모든 임원의 직책이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단에서 발급한 '사암등록증, 주지 임명장 등 기타 각종 증명서류'에 대해 새로 갱신 발급한다고 종도들에게 발표했다.(02)735-0501

김주일 기자

총지종 종조법설 CD제작

총지종은 원성 대종사 탄신 1백주년을 맞아 원성대종사 설법집인 <종조법설>의 내용을 이규항 원음방송 아나서운서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반을 제작해 7월 중순부터 일반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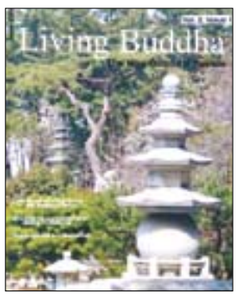
'모든 것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제작될 이번 음반에는 그동안 책으로만 읽던 원성 대종사의 법문이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

총지종 화령정사는 "총지종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종조님의 설법 내용을 들으며 명상과 요가도 할 수 있도록 제작해 누구나가 부담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552-1080 **김주일 기자**

태고종 구족계 수계 일정 연기

태고종은 당초 7월 4, 5일 양일간으로 예정됐던 구족계 수계 산림법회를 8월 21~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구족계 법회는 하안거 해제와 백중기도 기간 이후 봉행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종도들의 여론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원불교 영문 매거진 'Living Buddha' 발간

원불교 영문지 <Living Buddha: 산부처> 제 2집이 6월 30일 원광대 박광수 교수에 의해 출간됐다. <Living Buddha>는 산부처 또는 활불(活佛)의 의미로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산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대중잡지다. 문병과 종교간의 갈등과 대화를 특별 주제로 잡은 이번호에는 하바드대 뚜웨이밍 교수의 '세계화와 문명간의 대화' 템플대 스위들러 교수의 '종교간 대화와 지구촌 대화' 박광수 교수의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등의 기고가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法句 대하니 마음 편안해져요"

부대 휴게실 · 화장실에 '부처님 말씀'

휴일이라 부대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 김은욱 병장은 한쪽 벽에 새로 부착된 포교게시판의 법구(法句)를 읽으며 부모님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전역하면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남은 군생활도 보람있게 보내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있었다.

호국 한송사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광수 병장도 화장실에 붙어 있는 게시판 속 글인 '용서하기'를 읽으니 잠시나마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다. 포교게시판 글귀가 마음에 평온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 '지하철 풍경소리' 포교게시판 210개
> 강릉 제18전투비행단 막사에 설치
> 도선사 후원 … 호응 좋아 더 확대 예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회장 혜자, 이하 풍경소리)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의 후원으로 7월 2일 강릉 제18전투비행단 군 막사에 포교 게시판을 부착해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게시된 포교 게시판은 지하철 역사에 붙어있는 포스터 크기의 게시판 40개가 장병들의 휴게실에, 5×7 사이즈 150개가 화장실에 각각 부착됐다. 16절 크기의 게시판도 20개가 군장병들의 휴식공간 곳곳에 게시되어 장병들의 군생활에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포교 게시판은 한달에 한번 교체되며 쉽게 게시물을 교체 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어 있어 관리하는데도 편리하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가운데)의 후원으로 7월 2일 제18전투비행단 군막사 휴게실 · 화장실 등 200여 곳에 법구가 적힌 포교게시판이 게시됐다.

도선사는 이번에 부착된 210개의 게시판 제작 경비를 모두 후원했고 부대에서 더 많은 장병들이 포교 게시판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추가 제작도 계획하고 있다.

제18전투비행단 김영민 부단장은 "풍경소리의 게시판은 특정 종교의 법구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짧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라며 "많은 장병들이 포교 게시판을 보고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그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의 지하철 역사 2,000곳에 포교 게시판을 부착해 왔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함께 군 막사에 포교 게시판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풍경소리는 향후 지역 사찰과 연계를 통해 군부대에 포교 게시판 부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포교 게시판의 주옥같은 글귀는 집을 떠나 군생활을 하는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고 있고 맑고 건강한 군생활을 돕고 있다"며 "군 막사에는 처음으로 포교 게시판이 부착되었지만 불자들이나 사찰, 불교 단체 등의 후원으로 전 부대에 게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경기지역 군법당에 '화랑좌복' 전달

정억순 보살 2차분 3210채 보시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는 7월 5일 경북 칠곡 화랑선원(원장 정억순)으로부터 군법당 화랑 좌복 3210채를 전달받았다.



화랑좌복 전달식 모습.

화랑 좌복은 '이불 보살'로 유명한 정억순 보살이 지난해부터 직접 만든 것으로 2월 14일 1차분 2410채가 강원도 동부전선 군법당에 보내졌다.

이번 2차분은 8톤 트럭 2대 분량으로 국방부 호국 원광사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과 후방 부대 및 공군 · 해군 법당에 전달됐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軍佛教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불자와 함께 년간 1만 6천여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년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년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포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으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教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십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조흥은행 377-01-058158
우리은행 1005-580-051116 우체국 010025-01-010767
농협 094-01-156954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지로번호 7681972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 종 특 별 교 구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코리아 축구 대표선수 박지성 용주사 가던 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가 7월 6일 바쁜 일정을 쪼개 용주사를 참배했다. 용주사 스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법당을 나서고 있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 용주사에 기증한 스위스전 유니폼과 독일 월드컵 공인구 팀가이스트.

"귀자처럼 세계 주름잡는 선수 되길"

시종일관 '15도 내려보기'…겸손·당당함 묻어나

독일 월드컵 공인구·스위스전 유니폼 사인 선물

여느 절과 다름없이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백중 49일기도가 한창인 화성 용주사에 세계적인 축구스타 박지성이 '떴다'.

대웅보전에서는 영단을 향해 신도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영단에 모셔진 위패 중에는 박지성 선수의 할아버지 것도 포함돼 있다.

지난 봄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진행되는 와중 할아버지의 별세소식을 들은 박지성 선수는 귀국하는 즉시 할아버지가 모셔진 용주사를 찾아 슬픔을 견디며 인사를 올렸다.

2002 한일월드컵으로 뜬 유명세를 타고 일본 교토 퍼플상가와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을 거쳐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자리 잡은 후 귀국 첫 걸음이 바로 용주사 참배였다. 용주사는 수원에 살고 있는 박지성 선수의 부모가 자주 들러 기도하는 절이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7월 6일, 꽉 짜여진 일정을 쪼개 '한국의 자랑' 박지성 선수가 아버지 박성종씨와 어머니 장명자씨, 소속 에이전트 매니저와 함께 다시 용주사를 찾았다.

박 선수가 부모님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신도들의 반가운 함성이 한꺼번에 터졌다. 청바지와 캐주얼한 셔츠를 입은 박지성 선수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15도 내려보기'를 유지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조용한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카리스마는 어쩌지 못했다.

극성 아줌마 팬들을 피해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이 있는 염화실로 자리를 옮긴 박 선수는 가지런히 손을 모아 합장인사를 했다. 주지스님은 조부 상(喪)때 기도를 올려준 스님이기에 낯이 익어 한결 친근한 표정이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정호 스님도 박 선수가 기특한 듯 흐뭇한 표정으로 불명부터 묻는다.

"불명이 5개나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 머뭇거리던 박지성 선수가 쑥스러운 듯 이렇게 대답하며 웃는다.

옆에 있던 아버지 박성종씨가 아들을 거들었다.

"종국이하고 영표하고 지성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무진 애를 쓰나 봐요. 주지스님께서 마음 다잡도록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박지성 선수에게 '만(卍)'자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만'자는 그 기운이 시방세계로 뻗어 온 우주법계를 두루 감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걸고 불교의 참뜻을 늘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자처럼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름잡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지성 선수가 강봉 스님에게 직접 사인한 축구공을 전달하고 있다.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법문을 들은 박지성 선수는 용주사의 상징 효행기념관 법당으로 자리를 옮겨 20여 용주사 스님들과 만났다.

평소에는 정진에 몰두하는 스님들이지만, 박지성 선수를 만나기 위해 잠시 짬을 낸 것이다.

박지성 선수는 이번 방문에 독일월드컵에서 스위스와의 경기때 입었던 유니폼과 독일월드컵 공인구 팀 가이스트 사인볼을 가져왔다.

스님들에게 늘 받기만 하다가 용주사에 뭔가 줄 수 있어 기쁘다는 박지성 선수만의 대중공양인 셈이다.

아버지로부터 스님들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박지성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공인구에 직접 사인한 공 30개를 용주사에 선물했다.

'박지성 선수 독일월드컵 법회'라는 플래카드가 달린 법당에서 약식 법회가 진행됐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처님을 향해 합장한 박지성 선수. 흐트러지지 않은 '15도 내려보기' 자세는 겸손하면서 당당하다. 이국땅 영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겁 없는 동양인'으로 자리잡은 그의 강인한 내면이 엿보인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무엇을 기원했을까.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이 박지성 선수에게 '만'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다.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와 아버지 박성종 어머니 장명자씨.

법회가 끝나자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스케줄이 바쁜 박 선수는, 박수를 받으며 용주사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쳐야만 했다. 박지성 선수를 마중하며 한 신도가 자긍심이 가득한 말로 아쉬움을 달랬다.

"박지성 선수를 절에서 보니 너무 뿌듯하네. 이래서 젊은 불자를 키워야 한다니까."

화성/글=박봉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구입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과년호 한정판매!!
•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 | Email: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삼보리' 클릭하면 귀가 즐겁다

(sambori.com)

인터넷 방송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 5주년 맞아 공개방송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 5주년 공개방송에 참석한 불자들.

독자적인 홈페이지 운영, 찬불가 대중화에 앞장
월~금요일 쌍방향 대화방 진행…강좌도 풍성
'연꽃의 소리' 음반 회사 설립하고 보급에 매진

전국에 장맛비가 촉촉해 내린 7월 1일 안산 천수사. 20여명의 청년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될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 5주년 공개방송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불교 음악을 사랑하는 불자들. 노트북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고 마이크를 설치하는 등 생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다.

"마이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공개방송의 사회를 맡은 천수사 주지 지허 스님이 공개방송 참석자들의 마이크 상태를 일일이 점검한다. 예상치 않은 고장으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청취자들에게 공개방송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은 2001년 7월 2일 피플475닷컴(www.people475.com)의 불교 음악감상실로 처음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지금은 독자적인 홈페이지(www.sambori.com)을 운영하며 찬불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천리안 대화방, 타이젬 지혜바둑동호회와 함께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실시간으로 불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불교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동호회 운영자인 박금표 숙명여대 강사, 금요일은 지허 스님, 토요일은 인천 월천사 보문 스님이 각각 진행을 맡아 대화방에 들어오는 청취자들과 함께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방송을 하고 있다.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은 이외에도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의 알기 쉬운 교리강좌, 대원불교대학 최봉수 교수의 불교입문강좌, 무비 스님의 <금강경> <천수경> <유마경> <지장경> 강좌 등 다수의 불교강좌도 서비스 하고 있다.

9시 정각 오프닝 시그널 뮤직과 함께 진행된 공개방송. 진행을 맡은 지허, 보문 스님과 박금표씨는 천수사 법우 스님 등 공개 방송에 동참한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공개방송의 시작을 알렸다.

잔잔하게 찬불가가 청취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9시 30분경 불교 경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무비 스님의 전화 인터뷰가 이어졌다. 무비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 여러 방편을 통해 중생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특히 마른땅에 비가 스며들 듯 음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는 부처님나라가 앞으로도 감로 법문을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공개방송에서는 대각사 장산 스님, 월정사 재무부장 법상 스님,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 부산 BBS 지은아 아나운서 등이 전화 연결을 통해 청취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운영자 박금표씨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벨소리에 불교 음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다른 종교에 비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찬불가를 통해 청장년층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찬불가 대중화를 위해 불교음악감상실을 운영해 왔다"고 앞으로도 많은 청취 바란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은 찬불가 대중화를 위해 올해 '연꽃의 소리'라는 음반 회사를 설립하고 '패랭이꽃과 나그네'라는 앨범을 발매했다. 또한 좋은 벗 풍경소리, 범능 스님 음반 등 불교 음반 보급 운동에 나서고 있고 불교 관련 플래닛, 블로그, 게시판, 카페 등의 배경음악 설치를 통한 찬불가 보급에도 매진하고 있다

보문 스님은 "찬불가 앨범은 판매량이 저조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음반사에서조차도 앨범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며 "찬불가 보급은 청소년 포교 뿐만 아니라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 만큼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유선 전화 잘 쓰면 경비 절감

KT '그룹통화' 데이콤 '다량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사찰 · 불교단체 기대

유선전화가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료를 인하하고 있어 전화통화량이 많은 사찰, 불교 단체의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전화 사업자들은 기존 유선전화에 인터넷(IP) 망을 이용해 통화연결음, 발신자번호표시, 문자메시지, 게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최근 전화기 교체 없이 PC에 전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저장된 주소록을 지정해 전화를 걸면 그룹통화가 가능한 '비즈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해야 해야 하는 기업, 단체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비롯해 마지막 걸려온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주는 자동 재호출, 상대방이 통화중일때 통화가 끝난 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재시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데이콤 역시 착신전환 서비스를 비롯해 다량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찰의 경우 법회, 기도 등의 공지사항을 일반 엽서를 통해 하고 있지만 유선전화의 그룹 통화나 다량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0

근원과 경로 방향 이해해야

빛의 원리

최근 출시되고 있는 6m 캠코더의 경우 광도를 자동으로 높여주어 조명 없이도 밝고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조명 없이는 사실상 촬영이 불가능하기에 촬영시에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흔히 초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화면 전체가 붉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촬영된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조명에 대한 기술과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같은 장면이라도 조명의 위치와 색상 그리고 조도를 달리하면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기본만 알고 있으면 보다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조명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빛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빛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사물의 고유한 색상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영상에 있어서 빛은 단순히 사물을 식별하는데 그치지 않고 빛 자체가 영상이 된다.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물감처럼 빛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인 셈이다. 촬영을 하는 사람은 빛이 피사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과 녹색 그리고 파란색을 말한다. 영상에서의 모든 색은 바로 이 삼원색의 배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빛은 크게 빛의 근원과 경로, 방향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 빛의 근원은 자연광과 인공광으로 나뉜다. 오전 10시경 또는 오후 4시경에 자연광이 좋아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자연광이 창이나 틈을 통해 들어올 경우 조도 차이가 너무 커서 촬영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인공광은 인위적으로 빛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할로겐전구를 주로 사용한다. 자연광에 비해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준다. 굳이 구분하자면 자연광은 실외에, 인공광은 실내에 가깝다고 하겠다.

빛의 이동 방향을 빛의 경로라고 하는데 굴절되거나 반사되지 않는 빛을 직사광이라 한다. 직사광은 강하고 폭넓기 때문에 세밀한 묘사에 적합하여 영상 촬영시 대부분 사용한다. 반면 빛이 다른 물체에 부딪쳐 반사되는 빛을 반사광이라고 하는데 야외 촬영시 반사판을 이용해 피사체의 어두운 곳을 비출때 사용한다.

빛의 방향은 정면광과 측면광, 후면광과 직하광 그리고 상향관 등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면광은 정면으로 비추는 빛으로 지극히 평면적이어서 화면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측면광은 피사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비추는 빛으로 피사체 옆으로 빛이 들어와 그림자가 생기게 되므로 입체감을 느낄수 있다.

후면광은 역광이라고도 하며 피사체 뒤에서 비추는 빛을 말한다. 예술 작품 등을 촬영하기 위해 가끔 사용된다. 직하광은 피사체 바로 위에서 비추는 빛으로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 부자연스런 느낌을 준다. 상향광은 피사체의 아래쪽에서 비추는 빛으로 다분히 인공적이거나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공포영화에서 종종 사용한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수행화-新육바라밀



신제품으로 기존 육바라밀 보다 밑창이 두꺼워 착용감이 월등히 편하며 밑창도 고급창으로 바꿔 미끄럼을 방지하였습니다. 여름용으로 출시되어 시원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가격 : 40,000원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 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약사여래 정화수 약함

온갖질병의 고통을 소멸하고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리라



점안불공과 백일축원불공 마치고 출시!

만수 실리 보살아. 만약 남자나 여자가 병으로 고통받는자가 있거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병든자를 위해서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병자에게 약을 마시게 하면 이제까지 병자가 가지고 있던 온갖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것이며 죽을병은 구족해지고 병없이 오래살게 할 것이다. <약사경에서>

건강회복을 기원하는선물로!
연꽃처럼다시피어나는건강!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하는 불광사에서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의 약함을 제작해 점안불공과 백일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있는 환자들에게 큰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약사유리광여래부처님의 정화수약함은 순금99.9% 금니로 제작하고 약함내부에는 온갖 질병을 소멸하고 건강장수하는 부처님 반장을 넣고 정화수약함 뚜껑에는 뱃속에 있는 악귀와잡귀를 물리치고 병고를 없애는 보발수진언을 넣었으며 뚜껑을 열면 정화수 잔이 들어있다.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영구히 사용할수있게 제작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현재 투병중인 분께는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일간 특별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선물로 인기다.

가격135,000원(현금 또는 신용카드 분할가)
규격 : 높이 20㎝×폭20㎝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사주주역강의

사주통달하게 찝어주는 책임지도
명리를 정확하게 풀어야만! 정말 사주쟁이
역학 연구원 금강원
H·P011-9769-8868

경남 최고의 염불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태평소

수행과 보시로 집전대행
밀 양 055)391-3274
강정사 011-869-8560

척추

허리,어깨,목,무릎
짝다리,탈골(만성고질통증),
체형교정사주,작명,풍수지리

빙의 (신들림) 출장가능

활법,기공최면,전생,
급방 천도 전문 해결사
02)835-2399
011-817-3387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눈건조,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사물	각종의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어렵게 사찰불사 창건 하시는 스님께 안내

후불목탱,신중목탱,칠성목탱을 스님
사정이 어려워 아직 준비가 안되신
스님은 답사하시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반 값도 안되는 가격에 인연
목탱 평수는 대작임
010-3166-8483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신기한 - 약침요법

지압 뼈 교정법
개인지도 수강생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정력부족, 당뇨병, 간질환, 위장병,
견비통, 상기병, 만성피로, 두통 등
만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출장강의함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천도재 점안식

1인스님 15만원
2인스님 25만원
3인스님 35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드립니다
부산경남지역만됨
010-7747-5222

男행자님 모십니다

스님이 되고자 하는분으로
45세 이하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스님이 직접 교리 염불
습의를 지도 교육합니다
홈페이지: www.kidobal.com
011-584-3535

굳 수행환경 이대로 둘것인가?

불자 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
daum.net//Buddha0408com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연화사 대웅전 신축불사를 부처님
은덕과 사부대중 원력으로 벽돌1장
세멘트 1포대 불사로 회향하게될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국민은행 638102-04-034244 조명옥
017-297-4097

법회실 무료 대여

(마산시 내서읍 중리 삼거리)
평수 -3층 75평
용도-불교포교용건물
불교교양대학, 참선방,법회실
기타 포교관한활동
011-9515-9120

부전 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비구스님에 한함
041) 836-5066

공양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운전가능자)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사찰(女)사무원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3222

공양주보살님 사무직 여직원 구합니다

(경기 평택)
031)682-3169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보시금 월 100만원
02) 932-2537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9929-9501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노원주 상계 2동 달마선원
02) 952-81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1) 803-7573

사찰 운영 버스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54세
010-6476-6026

사찰 전세나 월세 임대구함

▷지역 관계 없음
010-8828-3002

산좋고 물좋은 곳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법사찰 중 염불스님이
필요한 大사찰은 전화주세요
054) 433-6315
010-4811-67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김포시
011-688-6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483-5639

토굴 암자에서 기도 같이 하실분

(불심 강한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경남 창녕
010-4518-3978

고요하고 한적한 사찰에 부전스님이나 사찰 관리하면서 수행 정진하기를 원함

(40대 비구)
010-4561-567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남산동
- 3층건물 1층
- 법당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10-3514-255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720-5682 핸드폰:010-8392-2557

사주학 공부가 어렵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써먹지 못합니까? 방편으로 배워서 활용하고 싶다고요? 철학관을 운영하고 싶으세요?

인연있는 분께 답을 드립니다. 사주는 통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주일 책임지고 완성하여 드립니다 (실전포함)
단 10분에게만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전수보시금 3백만원 강사 효산스님 합장
의정부 태고종 지리사에 계시던 법일스님(속명 김병성) 을
노의덕이 찾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032)549-8287~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 의 010-7302-00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당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출 가 학 교 모 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5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 19일(수) ~ 8월 8일(화) - 21일간
- 대구큰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 교육비 전액 무료 ● 선착순 : 20명
- 문의 : 053)474-8228. 011-9852-0075(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불자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도 소재
- 대지 : 140평
- 대웅전 20평 (인법당, 시설완비)요사채 30평
- 산과 바다가 보이는 최적 수행 도량
- 가격: 1억 3천만원

011-511-2609 / 064)748-20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 법당 35평, 요사 35평
목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가액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307-34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서울 50분거리
시내에서 버스 15분 거리, 자가용 10분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기와 요사채38평,
- 산신각, 법당집기, 주방기구 일체 양도
- 마을끝자락에 떨어져 있고 뒤는 야산, 별장식 담장, 정원수 다수, 절마당 까지 주차 가능
- 가액 : 2억2천/ 전세는 4천만원(기간5년)

031)632-2138 018-309-1760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7. 30 (월 · 화 ·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조 상 영 가 천 도

시부모 영가 | 친정부모 영가 | 태아 영가 | 각종질병 사고로 인한 | 사별한 남편부인 | 조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

체계있게 경전을 독송한 후 천도합니다. 가족에게는 삼재팔난 업장소멸하여 소원성취 됩니다.
대불정능엄신주, 우리말천수경, 지장경, 영가천도 책을 열심히 독송기도 하십시오, 필요하신분은?
체계있게 개인적으로 효과적인 독송기도방법 지도

철야기도 가족과 함께
대구팔공산 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오, 소원성취가 더 큼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학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치매예방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마산 245-2662 안성 010-9242-0359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 법당 : 22평
- 요사 : 80평
- 부지 : 6,000평
- 가액 : 22억

- 위치 : 경북 포항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760평
- 가액 : 6억

- 포교당 임대 -
- 위치 : 대구
- 법당 · 요사 : 40평
- 가액 : 1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2.서대문포교당45-월110
3.봉천동포교당40평-월85
4.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5.강남GB 500평부지-14억
6.운영필요한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별장식 사찰안내
- 위치 : 이천시(중심가)
- 대지 : 180평
- 주차장 (100평) 별도 이용
- 법당 33평(1층) 요사채 1층 2층 (방 5개)
- 가액 : 3억 2천만원
- 공찰 주지 소임 관계로 새로사찰을 상근하고자 하는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016-510-3455

토굴안내
- 위치: 충남 홍성
- 대지: 200평 건평 50평 전 300평
- 가액: 1억9천7백만원

011-425-6054

사찰터안내
- 서울 왕십리 뉴타운지역 역세권 대로변
- 사찰 (포교원) 건립하실분 구함
- 대지 51평 15억원 향후 투자 전망 좋음 중개인 사절

010-2330-3418 주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 부지 : 650평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6천

- 위치 : 서울 포교당
- 면적 : 36평
- 전세 : 5500만원
- 시설비 약간
- 3층건물 중 3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유료 보양원 및 양로원 최적지
- 위치: 종로구 평창동
- 평수 181평, 건평 170평
- 3층건물 엘레베이터 有 정자, 주차시설 가능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하였으나 확장이전 관계로 안내함
011-441-1966
02)3216-0572

위치	부지	가액
• 서울	80평	4억
• 경남	1000평	3억2천
• 양평	약 2천평	13억
• 경기	약 2천평	18억
• 서울국립공원내	약 6백평	5억
• 부산구포	50평 3층 도심포교 최고임	3억2천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전세)
- 위치 : 경북 구미시 소재
- 부지 : 120평
- 법당 : 70평(3층), 산신각 70평(2층)
- 종무소 : 70평 (1층) 공양간 ; 30평(지하)
- 가액 : 전세 1억
- 특징 : 도심인근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도심 사찰임

- 위치: 경북 포항시
- 부지 : 200평
- 법당 : 40평(삼포,목조,단청)
- 요사 : 40평 산신각 5평(목조 단청)
- 가액 : 전세 3억원
- 특징 : 신도시에 위치한 전통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 대지 870평, 법당 25평, 용왕당 4평, 산신각 5평, 종각 3평, 요사채 방 7개, 주방시설 완비
- 주차시설 30대, 70년된 사찰 사용평수 2,000평
- 가액: 5억

010-4877-5900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광주 생활권
- 면적: 500평(무상임대)
- 건물 : 법당 1동 20평 등기, 속가형 한옥요사 방3개
- 연혁: 약 80여년된 아담한 산속의 고찰 토굴차 진입 가능
- 가액: 9천5백만원

011-288-6668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3천5백만원
- 가액 : 1억8천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포교원 안 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35평, 4층건물중 3층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 가능

010-8676-692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 (상가 건물 2층)
- 총평 : 40평,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60 (큰방,1개, 거실, 화장실 보일러) 10년전통

사찰,암자,포교당,운영, 각종행사 상담합니다
삼보불사 011-9769-8868

황금알땅 종교부지
- 5166평
- 최고명당, 화장터옆, 납골당터
- 민원없음 국유지, 몇백만평속 사유지, 한필지
- 형질변경 완료, 토목공사중

경기도 광주 사찰
- 대지 290평 총사용 400평
- 대웅전, 요사채 110평 새건물
-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011-9109-3660/011-9228-23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해운대구 재송동 최고 요지
- 약 50평, 사무실, 법당, 공양간, 주지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 집기 비품 3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9-293-93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 평수 50평, 신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8-543-0901

포교당선원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3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시내 근교
- 대지 : 90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1-511-77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 수락산
- 평수: 67평 6층건물에 3층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017-515-7527

사찰안내
- 위치: 전남 화순군
- 연화 도수 형국, 최고의 명당터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큰호수있음 1200평. 조립식 임법당, 요사채, 토목공사 완료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무료보시
- 가액:1억4천만원(가격절충가)

010-9405-9288

사찰안내
- 위치: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토굴 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으흥
- 평수 : 전 320평,건평 40평
- 흙집 소담집 벽 60cm이상 황토방 시설 수행 공부터로 적합
- 가액 : 3천 8백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사찰터.전원주택지
- 위치: 경남 함양군 휴천면 법화사 옆
- 평수: 임야,전 9814평
- 수목 70년생 소나무숲
- 가액: 상담 후 결정

010-9460-125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상업지역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777-857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 대지: 600평
- 고건물 대웅전(25평)
- 요사채 약40평
- 가액: 4억 (절충可) (전세도 가능함)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530-18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평수: 80평
- 5층 건물 중 4층
-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51)333-5536
010-2582-533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 건평 200평, 방 2개 입식주방, 기름 및 연탄보일러 겸용
- 창고, 텃밭 150평
- 가액:1천만원

054)632-931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아산 호서대학교 부근) 천안에서 20분 온양에서 20분
- 가액: 1억

010-2000-5809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평당 싯가 80만원
- 가액 : 9000만원

011-662-9242
055)745-1083

사찰 및 사찰부지 안내
- 평수 : 1000 ~ 3 만평 (100% 평지)
- 가격 : 평당 25 만원 (가격 절충)
- 위치 : 서생 간절곶 바다전망 환상적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뜨는 곳

※부산시내 사찰 및 암자, 토굴, 포교당 다수 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 부동산
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봉덕동
- 대지: 약 80평
- 내부: 전통 한옥 법당
- 가액: 4억 2천만원 직접 보시면 만족 하실 겁니다 여법하게 정진중입니다 인연 닿으신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신 분입니다

019-473-7600

최고의 포교당안내
- 위치 : 동인천역 자유공원 입구
- 평수 : 50평
- 법당, 공양간, 방 4개, 욕실 2 (화장실 겸), 도시가스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32)772-5854
010-8453-0369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5분 시내버스 1분)
- 대지 71평, 법당 1층 30평 2층 요사채 20평
- 삼존불, 108호신불, 산신각, 집기일체 산밑 조용한 곳 / 마당 주차가능
- 가액: 2억 2천만원

051)555-8516
010-850-844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 정선
- 임야: 약 5370평 (평당 5만원) 전 : 4100평 (평당 10만원)
- 특징: 화암 8경중 하나 신약수터
- 진입로 확보

017-331-1579

주 택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 여건 : 해발 약 300M 위치, 전망 좋음
- 내용 : 대지 약 100평, 건물 1동 작은 구들방1, 작은 보일러 방1, 입식부엌 욕실(수세식화장실) 작은 마루1
- 가액 : 4000만 (설정 없음)

011-9454-8785
055) 963-72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 건물 65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원불 108불, 신중탱화 (법당기본 완비)
- 보증금 일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별도

016-528-3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평리도 대로변
- 평수: 45평(3층건물 2층)
- 법당 25평,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친견실, 침실, 공양간, 음향시설, 단청 에어컨 기타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미만 협의

011-9511-4963

포교당안내 (포교당최적지)
- 위치: 경기도 안성
- 2층 건물 중 2층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9816-2529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가야산앞)
- 평수 690평 - 2천만원
- 평수 330평 - 2천만원
- 특징 : 전망 좋고 산세 좋은 곳 절터 명당

010-9268-6166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 법당, 요사채, 용궁, 전답
- 침술, 기치료. 양봉기술 특기를 가지신 스님 보살님 신의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실 인연바람
- 가액: 2천 2백만원 청정수월 약사도량임

018-406-30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동명
- 평수 : 385평 (대구에서 한시간) 기도장, 주방, 방 기타
- 산세수렴 기도도량
- 가액 : 90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7710-78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60평 (2층, 3층)
- 모든 시설완비, 집기일체 양도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32) 662-1774
010-3167-17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 평수 : 50평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6-535-193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좋은 因緣을 찾습니다
- 위치: 경남 고성 시내에서 10분거리 (녹차 100평 10년 수명) 백두대간 남해바다에 맞닿은 300만평 숲속
- 내용: 종교부지 300평 (법당 30, 요사채 30평 기타 건평 8년) 그 외 1,000여평, 봉황이 알을 품은 정남향 명당) (자연경관 흐름따라 황토, 태백산 적송으로 지음, 조경 잘됨) (산책로, 1급 지하 샘물, 산수, 병풍같은 뒷산과 앞산거리 4km
- 바램: 禪院 및 기도처, 수양 요양처로 최적 (고도 250m 뒷산 450m, 앞산 100~600m)
- 가액 : 5억 (상황 따라 절충 가능)

055)674-2202
010-2245-4862

사 찰 안 내
- 위치: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200평,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34평(목재), 산신당10평, 위패당 및 납골당 85평
- 가액:16억 5천만원

031)543-65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전주시내 고급 아파트 밀집지역
- 3층 건물 중 2층 , 35평
- 법당, 스님방, 공양간, 사존불 각단후불탱화. 지장단. 신중단 산신단. 영가단. 집기일체완비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없음

063)271-7688
010-3038-6788

주 택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 여건 : 해발 약 300M 위치 전망 좋으며 석간수 있음
- 내용 : 대지 약 300평, 건물 2동 본채 : 방2, 입식 부엌, 욕실, 마루 별채 : 구들방 1, 창고
- 가액: 9000만원 (설정 없으며 절충 가능)

055)963-7233
011-9454-878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5일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시설한지 약 1년 됨, 주지실, 법당 지대방, 각 에어컨, 난방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5천 소유(2천 3백 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청주시내 충북대학교 약 200M 시장 약 200M 공단오거리 약 200M
- 대지 50평 1층 요사, 방 4, 주방, 화장실, 거실 2층 요사, 방 3, 주방, 화장실, 거실 3층 법당, 지하창고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3,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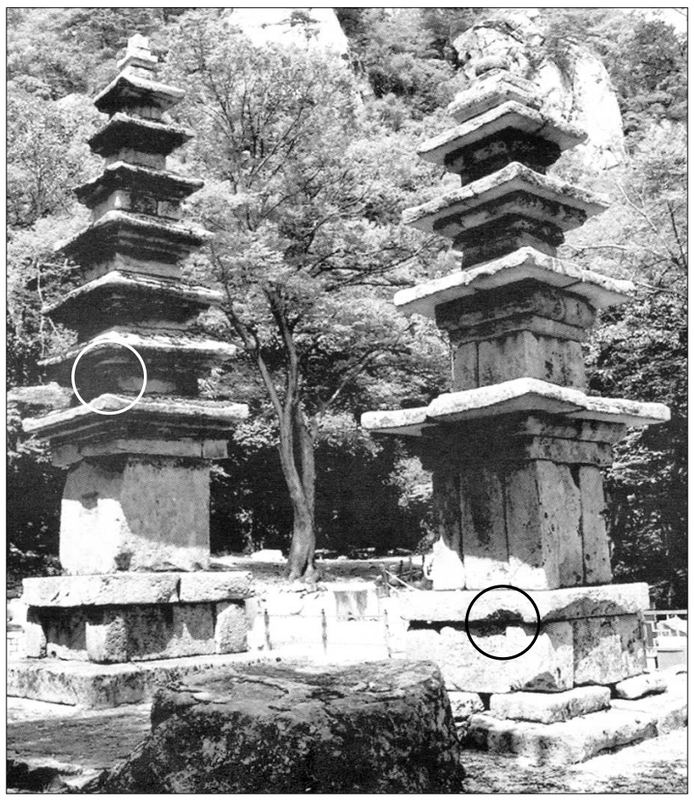
010-6460-1316

무너진 국·보물급 석탑 관리

석조문화재의 현주소

국·보물급 석탑들이 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돌덩이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와 공주대가 공동 조사한 '청량사지 5·7층 석탑 정밀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공주 청량사지 5·7층 석탑(속칭 남매탑, 보물 1284·1285호)은 육안으로도 기울어짐 현상이 관찰될 뿐 아니라 부재(部材) 파손, 표면박리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다보탑(국보20호), 석가탑(국보21호), 감은사터 서탑(국보112)이 0.6~1도 기울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훼손 상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감은사터 동탑은 옥개석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월정사 8각9층 석탑(국보48호)에서 균열이 확인되는 등 다른 석조문화재들은 훼손이 잇따르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조문화재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기단부 파손이탈 및 박락(사진 오른쪽 원안), 2층 옥개석의 부재결실과 표면요철(사진 왼쪽 원안) 등 당국의 관리소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주 청량사지 5·7층 석탑.

산성비·염분·새 배설물 등 주요손상 원인
"해체·보수하려다 되레 훼손할라" 딜레마
전문가 양성 시급… 정기점검 뒤따라야

 # 손상 실태

국내 석조문화재는 국보 64기, 보물 442기와 시도지정문화재 637기가 있다. 이중 대다수가 석탑, 석불, 부도, 석등 등으로 불교 문화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작 시기는 삼국시대~조선 시대로 대부분 1000년 이상 야외에서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표면 훼손은 물론 강도도 많이 약해진 상태다.

청량사지 5층 석탑의 경우 상륜부는 파손 이탈과 균열 등으로 이미 풍화가 진행되고 있고 탑신부도 부재의 결실 및 이격(사이가 벌어짐)으로 불안정한 데다 망간 산화물 표출로 지대석에는 흑화현상(표면이 검게 변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사지 7층 석탑도 북측 상대갑석의 미세균열과 층상균열이 관찰됐고 동남측 5층 탑신부의 부재 이격 및 옥개석 마모, 탑신석의 이격 등 다양한 물리적 풍화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두 석탑 옥개석 낙수면 등에는 선태류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등 주변 수목과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보탑, 석가탑, 감은사터 동·서탑의 주된 손상원인은 산성비와 인근 해수의 염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산성비와 바닷바람의 염분으로 인해 탑의 강도가 약해졌고 탑 기단부에 이끼가 많이 끼고 석재 곳곳이 균열돼 전체적으로 탑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다보탑은 탑신 표면의 마모가 심하고 최근 3년 새 백화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가탑도 기단부 상층 내부에 큰 틈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보 48호 월정사 8각9층 석탑도 기단부의 부재 일부에 금이 갔고 탑신부에도 균열이 진행 중이다. 부재와 부재 사이도 어긋나 있는 상태다.

또한 부여 무량사 5층석탑(보물 185호)의 경우 석탑이 뒷면으로 기울어져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2003년에 보수공사를 실시했던 양주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389호)은 보수부분이 일부 탈락된 채 방치되고 있어 부실보수공사 의혹마저 들고 있는 실정이다.

 # 인공보호기구 사용 여부 논란

석조문화재 보수·보존에 딜레마가 따르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를 위해 탑 등을 해체하려다 오히려 탑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진형 연구원은 "1996년 감은사터 동탑을 해체 보수했지만 기단부 아래에 잡석을 부실하게 채워 기단부가 불안전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1000년 이상 안정적으로 버텨오던 석조물을 해체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적 보호기구의 사용이 석조문화재의 자연미를 훼손시킨다는 여론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원각사지 10층 석탑(국보)의 경우, 산성비 자동차 배기가스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2000년 유리 보호막을 설치했지만 석탑을 유리 안에 가두어 탑의 참 맛을 훼손했다는 언론과 여론의 핀잔을 받은 것이 좋은 실례다.

또 문화재 보수·보존 명목으로 책정된 당국의 빠듯한 예산과 보수할 전문인력 부족도 풀어야할 과제다.

 # 대책은?

관계학자들은 △전문인력 확충 △상시계측 시스템 설치 △정부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예산 확충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전문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한 명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한명도 없다.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해 석조문화재 훼손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전문가와 광물학 암석학 전공자들의 유기적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암석의 성질과 특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보존 방안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단 하부 등 변형된 부위와 탑 몸체의 변형 예상 지점에 센서를 구축하고 3차원 스캔자료를 통한 각 부재의 기울기 및 중심축 기동을 분석하는 상시계측 기기와 자동기상관측기를 설치해 풍향·풍속 및 온·습도 등을 관측해 다각적으로 국보급 석탑을 보존·정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주대 이찬희 교수는 "석조물을 보존하려면 자연풍화작용을 진정시키기 위한 보호각 설치와 산성비로 인한 2차 오염 세척, 생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약품처리와 부재 이격과 표면박리 등 기계적 풍화 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간극이 큰 지점에 대한 접합 및 강화 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보수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北, 북관대첩비 복원



지난해 3월 북한에게 인도한 북관대첩비(사진)가 원래 건립 장소였던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리에 안전하게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가 지난 3월 23일 건립 당시의 받침돌 위에 비석을 올려놓은 복원된 모습의 북관대첩비의 사진과 동영상을 7월 3일 공개했다.

이들 사진과 동영상은 최근 한일불교복지협회(회장 초산)와 통일부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진을 통해 본 북관대첩비는 임명리 주변 2만여㎡ 보호구역 안에 원래 받침돌을 괸 채로 세워졌으며 주변에 작은 자갈돌을 깔고 잔디를 심어 단장했다.

또 복원된 비석 옆에는 북한 국보유적 193호로 등록됐음을 알리는 표지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 등을 새긴 안내석도 같이 세워져 있다. 노병철 기자

묘지명에 담긴 고려 역사와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다시보는 역사 편지…'



"가부좌를 틀고 향을 사르고 손을 거두었는데, 죽는 것을 집에 돌아가듯이 평안하게 여기며 돌아가셨다…불교의 지도자들이 모두 앞에 나와 분향하고 존경을 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불교에 뛰어나서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시었네."

여진 정벌로 유명한 윤관 장군의 아들 윤언민(1095~1154)의 묘지명(61.3×26.6×1.8cm·사진) 내용 중 일부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은 7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에서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의 묘지' 기획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공개되던 고려 묘지명의 실물들을 한데 모아 고려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질서,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묘지명(墓誌銘)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무덤 안에 넣은 기록물을 말한다. 비록 각각의 묘지명은 개인적인 동기로 만들어졌지만, 현대인들에게 당시의 문화와 역사, 삶과 생각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불교와 도교, 유교, 풍수지리, 민간신앙 등의 내용을 담은 묘지명 70 여 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의 내용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해동천자의 나라'는 독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황제국(皇帝國)을 자처한 고려 왕조의 정치적 특성을 알 수 있다. 2부 '가족과 여성'에서는 혼인과 거주의 실상 등 가족생활과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3부 '정신세계'에서는 '윤언민의 묘지명' '황보양 처 김씨 묘지명' 등 불교와 유교, 도교, 풍수지리, 민간 신앙 등 다양한 사상과 신앙이 깃든 묘지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단아하고 아름다운 묘지명, 받침대가 있는 특이한 묘지명, 새로 발굴한 정언심 묘지명 등이 소개되며, 특히 이들 묘지명의 내용과 관련된 도자기나 공예품, 회화류, 문서 등도 함께 전시된다. 노병철 기자

중앙승가대, <초기불전> 발간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학인들이 발행한 <초기불전>(사진)이 최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남방 수행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사념처 수행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념처경(마하사띠파하나)>과 염처경(사띠파하나수타)에 대한 번역은 물론 사념처 관찰(신·수·심·법) 등의 내용을 해설과 주석을 달아 설명해 놓고 있다.

※ 기사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상봉터미널 서울 금란교회 재일은행 망우고개 묵구능 덕소 월당 양평 도농삼거리 마지터널 1Km 성화불교미술원(공장) 위커힐호텔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화제의 신간

21세기 다시보는 풍수지리

智山 風水地理要訣 【제1권】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닌 자연과학이다
이기 형기 현공 양택 산사주학 비법
신개념의 풍수가 한눈에 쏙쏙!

이것이 바로 기둥이요 뿌리라!!!
신 풍수지리 완결편 지침서 길잡이!!!

- 주역팔괘 방위와 음양오행에 따른 이기학
- 좌향과 해운에 따라 후손에게 미치는 산사주 비법
- 해운과 좌향 변화에따라 변하는 현공학
- 지형지세와 용맥 변화에 따른 형기학
- 간산(산소 감정) 요령
- 각종 택일
- 장의절차와 상례축문



전국 서점 판매중!

金 根 夏 지음 / 신국판/양장본 / 736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저술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4×6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02) 921-8434 Fax.(02)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일 주 문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한 선서각전

대구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노인전문요양병원 무량수전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선서각전을 7월 14~19일 KBS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053)474-8228



통일부장관상 수상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원장 도각 스님은 6월 24일 열린 통일과 환경백일장에서 '평화통일의 빛'이라는 시로 대상인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삼보선원 개원 및 점안법회

구미 삼보선원 원장 능인 스님은 7월 14일 오전 10시 구미시 사곡동에서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개원 및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제10차 지도자 연수 교육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김성호 회장은 7월 15~1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10차 지도자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21회 불이상 시상식, 지홍 스님 · 석길암씨 수상



사진 왼쪽부터 윤용숙, 무진 · 흥륜 스님, 석길암, 명성 스님, 2명 뒤 홍라희, 지홍 스님, 정병조, 1명 뒤 김종서 박사, 성정 스님.

재가여성불자단체인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주관하는 제21회 불이상 시상식이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동국대 강사 석길암씨와 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지홍 스님(정향사 주지)이 각각 연구 분야와 실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동국대 정병조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지홍 스님은 활발한 불교 포교활동과 사회복지분야의 공로로, 석길암씨는 젊은 소장학자로서 원효사상에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상소감에서 지홍 스님은 "복지분야의 실천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석길암씨도 "지금 한국 불교학계는 논문 분야에 양 · 질적으로 괄목할 만큼 발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교학 연구에 더욱 매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과 불이회 윤용숙 명예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음악계 말아톤' 최준 군 자선음악회

강북장애인복지관 주최, 첫 피아노 독주



최준(사진 왼쪽)군이 신민임씨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피아노를 치면 상쾌해요."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배형진과 같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음악계의 말아톤' 최준(16) 군이 첫 피아노 독주에 나섰다. 최 군은 지난 4월 일반인도 쉽게 도전하기 힘든 판소리 완창에 성공하며 '판소리 말아톤'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유명인. 그런 최 군이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자선음악회 무대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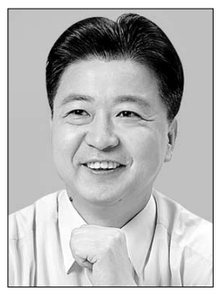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 주최로 7월 4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휴(休) 여름, 쉬어가다' 음악회에 출연한 최 군은 오른손을 8분여에 걸쳐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슈베르트 환상곡 작품90'을 안정적인 기량으로 독주했다. 이어 스승인 피아니스트 신민임 씨와 함께 베토벤,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을 이중주로 협연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한마음선원에 다녔다는 최 군은 지금도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새벽예불 참석과 108배를 곧잘 하는 독실한 불교신자다. 최군의 어머니 모현선(44)씨는 "준이가 재능을 살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도난문화재 거래 '선의취득' 될 수 없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부실한 법조항 때문에 불법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개정돼야죠."

7월 3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 제출한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사진)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예외조항 신설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등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은 "민법 249조의 '선의취득' 조항은 도난문화재 거래에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19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문화재매매업 신고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문화재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자체나 문화재청이 이를 관리 · 감독해 문화재 거래현황 파악과 투명한 문화재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운불련 제8대 회장에 김부열씨 선출



"전국 5000여명 회원 모두 불교대학에서 공부해 부처님 가르침에 보다 바르고 가깝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7월 1~2일 원주 구룡사에서 열린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 창립 제12주년 기념 수련회 및 정기총회에서 운불련 제8대 회장에 선출된 김부열 회장(62 · 법성 · 사진)은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당선소감 첫머리로 열었다.

김 회장은 "각 지역에서 정기법회는 물론 특별 수계법회를 통해 법명을 받게 하고 종단 신도증 갖기, 재적사찰 갖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북미주 총동문회 김경재 회장

'아름다운 후배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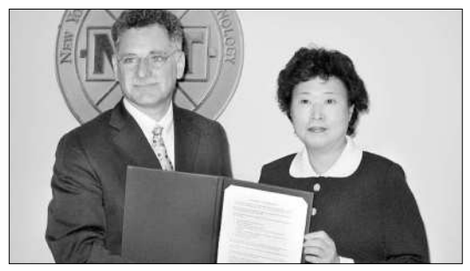


동국대 한 선배의 후배사랑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동국대 재학생 25명은 7월 8일 미국 문화체험을 떠나게 된다. 미국에서 2주간 주요 대학탐방과 LA, 뉴욕, 워싱턴 일대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동국대 북미주총동문회 김경재(61 · 사진) 회장이 매년 1억원 이상의 사재를 내놓아 진행되는 행사다. 2004년 20명, 2005년 21명이 소중한 체험을 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김 회장은 이 외에도 '김경재 동문 장학'을 설치해 학기당 250만원씩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학기간 중 사법고시 1차 합격을 할 경우 등록금 전액과 학비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위덕대, 뉴욕공과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위덕대(총장 한재숙 · 사진 오른쪽)는 6월 28일 뉴욕공과대학(NYIT · 총장 줄리아노 · 왼쪽)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위덕대 학생들은 NYIT의 의학 및 간호학 분야를 포함한 전 관련 학과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위덕대는 7월 4일 중국 북방이공전수대학과도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진산식 성금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기탁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이 진산식에서 화환 대신 모은 성금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탁했다. 허운 스님은 6월 29일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기념사업본부는 동국대 경주병원에 난치병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정목적 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오세훈 서울특별시 신임시장(사진 왼쪽)이 7월 1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를 방문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상을 알기 위해 복지센터를 찾았다"며 "앞으로도 격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어르신들의 부탁에 일일이 손을 잡았다.

법주사 외국인 유학생 템플스테이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7월 1~2일 청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5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온 유학생들은 새벽예불과 참선, 발우공양 등을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했다. 포교국장 각우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덕림사, 명사초청강연 마쳐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7월 2일 대웅전에서 명사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김미옥 해남생협 운영위원장은 '우리몸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 주제 강연에서 패스트푸드와 식품첨가물 실상을 소개하고 잡곡위주의 식사를 제안했다. 초청강의에 앞서 제6기 기초교리 강좌 졸업식이 열렸다.

15면 하단광고로 이어집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본인은 광주 동원사 주지 지각(박말서)스님 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1일자로 신문지상에 (재)한국불교 법륜종 탈종 공고를 했었는데, 이후 (재)한국불교 법륜종에서 체탈도첩으로 공고되어 부득이 탈종했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인은 (재)한국불교 법륜종 창종 이후 입종하여 종단의 제반불사에 동참하고 종단 발전에 노력을 해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한국불교 법륜종에서는 동원사 주지 지각(박말서)의 승적원부를 분실 내지는 말소시키고도 소식이 없다가 지난 6월 5일에 본인이 확인 했을때까지 원부작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국장(홍대희)이 새롭게 작성하여 보관하겠다는 소식을 받고, 총무원장(고산)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답이 없어서 탈종하게 되었는데, 총무원측에서는 사과대신 종헌종법을 내세워 「제3장 8조(징계) 2항, 탈종을 도모한자. 3항, 사리를 위한 파당을 조성하거나 승단의 화합을 파괴한 자. 5항, 종단의 법통과 안정 발전을 해칠 목적. 7항, 종단 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으로 체탈도첩을 공고했기에 저의 판단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어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종단에서 승적원부를 없앤 사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으면서 탈종공고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종무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승적을 없앤다는 것은 종단에서 이미 종단의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탈종을 했던 것인데, 체탈도첩이라는 공고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종단행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종도의 잘못으로 돌리는 (재)한국불교 법륜종의 처사에 큰 유감을 표시하며 진실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 병 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자치 성공의 조건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월 1일을 기해 전국에서 동시 취임함으로써 민선4기 지방자치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1995년에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1년 간의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지방자치의 실험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온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진통을 겪으면서 진화를 위한 적응과 변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민선4기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를 새겨보고자 함이다.

우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대표적 문제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권한 부족, 인적 자원의 부족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매우 심각한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은 앞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재정이양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현재 전체 세수의 20%에 그치고 있는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에 대한 권한이양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적 자원 수준 제고의 노력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공무원의 선발과 교육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지자체건 간에 행정의 질과 수준은 공무원의 인적 자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은 지자체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업가적 리더십과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의 의지, 지역내 구조적 이해관계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의 의지 등은 지자체 리더십의 핵심적 요건들이다. 지역 내의 뿌리깊은 지연, 학연을 멀리하는 중립성은 특히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자질과 의지, 그리고 실행력 또한 빠질 수 없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의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민주주의적 의식, 업무 전문성은 지방자치의 대표적 과제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체장들과 의회의 협력과 견제 관계가 충실히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

5 · 31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중앙정치마당의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의도와는 별개로 지방자치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남긴 결과가 되었다.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공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4개 기관 모두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한 정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단체장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소환제 등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나, 효과에 비해서 그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너무 클 수 있는 제도인 만치 현실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에 필수요건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있어서도 지금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애정을 되찾을 수 있는 내실있는 역할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이기에 민선4기를 통해 각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안적 견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요즈음 사찰에 가면 오래된 탱화는 똑같은 크기의 사진으로 대체되거나 새로 제작한 탱화를 대신 걸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보문화재의 도난 때문에 생긴 씁쓸한 실상이다.

도난문화재의 증가는 도난 문화재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현등사 사리기에 대해 원 소유자인 현등사가 현 소장자인 삼성미술관 리움과 소유권 문제로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고,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도 유사한 문제로 백양사와 불교미술박물관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도난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공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하나는 공소시효이다. 문화재를 훔친 사람이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하나는 선의취득이다. 문화재를 구입하거나 취득한

도난문화재 '억제'하는 법률은?

사람이 장물인지 몰랐다면, 민법 제 249조에 의하여 선의취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이 두 법 조항만으로 문화재 도난을 막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때문에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급기야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백양사 극락회상도의 경우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도난문화재정보란에도 검색되지 않는 허술함을 보였다. 따라서 도난문화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설치가 요망된다. 문화재청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고, 차후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도난문화재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총체적이고 균형잡힌 것이어야 한다. 도난문화재의 유통을 종합적인 고려 없이 무조건 어렵게만 하면, 도난문화재는 숨어버리거나 외국으로 밀반출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으로 유출될 바에는 우리나라에서 티격태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한 쪽을 강하게 억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도난문화재를 억제하는 법률은 총체적인 시각에서 균형을 이루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미사일

국방의 안전을 기하고 정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모든 백성들의 공포심을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참으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 불거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현실화되고 만 것이다.

북한은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와 단 · 중 · 장거리 등 모두 7기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미간 양자 대화가 거부로 인한 시위, 6자회담 복귀를 앞둔 대미 협상카드, 이란 수출을 위한 미사일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발사 목적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노리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세계 평화를 담보로 한 안보위협이며,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번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미국을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독립기념일 경축시간에 발사하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질 때 어선은 조업중이고 여객기는 운항중이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이 사태를 빌미로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미사일로는 결코 안전보장을 얻을 수 없다'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무력시위를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간의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력으로는 평화정착이 요원하다. 오직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원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어린이 법회 보는 곳 없나요?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불자입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 법회에 보내고 싶은데 주위에 어린이 법회를 하는 곳이 없네요.

저 자신도 청소년 시절 불교 학생회를 다니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고 지금까지 불교를 나의 종교로 믿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어린이회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꼭 어린이회에 보내리라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어린이 법회를 보는 곳이 거의 없어 안타깝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사찰에 일요법회에 동참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 법회도 잘 못보고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동참하신 여러 대중에게도 미안해서 지금은 절에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사찰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린이 법회가 있어 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어 편안하게 법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시절부터 어린이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뛰어 놀다보면 자연스럽게 불자로서의 삶을 평생동안 살아갈텐데 아쉽기만 하네요.

개신교나 천주교는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부터 어린이회, 중등부, 고등부 등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믿게 만들지만 불교는 아직까지 이런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님들도 어린이법회를 하면 돈만 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불교의 미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영(경북 구미시 도계면)

고마운 군부대 내 포교게시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공동으로 7월부터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포교 게시판을 장병들이 병영 생활하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에도 부착해 부처님말씀을 전하고 있다.

휴가 나가 서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지하철 포교 게시판을 군부대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보니 심리적 갈등과 유혹이 가끔씩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법회에 가면 지도법사나 스님들이 법문 해주는데 이에 의지해 갈등과 유혹을 해결하곤 한다. 그만큼 사람을 감동시키는 주옥같은 말이나 글은 한사람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각인돼 군생활을 아니 더 나아가 평생을 의지하는 큰 등대가 되기도 한다. 포교 게시판이 더 많은 군부대와 사회의 그늘진 교도소 등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김영동(강원도 홍천군 화랑부대)

스님들의 사회참여 '눈에 띄네!'

요즘 스님들의 사회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다. 최근 종단협 인권위원회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하는 스님 1080인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스님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단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종교환경회의가 얼마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교환경연대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이 동참했다고 한다.

이런 승가의 사회참여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기쁘다. 언제나 산중 불교, 치맛자락 불교, 기복 불교라는 소리를 비난처럼 해대던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스님들이 수행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대승의 길은 아닐 것이다. 속세에 뛰어들어 중생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자리(自利)에서 진일보해 중생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더러운 진흙밭에라도 뒹굴 수 있다는 이타(利他)의 결의를 요즘 스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다.

권정은(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14면 하단광고에서 이어집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원본

지각스님 법하

1. 먼저 죄송하구요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2005년도에도
승적원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 무등스님 자료를 보면 2005. 10. 25일 법계품수 기록이
승적원부 법계란에 기록되어 있으나.
· 지각스님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승적원부가 아닌
승적입적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05. 10. 25일에도 승적원부가 없어 법계품수를
승적입적원에 기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아무튼 신규로 작성했으니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을것이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홍대희.

➜

지각스님 법하

1. 먼저 죄송하구요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2005년도에도
승적원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 무등스님 자료를 보면 2005.10.25일 법계품수 기록이
승적원부 법계란에 기록되어 있으나.

· 지각스님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승적원부가 아닌
승적입적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05.10.25일에도 승적원부가 없어 법계품수를
승적입적원에 기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아무튼 신규로 작성했으니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을것이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홍대희

현대불교신문 윤년 특별 기획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달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 윤달에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물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여생을 겸허하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로 맞이하실 계기가 될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불자님들께 올립니다.

자손의 정성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편안히 사시고 후손이 번창을 염원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행하여야할 도리라 사려 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 명	재 질	특 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7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586 호



예편 뒤에도 불자 훈련병 수계법회를 열어오고 있는 충북불교대학 교무처장 전철호 거사. 그는 최고의 군포교사이자 영원한 군인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생활 30년 군포교 30년 전철호 거사

콜라 한 병에 종교 바꿔서야…

"일요일 종교행사 때 법당엘 가면 기껏해야 초코파이와 요구르트가 전부인데, 교회에 가면 햄버거도 주고 콜라도 줘요. 저는 시원한 콜라가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콜라 한 병 때문에 종교를 바꾸겠다는 병사. '그깟 콜라 한 병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종교까지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일일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그깟 콜라 한 병을 왜 못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일을 돕지 않고 절에나 다니는 아들을 몹시도 못마땅해 하셨다. 이런저런 이유로 절에 가는 것을 말리셨지만, 그런 부모님의 성화를 뒤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불교학생회. 콜라도 햄버거도 없었지만 참 열심이었다.

전철호 중령은 종교를 바꾸겠다는 병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금방 알아차렸다. 부족하다고는 느끼고 있었지만 콜라 한 병 때문에 종교를 바꾸겠다는 병사의 말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30년 가까이 군 포교 현장 속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받아들여야 했다.

3년 전,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군 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는 않았었다. 그냥 좋아서 해 온 일에 사명감 같은 것은 필요치 않았다. 주위에서는 그런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전 중령은 그런 시선조차도 눈치 채지 못했다.

무엇인가에 미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용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열정과 용기로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그 열정과 용기 뒤에는 좌절도 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니까.

충북불교대학 교무처장 전철호(52) 법사가 30년 넘는 군 생활을 접고 중령으로 예편한 것은 2005년 1월. 1974년 3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예편할 때까지 군 포교 활동을 했으니 전 법사의 30년 군 생활은, 아니 전 법사의 삶은 '군 포교' 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당한 체구에 깔끔한 인상.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면 조금은 무섭게 느껴질 만큼 눈빛이 날카롭다.

"아직도 군인이죠. 왜 있잖습니까, 밀어붙이는 거요."

한 번 마음먹으면 밀어붙이는 성격은 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타고 난 것 같다. 1975년 육군 3사관학교 생도시절, 생도불교동아리 '금강회' 활동시간에 동기생들에게 불교기초예절을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고교시절 여섯 차례 불교 수련대회를 다녀온 것이 체험활동의 전부일 정도로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처지. 그런데 어디서 그런 '무모한 용기' 가 나온 것일까.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쳤죠. 가르쳤다기 보다는 함께 배웠다고 해야 맞겠는데요…."

이게 시작이었다. 대위로 8사단 오뚝이 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에는 사병식당에서 사단의 군법사를 초청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법회를 가졌다. 법당이 없어 식당에서 법회를 보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즐거웠다. 소령이 돼서 6개월 간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불교동아리 총무를 맡았고, 21사단 '무적태풍부대' 로 근무지를 옮기고 나서는 부대 창고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던 법당을 보수해 법회를 열고 장병들에게 불교를 가르쳤다. 한 달에 두 차례는 사병들을 데리고 동두천에 있는 사단사령부 법당에 가서 법회를 봤다.

1992년 중령으로 진급하고는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부대에 경기북부사암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법당(호국대안사)을 건립했다. 장병들이 좋은 여건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원을 이룬 것이다. 이 법당에서도 전 중령은 직접 사병들에게 불교를 가르쳤다.



옮기는 부대마다 법회 열고 불교공부 지도
훼불사건때 국방장관 사과 이끌어 내기도
예편 후 충북지역 무대로 활발한 포교활동
사찰과 연계한 불자 훈련병 수계법회 진력

이듬해 경남 창녕 9군단 사령부로 자리를 옮겨서도 군 포교는 계속됐다. 형식에 그쳤던 사병들의 불교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종병도 임명하고 해인사에서 후원을 받아 군법당도 마련했다.

YS 정권 시절인 1995년부터 97년까지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군무할 당시에는 유난히 훼불사건이 많았고 당시 국방장관이 이에 대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국방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전 중령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강원도 원주 36사단 불교신도회장을 맡아 훈련병 수계법회를 열었으며, 홍천·태백·정선·영월·횡성·평창의 군부대와 지역 사찰들과 연계해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군부대들이 법사가 없어 법회를 열지 못하고 있었죠. 36사단에서 증평에 있는 37사단으로 갔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더군요. 그래서 진천 보은 옥천 청주의 군부대와 스님들을 연결시켜 법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북불교대학 사람들은 전철호 교무처장을 법사라고 부른다. 조계종 포교사이자, 포교사 고시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 법사는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사무국장도 맡고 있고, 대전·충청 포교사단 군 포교 2팀 부팀장도 겸하고 있다.

"혼자 다해요, 전 법사 없으면 충북불교 쓰러질걸요…." 취재 내내 옆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충북불교대학 12기 학생회장 조보행(53) 거사가 한마디 거들자 옆에 있던 신도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구동성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전 법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 바로 훈련병 수계법회다. 37사단에서 예편은 했지만 각 지역 사찰과 연계해 여전히 이곳 불자 훈련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열고 있다. 얼마 전 6월 25일에도 법주사에서 훈련병 수계법회를 열었다. 올해 훈련병 수계법회로는 벌써 여섯 번째고, 연말까지 여섯 번이 더 계획돼 있다. 2001년부터 37사단 신도회장을 맡아 수계법회를 열기 시작했으니, 올해로 6년째고 지금까지 7천명의 훈련병이 계를 받았다. 그는 여전히 전 중령인 것이다.

"작년에 충북지역에서 13명의 조계종 포교사가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죠. 올해는 30~50명이 시험에 응시할 계획인데,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그래야 군 포교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후원자이자 독실한 불교신자인 아내 이경희(49) 보살과 미란(27)·혜수(25) 두 딸. 힘든 군 생활에서 불교에 귀의한 병사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전 법사는 이 모두가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해준다고 했다.

오직 한 길, 군인은 평생 그 길을 묵묵히 걷는다. 전철호 법사, 아니 전철호 중령. 그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군인이다.

청주/글= 한명우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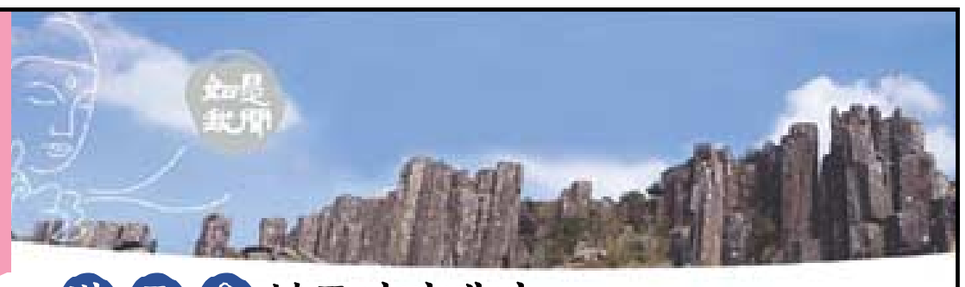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 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 30,000원 (무료배송)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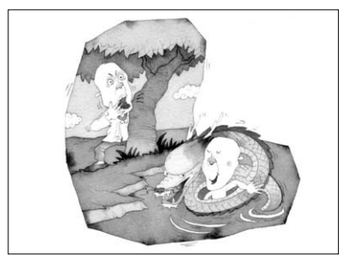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0> 더위를 사라지게 하는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 장마가 당분간 불볕더위는 막아주겠지만 이미 동서남해 바닷가 곳곳에서 해수욕장을 개장했다는 소식이다. '더위를 물리치려면 더위를 피하지 말고 더위 속으로 들어가라'는 선사들의 대갈일성은 더위 역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어록 속에도 시원한 이야기가 없을 리 없다. 형악곡천(衡嶽谷川) 선사는 더운 여름에 어울릴 것 같은 일화를 몇 건 남기고 있다. 그는 분양선소의 법을 받았으며 기행을 즐긴 탓에 기인(奇人)으로도 불렸다. 그가 그답게 형악(衡嶽)에서 가장 험준한 곳에 위치한 보진암에 살 때 일이다.

여름밤이 얼마나 더운지 토굴 밖으로 나가 시원한 큰바위 위에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큼직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함께 앉아 있었다.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 이를 발견한 선사는 가만히 허리띠를 풀었다. 단전에 땀띠가 나는 것 같았는데 허리띠를 풀어헤치니 온몸이 시원했다. 푼 허리띠로 장난삼아 뱀의 허리를 묶어 놓았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선정에서 깨어보니 뱀이 없어졌다. 단단히 묶어놓았는데 한밤중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선사에게 뱀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허리띠가 없어진 것이 사실은 더 큰일이었다.



기행 즐기던 곡천선사
무더운 여름 한낮
독룡 산다는 연못에 풍덩

이튿날 아침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승복의 허리춤을 쥐고서 온 산을 헤맸다. 그 광경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애쓴 끝에 드디어 발견. 허리띠는 마른 소나무에 걸려있었다.

짐작컨대 그 뱀은 소나무 정령(精靈)이었던 모양이다. 뱀 이야기와 귀신이야기가 합쳐진 것이긴 하지만 더위까지 물리치기엔 조금 썰렁(?)하다.

하지만 다음 건은 등골까지 오싹하게 만든다. 거의 식인상어 '죠스'와의 싸움을 연상케 한다. 선사가 도오산(道吾山)에 살고있는 자명초원(986~1040)선사를 만나러 갔다. 거기서 한판 멋지게 법거량을 마친 후 근처 커다란 연못 옆을 나란히 걸어가게 되었다. 마침 더위가 너무 심해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었다. 그런데 그 못에는 독룡(毒龍)이 살고 있었다. 그놈은 얼마나 예민한지 수면에 나뭇잎이라도 떨어져 물에 닿기만 해도 뇌성을 치면서 계속 비가 내리도록 만들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굽치를 들고 입을 막고서 조용조용 그 곁을 지나가야만 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가 없었다. 지역유지인지라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명선사는 곡천선사의 입에 손가락을 대며 '쉿!' 하고는 조용히 지나갈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곡천선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큰소리로 한 술 더 뜨며 말했다. "날도 더운데 이 연못에서 함께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자명선사가 놀라 팔꿈치를 뿌리치면서 먼저 가 버렸다. 겁쟁이 같으니라구.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곡천은 물에 첨벙 뛰어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천둥번개가 치고 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고 숲이 요동을 쳤다. 자명은 도망가다 말고 숲속에 숨어 쭈그리고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스타일 구기네). 틀림없이 곡천이 독룡에게 물려서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만약 시신이 물에 뜬다면 건져내 다비식이나 해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윽고 조금 후 하늘이 개이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그치고 수면 역시 고요해졌다.

바로 그때 "으라찻차" 하는 소리와 함께 곡천의 민머리가 물 밖으로 쑥 올라오더니 이내 연못가로 헤엄쳐 나왔다.

물속에서 독룡과 힘으로 싸워서 항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도력으로 감화를 주어 귀의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독룡의 시체가 떠올랐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완력으로 죽인 것 같지는 않고 법력으로 교화시킨 것 같다. 이 사건만 두고 보더라도 그는 기인임에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도인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할지 모르겠다. 각설하고 어쨌거나 더운 여름날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서 쾌끔 시원해졌다면 좋고, 아니면 말고.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클릭' 하면 수행 보여요

문 어느 날 문득 버스 안에서 '귀일하처'의 화두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참구하면서 환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화두를 잡고 있으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답 경험하신 것은 공부 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수행하다가 보면 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체 경계에 유혹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화두 하나에 마음을 모으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카페 무불선원의 '스님과의 대화방' 내용)

'사이버 수행' 어떻게 하나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 접근 용이
정법 따르는 곳인지 먼저 살펴야
정기적인 실참 병행해야 효과



사이버 수행은 바쁜 일상의 현대인들에게는 도반과도 같은 존재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라면 컴퓨터 앞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수행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끌리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 수행을 이끌고 있는 곳은 안국선원 · 무불선원 · 우곡선원 · 마하수련원 · 무심선원 · 현정선원 · 연방죽선원 · 보리수선원 · 호두마을 · 반냐라마 · 열린절 등 20여 곳 정도.

이들 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의 공통점은 수행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거나 자신의 수행정도를 점검받을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스님과의 대화방(무불선원) 수행일기(안국선원), 법상토론 · 경계와 점검(우곡선원), 탁마의 장 멍석(보림선원), 수행상담실(반냐라마), 수련 · 교리문답(마하수련원), 지대방(무심선원), 질문과 상담(연방죽선원), 수행상담(호두마을), 사이버법당(현정선원)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밖에도 수행지침 · 마음공부 길 · 참선수행 · 수련교실 등 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코너들과 함께 간화선 위빠사나 등 각종 수행관련 자료나 경전 및 교리 관련 자료 등으로 수행을 돕고 있다.

 # 효과

이렇게 하는 사이버 수행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들 홈페이지와 카페를 운영하는 단체의 관계자들은 효과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우선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기가 용이하고, 질문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다, 폭넓은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행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수시로 점검을 받음으로써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인터넷 '다음' 카페 '열린 절'은 좋은 예다. '열린 절' 회원은 280여명. 이들의 상당수가 '열린 절'을 운영하는 '열린선원'의 신도들인데 이들은 모두 카페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카페를 통해 수행을 점검받고 있다.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오프라인에서 실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온라인에서 점검받고 확인하면서 신도들의 수행력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법우회 김영만 거사는 "무불선원과 아미타불염불회 등 10여 곳의 홈페이지와 카페를 만들고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이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공부가 꽤 진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거사는 또 "사이버 수행이 최근 2~3년 새 인터넷 불교 흐름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 장단점

하지만 사이버 수행이 좋은 것만은 분명 아니다.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은 '컴퓨터 수행'에만 치중하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실참을 통해 배우고 체득하기보다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경향을 띠면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말이 아닌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점검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무불선원 선원장 석우 스님은 "사이버 수행은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반면 수행방향이 왜곡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사이버 수행은 어디까지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의할 점

사이버 수행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사이버 수행을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수행과 온라인 수행을 병행하되, 오프라인 수행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빠사나 수행단체인 반냐라마의 최고지도법사 붇다팔라 스님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지도자를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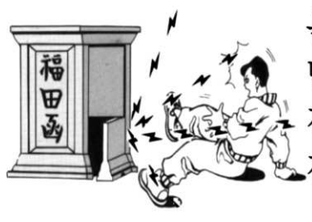
또 수행 사이트를 고를 때 정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들어 수행이 사회저변에 폭넓게 자리잡아가면서 '수행'을 빙자한 이상한 사이트와 카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카페 운영자가 정통불교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관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카페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수행 사이트 ▶마하수련원(www.mahazen.org) ▶무불선원(cafe.daum.net/mubulsunwon) ▶무심선원(www.mindfree.net) ▶반냐라마(pannarama.net) ▶보리수선원(www.borisu.or.kr) ▶보림선원(www.borim.co.kr) ▶안국선원(www.ahnkookzen.org) ▶여래선원(www.buddhapia.cc) ▶연방죽선원(loluspond.compuz.com) ▶염화실(cafe.daum.net/yumhwasil) ▶열린 절(cafe.daum.net/buruna21) ▶우곡선원(www.zenkorea.org) ▶임제선원(cafe.daum.net/imjesonwon) ▶학림사 오등선원(blog.daum.net/bina64) ▶현정선원(www.fuoyee.or.kr) ▶호두마을(www.vmcwv.org)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생명체에 이로운 물질만 농축되어 있는
함초
함초란? 바닷가 개펄이나 염전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다. 함초는 개펄에 스며드는 바닷물을 한껏 빨아들인 다음 광합성 작용으로 물기를 증발시키고 각종 미네랄 성분을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아주좋은 효능을 고루 얻게 한다.
놀라운 함초의 효능
▶ 숙변을 분해하여 몸무게를 줄이고 변비에 효과
▶ 혈액순환에 좋아 고혈압, 저혈압에 효과
▶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질 제거
▶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등 각종염증에 효과
▶ 위장기능에 좋아 변비, 탈장, 치질에 효과
▶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춘다
▶ 갖가지 암, 근종에 효과, 암세포 성장억제
▶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에 효과
※ 먹기좋게 환, 액기스를 만들었습니다 약값은 불사에 쓰여집니다
※ 비구니스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함초를 복용 후 완치된 사례가 있음
함초구입 문의
054)638-4796
010)4591-4796 백련사백련스님
입금계좌 : 농협 751025-51-024864 백련정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이웃 돕는 건 봉사 아닌 ‘갚음’ 이죠”

대전시청불자회, 노인복지관서 봉사하던 날

“남자분들은 2층 방으로 가시구요, 여자분들은 1층 교육실로 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장맛비가 한창 내리던 7월 1일 오전 10시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11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편한 복장에 자원봉사단 조끼를 맞춰 입은 이들은 바로 대전시청 불자회 회원과 가족들.

대전시청불자회는 11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임으로 올해 2월부터 8개팀으로 나뉘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청소와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팀은 10~15명을 기준으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 ‘금강’ ‘관자재’ 등으로 구성됐다.

대전시청불자회는 매년 지역의 어린이 보육 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쉬워 회원들이 의기투합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8개팀 나눠 매주 토요일 봉사

이날은 불자회 8개팀 중 인욕팀이 봉사활동을 하는 날로 팀 간사를 맡고 있는 송민섭(40 · 회계과 회계담당)씨의 안내로 회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 쉼터로 쓰는 2층의 사랑방. 회원들은 넓은 방의 이불과 방석 등을 정리하고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낸 뒤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그리고 방 안쪽에 자리한 넓은 세면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다보니 세면실이 가끔 화장실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은 왁스칠을 해가며 바닥의 때를 밀어낸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도록 열심인 불자회 전형진(51 ·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총무는 “일주일 중의 하루지만 이렇게라도 청소를 해둬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 함께 하던 조상원(36 · 시민봉사실)씨도 여기저기 물을 뿌려가며 ‘냄새 제거’에 힘을 쏟았다.

사랑방 청소가 끝나고 남자 회원들은 다시 3층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체조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회원들은 책상과 의자를 정돈하고 대걸레로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유지은(46 · 사적지관리사무소 건축담당)씨는 복도에 앉아 쉬고 있던 할머니들에게 “건강하셔야 오랫동안 뵐 수 있으니까 여기 자주 오셔서 즐겁게 지내시라!”며 정담(情談)을 주고 받는다.

같은 시각 여성들은 1층 서예교육실과 컴퓨터 교육실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우천 관계’로 정식 여성회원들은 오지 못했지만 남편을 따라 활동에 참여한 ‘비공식’ 회원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교실을 정리한다.

전형진 총무의 부인 박연옥(49)씨는 인욕팀 여성들의 맏언니로 시청불자회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성파. 박씨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죠!”라며 땀을 닦았다. 유지은씨의 부인 이진(42)씨는 “내일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보는 남편이 복지관에 나오는 데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봉사활동에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밌는 일”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렇게 청소가 끝나고 11시 30분에 회원들은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다시 모였다.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해드리기 위해서다. 이날의 메뉴는 ‘감자수제비’. 비오는 날씨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봉사활동을 마친 회원들이 복지관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랑방 세면실 바닥을 청소하는 대전시청불자회원들.



남규(오른쪽)가 한 할아버지에게 ‘후식’을 드리고 있다.

감자를 썰고 밀가루 반죽을 떼어내 만든 수제비는 ‘정성’ 조미료까지 더해져 어르신들의 식사가 된다.

아빠(상수도사업본부 조상구씨)를 따라온 남규(7)는 직접 수제비를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배달’하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남규는 ‘후식’으로 제공된 떡과 빵도 직접 어르신들께 나눠드렸다.

아빠 따라온 남규 “할아버지 떡 드세요”

점심을 먹고 나오던 임태순(86 · 대전시 서구 탄방동) 할머니는 “요즘에 이 사람들같이 노인네 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며 “토요일마다 와서 고생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점심 봉사까지 마친 회원들이 복지관 사무실에 들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휴게실에 다시 모였다. 꿀 맛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평가하는 모습에 여유와 뿌듯함이 넘친다.

인욕팀 팀장인 이정규(52 · 국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씨는 “얼마 전 해인사에서 있었던 공불련 합동수계법회에 참석했을 때 백련암에서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며 마무리 인사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갚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갚음’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전시청불자회원들의 모습이 흐뭇했던지, 이날 빗줄기도 어느새 가늘어지고 있었다.

글 · 사진/대전=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회원 가족도 동참…쓸고 닦고 식사준비까지

구석구석 청소 끝내고 어르신들 말벗도

일터가 도량입니다

‘공불련의 박지성’으로 통해요

관세청 서울세관 이명종 서기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오른 축구선수 박지성은 그라운드에서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항상 겸손한 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인터뷰하는 모습은 순박한 불자 모습 그대로다.

관세청 서울세관의 이명종(27 · 연주) 서기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의 박지성’으로 통한다. 공불련 각종 행사에서 궂은일은 도맡아 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무원불자들을 만나며 신행활동을 고민한다. 공불련 박현남 간사는 “선배 불자들의 얘기는 항상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는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그를 추켜세웠다.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해 벌써 6년째 근무하는 중고참이죠. 중간에 군대도 다녀왔지만, 또래에 비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긴 했습니다.”

주한미8군에서 근무하며 한국스님 초청 법회를 주관하기도 했던 이 서기는 성윤갑 관세청장이 공불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세청 불자회 활동을 시작했다. 공불련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세관 불자회 총무를 맡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이 서기는 관세청 본청과 6개 지역청 연합 불자회 활동에도 열심이다.

또 공불련 전체 일정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성파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니다보면 1년이 금방 흘러간다.

“근무 시간외에는 봉은사에 다니며 청년회 활동과 개인정진을 합니다. <금강경>이나 <법화경>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보거나 108배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지요.”

빠듯한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외에도 각종 세무관련 전문 서적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면서도 불교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서기는 ‘인연’을 말했다. “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인연’도 중요합니다. 무늬만 불자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장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부족하다는 이 서기. 그래서 그에게는 고민 또한 적지 않다.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주위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이런 때는 시간을 갖고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서기는 하심(下心)과 혼자일수록 행동을 삼가고 자신을 절제한다는 뜻의 용어 ‘신독(愼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다닌다.

생을 다 할 때까지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을 실천하고 싶다는 이명종 서기의 눈망울은 오늘도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이명종 서기는 ‘하심’과 ‘신독’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불자다.

대윤사 여름산사수련캠프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즐거운 여름방학입니다!!
우리들 여름에 사찰들과 옷갖사물들도 지친듯해 보이는 군요.
이 더운 여름을 아름다운 산과바람, 그리고 웃화한 부처님의 미소가 있는 대윤사 여름
산사 수련 캠프와 함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비하신 부처님의 품안에서 사람의 길, 바르게사는법을 일러주고 진리를 배우고 함께
뛰어 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윤사 불교어린이회 여름산사수련캠프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일 시 : 불기 2550년(2006년) 7월 28일(금) ~ 30일(일)
◆ 장 소 : 대윤사 대법당
◆ 대 상 : 유치(7세) ~ 초등학교 6학년까지
◆ 주 최 : 대윤사불교 어린이회
◆ 문 의 : 대윤사 ☎ 041)533-9993
◆ 회 비 : 20,000원
◆ 준비물 : 공양미(쌀 한공기), 필기도구, 크레파스, 사인펜,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수건, 취침용 큰타올(이블대용), 수영복

※ 갈아입을 옷과 수건은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옷과 수건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100명 선착순 예약 접수중 (25일까지)

대윤사불교어린이회

제3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나도 부처님처럼”

-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심성개발 명상수련 -
-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생 설계를 위한 명상학교 -

청소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바로 서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강의와 심성프로그램과 명상 그리고 자기 진단 자료 및 여러가지 불교 수행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자람과 정신적 성숙을 도와가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참선, 명상 등 불교 수행법이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는 우리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수행하며 뜻과 목표를 가진 보살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목표 및 기대효과

- 부처님의 삶을 알고 부처님을 자신의 진정한 스승으로 삼는다.
-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재로 심성수련, 명상수련, 염불수련 등을 한다.
- 뜻과 목표가 있는 삶, 서원이 있는 삶의 계획을 세운다.
- 내 인생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찬 삶의 비전을 갖는다.
-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랑하는 심성을 갖는다.
-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힌다.
-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 태도를 갖는다.
- 매사에 도움이 되는 질문법을 체화한다.
-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잘 듣는 태도를 갖게 된다.
-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
-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

▶ 일 시 : 2006년 7월 25일(화) ~ 28일(금) 3박 4일간
▶ 장 소 : 다보사 다보수련원 (찾아오시는 길 - www.dabopia.net 참조)
▶ 동참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 대상 50명(선착순 마감)
▶ 동참금 : 150,000원(농협 413060-51-005281 예금주: 대한불교진흥원)
※ 입금하신 뒤 전화로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 참가신청 접수 : Tel 043)833-7789, Fax 043)833-2550
e-mail : dabopia@dabopia.net

다보사 다보수련원 367-84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전화 043)833-7789 / 홈페이지 www.dabopia.net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마는 물질 문명으로서는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꽂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自信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主人公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칠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칠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납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묵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6년 7월 28일(금) 오후 8시부터
2006년 8월 3일(목)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43, 162, 1012, 1013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9>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

건강한 몸이니 약이 필요 없는데도 아프다고 자꾸 약을 고집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리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중생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깨달음이란 약을 들고 나왔는데, 중생이 깨달아서 이미 부처가 되었다면 따로 깨달음이나 열반 해탈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성인의 깨달음은 중생의 알음알이 병을 고쳐주는 방편으로 필요한 약이었지만, 중생의 병이 다 나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선가귀감> 29장에서는 중생의 알음알이를 떠난 그 자리가 바로 성인의 깨달음이지, 그 자리를 떠나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修行之要 但盡凡情 別無聖解.

수행의 요체는 다만 범부의 알음알이를 다 없앨 뿐이니,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

성인의 깨달음도 집착하면 변견
공성(空性) 보고 중도의 삶 살아야

여기서 범정(凡情)은 미혹한 중생인 '범부의 알음알이'를 말하고, 성해(聖解)는 '성인의 깨달음'을 말한다. 중생의 알음알이는 정식(情識)이나 번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부의 알음알이는 좋지 못한 것이고 성인의 깨달음은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결국 불을 피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다. '범부의 알음알이'와 '성인의 깨달음'이란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서 모두 변견(邊見)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변견이란 한쪽에 치우쳐 시비 분별로써 자기 주장만 하는 잘못된 견해를 말한다. 이 변견을 타파하기 위하여 범부의 알음알이에서 실체가 없다는 공성(空性)을 보고, 마찬가지로 성인의 깨달음에서도 공성을 보아, 범부와 성인 양쪽에 대한 집착을 다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중도(中道)이다.

중생들은 보통 범부라 하면 범부라는 생각에 빠지고 성인이라 하면 성인이란 생각에 빠지는 나쁜 버릇에 길들여져 있어 앉아 있어도 병이고 서 있어도 병이다. 중생의 이런 병을 고쳐 주려고 부처님께서는 몸소 유(有)와 무(無), 공(空)과 가(假)라는 알기 쉬운 방편을 활용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런 방편조차 공성(空性)임을 알게하는 중도 법문을 설했다. 범부의 알음알이를 없애주려는 방편으로 성인의 깨달음을 내세우지만, 알음알이가 사라지면 이 알음알이의 상대적 개념인 성인의 깨달음도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인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한다면 이 또한 변견으로서 중도를 바로 보는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선가귀감> 언문주해에서는 "범부의 알음알이와 성인의 깨달음이란 모두 헛된 견해에서 생겨났으니,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버려야 비로소 '하나 된 온전한 부처님의 성품'에 들어간다"고 풀이했고, <오등회원(五燈會元)>에서는 "오직 한가로운 삶 속에서 인연따라 살아가며 범부의 알음알이만 없앨 뿐이니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고 말하였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病盡藥除 還是本人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다면
앓기 전의 그 사람이로다.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다면[病盡藥除]"에서 병이란 중생의 알음알이나 번뇌를 말한다. 이 병에 내려진 약의 처방이 교가(敎家)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고 간화선에서는 화두가 된다. 중생에게 병이 있을 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화두를 공부해야 되지만, 중생의 병이 다 나아 부처가 되었다면,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나 화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앓기 전의 그 사람[本人]"은 병이 나아 약 처방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사람이니, 그는 곧 부처임을 비유해 말한 것이다.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다면"이란 이 구절은 원래 영명연수(904~975) 스님의 저서 <종경록(宗鏡錄)>에 있는 글인데, 대혜종고(1089~1163) 스님이 이 글을 보고 다시 <대혜보각선사어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잘못을 알았다면 환약(幻藥)으로 환병(幻病)을 치료한 것입니다.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다면 예전처럼 옛 사람 그대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는데도 달리 깨달을 사람이 있고 깨달을 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마구니나 외도들의 견해입니다."

'환약'은 부처님 가르침이나 성인의 깨달음을 말하고, '환병'은 중생의 알음알이 병을 말하며, "예전처럼 옛 사람 그대로"란 "앓기 전의 그 사람[本人]"이니 이는 곧 부처를 말한다.

우리 범부는 보통 무명이 깃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살기에, 그 '잘못된 알음알이' 속에서는 이 세상 온갖 삶 자체가 다 고통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범부의 알음알이'를 버리고 '성인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마음을 쓰고 살아야한다. 중생의 처지에서 저 높은 성인의 깨달음에 들어가려면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성취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음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 깨달아야 할 대상도 같이 사라진다. 범부의 알음알이가 다 사라질 때 그 자리에 바로 성인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범부의 알음알이를 떠나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 이것이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는 예전 사람처럼 '옛 사람 그대로 곧 부처'인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고따마 싯다르타

"'고따마 싯다르타'의 뜻은 무엇인가? 답하라!"

13년 전인가요? 군종사병 선발 필기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군입대를 앞둔 저는 한 부대 교회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이 질문과 마주 했었죠. 너무도 긴장을 했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답니다.

'고따마 싯다르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속가 이름입니다. 고따마(Gotama)는 '매우 좋은 소', 싯다르타(Siddhatha)는 '만사가 이뤄지다. 소원성취'의 뜻을 담고 있죠.

그럼 석가모니는 무슨 뜻일까요? 출신성분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석가는 '사까족(Sakya)'을 한자 발음한 것이고, 모니도 '성자(聖子)를 의미하는 'Muni'를 한역한 것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탐욕의 끝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0강 스티브 잡스의 인생강의

"주린 창자로, 그리고 미련하게"

스티브 잡스가 작년 스탠포드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잡스가 누구냐고 할지 모르겠다. 매킨토시로 유명한 애플 컴퓨터의 창립자라면 이해가 빠르겠다. 그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애플의 침몰과 더불어 다시 롤백, 애플의 재전성기를 도모하고 있는 CEO이다. 그가 졸업식장에서 젊은이들을 위해 짧은,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별 것 아닌(no big deal)'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는 '점 잇기(connecting dots)'에 관한 자신의 통찰이다. 아니 이 말은 '이어지는 점들'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는 대학원생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생모는 교육받은 집안에서 자라기를 원했지만 뜻하지 않게, 고등학교도 못 마친 노동자 집안에 입양된다. 양부모는 생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대학에 보내지만, 리드 칼리지는 사립인데 등록금이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다. 첫학기 등록금으로 부모가 평생 저축해온 돈을 들여야했다니, 짐작할 만하다. 잡스는 고민하다가 "학교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며 정식 등록을 포기한다. 그러면서도 대학에 남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청강하면서 1년 반을 보낸다.

생활은 로맨틱하지 않았다. 친구 하숙집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5센트짜리 빈병을 주워 모아 빵을 사먹기도 했다. 제대로 된 식사한끼를 해결하기 위해 10킬로나 떨어진 하레 크리슈나 사원까지 걸어가기도 했다는데, 그는 그 굴맛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정식 등록을 포기한 그는 좋아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들었다. 특히 서체에 폭 빠졌는데, 손으로 쓴 글씨의 미려함과, 글자 형태에 따라 자간 차이와 폭을 재조정하는 그 비규칙적 규칙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다. 그저 좋아서 들었을 뿐이다.

이 서체 강좌는 10년 뒤 애플 컴퓨터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결정적 의미를 띠고 떠오른다. 애플은 한국에서는 예외적 매니아들만 쓴다. 다들 빌 게이츠가 만든 윈도우를 운영체제로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자인 특히 북디자인과 레이아웃에는 애플을 쓴다. 그래픽과 멀티미디어의 화려함과 편의성을 윈도우는 족탈불급,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다.

잡스는 말한다. 자신이 대학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기를 결정했을 때, 그것이 나중 어떤 의미를 띠게 될지 몰랐다. "지금은 그 점들이 과거로 이어진 것이 보인다. 아무도 미래로 이어진 점들은 볼 수 없다. 어딘가로 연결될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배짱이든, 운명이든, 삶, 그리고 카르마 그 무엇이든 여기 믿음을 갖고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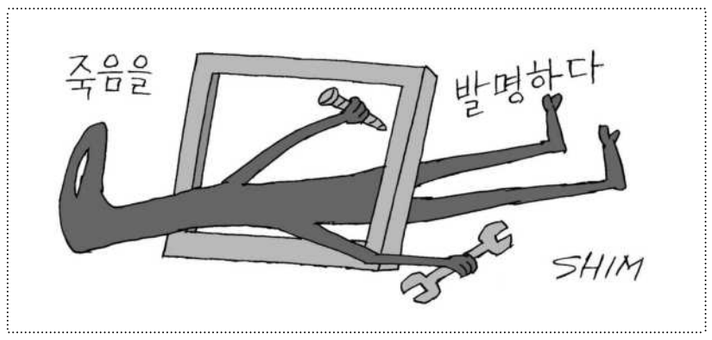
잡스는 그 믿음이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그 믿음이 남과 다른 자신만의 '차이'를 만들어주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한 행운아였다고 말한다. 나이 스물에 워즈니악과 함께 새 컴퓨터를 개발했던 것은 다들 아는 이야기이다. 두 명이 차고에서 하던 작업이 10년 후에는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린 20억달러, 우리돈 2조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의 나이 29세였다. 더욱 놀랍게도 그는 이 성공의 정점에서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게 현실인가, 자신도 한동안 믿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넥스트와 픽사를 세웠다. 픽사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토이스토리'라른 애니메이션으로 대박을 터뜨렸고, 애플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넥스트에 손을 내밀었다.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회생과 도약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잡스는 회고한다. "그것은 지독하게 쓴 약이었지만, 환자는 그것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때로 인생은 당신의 뒤통수를 벽돌로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잡스는 이렇게 충고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 나서세요! 연인을 찾아나서야 하듯, 일도 그와 같은 것이랍니다. 기다리고만 잊지 마세요. 일은 삶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을 때에만 인간은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어물쩍 타협하지 마세요. 모든 마음의 일이 그렇듯이, 당신이 발견한 순간,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과 당신의 관계는 시간과 더불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찾으세요.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들려준다. 그의 마음에는 17세에 들었던 어느 현자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매일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그는 어느새 바른 길에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는 나이 50이 되도록 매일 매일을 거울 앞에서 물었다고 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싶어 할 것인가." 아니오 라는 대답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삶에 고비마다 중대한 선택을 해야할 때, 그는 늘 자신이 이윽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다고 한다. 사람들의 기대, 자만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 등,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는다. 그것은 상실에 대한 염려라는, '생각의 함정'을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는 1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이었다.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의사가 정리를 하라는 통보를 했다. 아이들에게 10년동안 해야할 일을 단 몇 개월에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을 절망 속에서 보냈다. 그날 저녁 조직 검사를 다시 했고, 의사가 울면서 달려왔다. 기적적이게도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특이한 종양이란다. 그는 수술을 받았고, 회생했다. 그는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죽음을 더 분명히 실감으로 알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거기 일찍 가겠다면서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숙명이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손입니다. 그것은 낡은 것을 쓸어없애고 새로운 것을 위해 길을 만듭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새로운 것에 속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점점 낡아지다가 결국 치워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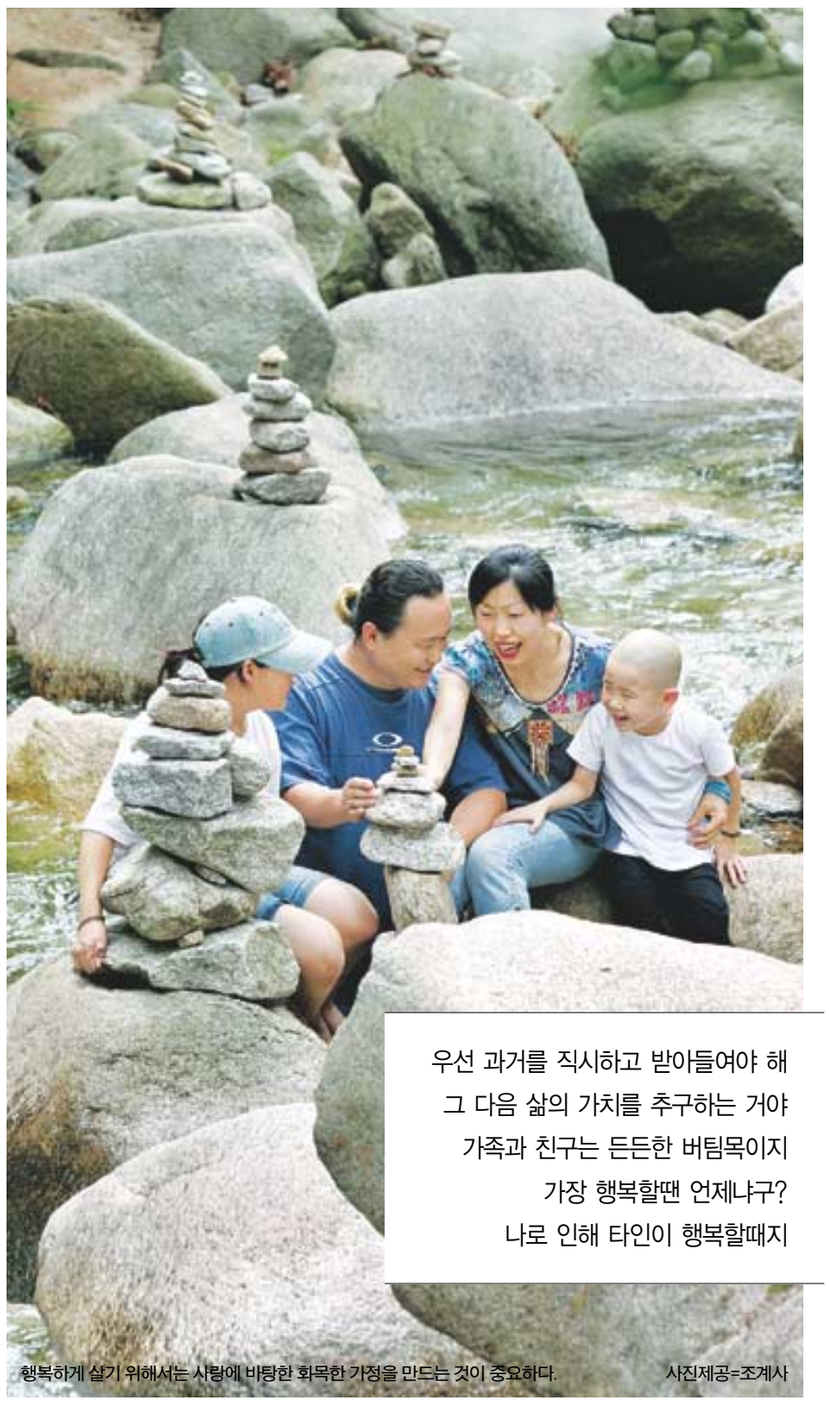
"제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말했나요. 그러나 그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삶은 시한부입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도그마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도그마란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는 소음에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묻혀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당신의 마음과 직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가슴은 당신이 진정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잡스는 어렸을 때 읽었던 백과사전 이야기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타자기와 가위, 그리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만든 이 열정의 작품 뒷면에, 시골 고갯길 사진이 있었고, 거기 경구 하나가 씌어져 있었다 한다. "주린 창자로, 그리고 미련하게…(stay hungry, stay foollish)"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쉿! 행복의 비밀 들려줄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에 바탕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제공=조계사



행복지수를 높여라
슈테판 폴케 지음
도솔 | 8900원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요?

2004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82개국 중 중국 다음인 4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8년 영국의 한 대학이 조사했을 당시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세계 54개국 중에서 49위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한가지 이채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극빈국인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푸에르토리코 같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면 불행할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하다니 참 놀랍기만 합니다.

빈국에 속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여타 선진국 국민들보다 높은 것을 보면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인가 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널리스트이자 출판 기획자인 슈테판 폴케는 최근 펴낸 <행복지수를 높여라>에서 '사랑' '화목한 가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스러운 직장을 갖는 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를 휘감는 감정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인생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받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한다면, 내게 더 없는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책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 과거, 가치, 일, 인간관계, 목표, 부를 꼽고 있습니다. 이 일곱가지 측면에서 행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첫째 얘기는 과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과거는 항상 현재 속에 존재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둘째,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군요.

셋째,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이루어낸다는 특징이 발견된답니다.

넷째, 행복한 사람들은 가족, 친구, 동반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견고하게 유지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행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행복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일곱째, 행복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책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람마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경험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행복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몇 가지 행동양식과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과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우선 과거를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해
> 그 다음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 가족과 친구는 든든한 버팀목이지
> 가장 행복할땐 언제냐구?
> 나로 인해 타인이 행복할때지

◆슈테판 폴케가 소개하는 행복지수 공식
(나는 과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계산해, 주변분들과 비교해보세요) **행복=P(5×E)(3×H)**

1.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삶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2. 낙천적이어서 실패해도 금세 일어선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편이다.
3. 건강하며, 돈의 절대적인 액수와는 별도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원만한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나 동료들이 여럿 있다.
4. 나 자신에게 자긍심을 가지며, 현재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분명한 비전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의 4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10점 만점으로 표기하세요. 그런다음 1 · 2번을 합산해 P에, 3번을 E에, 4번을 H에 대입해보세요.

네티즌 강추

애들아 도시락 싸들고 절에 소풍 가자



즐거운 소풍 대숲바람, 이경애 지음

표지와 제목만으로도 이미 소풍간 아이의 설레는 심정 그대로다. 서둘러 읽어 본 책은 정말 기대 이상의 행복한 선물이었다. 책을 펼쳐 읽는 내내 빌딩숲으로 상징되는 차가운 서울 속에 이리도 호젓하고 따뜻한 이야기 가득한 좋은 곳 많음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절'하면 혼자 오롯이 깊은 사색을 하며 거닐던 모양이 그려졌었지, 이렇게 아이들과 이런 색다른 경험과 추억으로 이야기 많은 풍경과 산과 계곡과 절을 생각하며 소풍 할 수 있음은 미처 알지 못했었다.

게다가 이야기의 품위를 더해 주는 사진 한컷 한컷은 그야말로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다. 풍부한 느낌 가득 전해지는 사진들을 구경하는 것 만으로도 따뜻한 산사의 봄바람을 채우는 행복하고 가슴 설렌 소풍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다. 한적한 절집의 오래 된 목어의 깊은 울림처럼 흔들리던 마음 사이로 행복한 깨달음이 전해진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즐거운 소풍같은 삶이길 바라는…, 주먹밥이라도 준비해 아이와 함께 상쾌한 바람 맞으며 화계사 산책길을 휘이 돌아오고 싶다.

(seongsim00, book.naver.com/bookdb)

깨달음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깨달음 이후 빨랫감 한문화, 잭 콘필드 지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기에 그 뒤에는 세상 모든 일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깨달음은 끝이 아닌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우리에게 깨달음은 몇몇 소수만이 소유했다거나 일반인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일이라는등의 신비주의를 배격한다. 저자는 깨달음과 유명함은 전혀 다름을 이야기해 준다. 깨달은 사람도 물질적 혹은 개인적인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와 이혼당하거나 하류계층으로 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세상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자유인 깨달음은 다른 것이다. 또 당연히 깨달은 사람도 병을 앓으며 암으로 죽기도 한다. 깨달음 거기에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깨달음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깨달음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크게 깨닫는 경험도 있겠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의 삶속에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수행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정신적인 수행만큼 세상속에 부딪치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텅빈하늘, yes24.com/ReviewCenter)

책속의 밑줄긋기



○… 아유르베다는 우리 존재의 모든 수준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엄청난 자원인 위대한 요가의 영적 전통을 가진, 인도의 비범한 마음과 몸의 의학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완성된 자연치유체계로,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인류를 위한 훌륭한 지혜를 담고 있다.

아유르베다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이해가 가장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는 심리학적인 면을 고찰하면 곧 마음, 그리고 몸 · 영혼과의 그 관계처럼 심오하다. 식이요법에서 명상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 아유르베다의 마음 치료법이다. 아유르베다는 전통적인 심리학적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명과학으로서 생명 자체의 움직임과 더불어 성장하는, 생명이 함께하는 학문이다. –<아유르베다와 마음> 본문 12쪽에서,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데이비드 프롤리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6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54)724-7999

"편리함 속에 잃어버린 자연의 목소리"

▮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생명산필' 출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뜻을 남에게 전달하고 있다. 동물들은 소리와 몸짓으로 자기의 뜻을 표현하고, 식물들은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로 자기를 드러낸다. 그것들과의 참만남-자연귀의는 지천명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찾아낸 ''나의 일''이 되었다."

20여년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사진). 본지에 '108사찰 생태기행'을 연재중인 김 소장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듯 자동차도 없이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생태여행을 다니며 발견한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펴냈다. 7월 1일 발간한 <생명산필(生命散筆)>이 그 책이다.

그는 자연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편리함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완행열차에서 내린 충청도 어느 소읍. 시골은 어디나 버스가 뜸합니다. 바다마을까지 삼십리 길이 안타깝게도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도로는 자동차와 같은 기계의 길일 뿐, 사람의 길로 만든게 아닙니다. 포장도로는 비포장 흙길보다 걷는데 힘이 듭니다. 발은 본래부터 비포장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략) 한쪽이 편리해지면 어느 한쪽은 불편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 것을…."

<생명산필>은 생태명상록이다. 한숨에 읽어내릴 만큼 짧은 글, 122편이 담겼다. 오랜 생태여행에서 기쁘고 슬프고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담담히, 숨김없이 <생명산필>에 담았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자연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경종을 울린다.

"인간의 눈에는 불구가 있을 지 모르나, 자연의 경계에 들어서면 불구가 없습니다. 휘어지고 뒤틀린 그대로가 자연입니다. 모두가 불이(不二)요, 원융회통(圓融會通)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존재들은 저들만의 시간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도 사람들만의 속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기계의 속도로 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느렸던 사람의 속도가 새삼 그립습니다."

생태운동가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초등학교에서 국어선생님으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안성 칠장사에서 출가를 했다. 아이들과 칠장사로 소풍갔다가 접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오묘한 진리. 교사이면서 소설가였던 그가 지녔던 논리체계를 뒤흔들어버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여행길에 만난 생명이야기

산중생활은 그가 생태운동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사찰생활의 면면은 인간은 그저 자연의 일부분임을 가르쳐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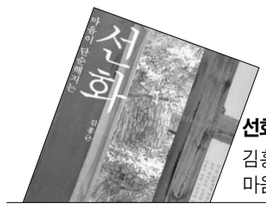
부목(나무를 해오는 소임)이 중요한 일과였던 행자시절, 썩은 나무를 해 온 그에게 故 석주 스님은 절대로 썩은 나무를 태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썩은 나무가 더 잘타고 좋지 않느냐는 항변에 석주 스님은 썩은 나무를 부러뜨려 그 속의 벌레를 보여주었다. "이 나무를 태우면 화탕지옥이 따로 있겠느냐."

세상 속으로 나온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아무도 하지 못한 생태운동을 시작했다. 굳이 불교를 말하지 않아도 그의 생태운동은 불교에 기반한 것이었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7월 1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출판기념법회를 열었다. **박봉영 기자**



생명산필
김재일 지음
종이거울
1만1500원



선화
김홍근 지음
마음산책 | 1만2000원

마음 열면 보이는 자연 속 숨은 선화

"마음이 열리면 이전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 속에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이미지들이 고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만 있다면, 발길 닿는 모든 곳이 고미술관으로 변합니다"

15년동안 성천문화재단의 동서인문 고전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김홍근씨. 그가 최근 무심코 마주치는 풍경에서 '선화(禪畵)' 발견방법을 제시하는 <선화>라는 책을 발간했다.

문화유적에 스며 있는 '마음'을 읽으려는 저자의 지극한 시선에 맞춰진 이 책은 독자들을 차츰 선화 발견의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또 '스님들이 수행을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 또는 '마음 속의 수행의 경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선화의 개념을 일상으로 가깝게 끌어올려 그 외연을 단순하고 편안하며, 넓어지게 하고 있다.



통나무 곡선을 살린 서산 개심사 범종각.

그는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된 유명 사적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곳, 작지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저자는질박한 한옥등 우리 건축물에 '자연 미학'의 극치가 담겨 있다며 감탄을 거듭한다.

특히 큰 소나무가 지붕 위를 뚫고 나와 서 있는 '송석정'과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서산 개심사 범종각은 곡선과 자연을 살리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한 묘책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선화를 발견하는 방법은?

저자는 "왜 만들었는지, 무슨 용도인지, 왜 여기다 배치했는지, 전체와는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여기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한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비치면서 시공을 넘어 서로 '통하는' 느낌이 온다고.

<선화>는 세상이라는 텍스트에서 사물을 읽어내는 안목을 높이고, 풍경과의 짜릿한 교감에 이르기까지 미처 체감하지 못했던 문화유적답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은이 김홍근은 다석 유명모의 사상연구모임인 '다섯사상연구회'에서 10여 년간 총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참선일기> <보르헤스 문학 전기>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활과 리라> <현재를 찾아서> <흙의 자식들>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어찌 이리 다 다를까 돌미륵의 미소는?



미륵의 나라
최종례 지음
우리출판사 | 1만5000원

우리나라(남한지역)에는 370여 구의 미륵이 있다. 가히 '미륵의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미륵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에는 미륵상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미륵신앙이 지속되지 못한 중국과 일본 불교와 달리 한국불교의 경우 유난히 정토신앙의 확산이 뚜렷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선지 미륵상의 조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 다양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부처나 보살의 표현 기법은 대부분 일정한 양식을 띠고 있고 그러한 표현양식은 경전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야외에 서있는 돌미륵의 경우 아주 자유분방한 모습을 띠고 있어 그 도상의 근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 책 <미륵의 나라>는 이렇듯 산모퉁이를 돌면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산골짜기 바위 속에서 수줍게 미소 짓거나 혹은 마을 한 가운데에서 익살스럽게 왕방울 눈을 굴리는 돌미륵에 대한 기록을 싣고 있다.

특히 1981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뒤 창원기능대학장을 역임한 최종례씨가 반평생에 걸친 미륵불 답사를 정리하여 해설과 함께 실은 대표적인 90여구의 돌미륵은 유난히 눈에 띈다. 또 미륵신앙의 사상적 연원을 알 수 있도록 관련 경전의 주요 내용을 실어줌으로써 미륵신앙의 본질은 물론 그 신앙의 주대상이 되어온 돌미륵의 다양함을 함께 엿볼 수 있도록 엮었다.

부록 '미륵을 찾아가는 길'은 이 책에 실린 90여 미륵불에 대한 각종 정보와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 답사 여행의 길잡이 역할도 수행할 있도록 꾸며 놓고 있다.

김원우 기자

새로나온 책



■ **불교의 무아론**(한자경 지음, 이화여대출판부)= 불교의 중요한 개념인 무아론(無我論), 인무아(人無我), 법무아(法無我), 연기(緣起), 오온(五蘊), 윤회(輪廻), 해탈(解脫)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책. 저자는 일체가 상대적임을 인식할 때 그 의식의 시점이 절대의 시점이고 그 절대가 공(空)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인식도 그 진리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아와 연기를 통해 현상 세계의 상대성을 논하면서도 현실 인식의 바탕인 공과 일심을 놓지 않는다.

오히려 보인 세계의 상대성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보는 눈의 자각을 위한 것이며, 불교의 모든 논의는 결국 마음의 공성(空性)에 대한 절대적인 깨달음, 자유, 해탈을 위한 도정임을 강조한다.

마음이 공으로 되는 순간은 자아가 무아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역설을 이 책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



■ **달마선**(박건주 지음, 운주사)= 달마선(능가선)은 곧 대승의 심의에 바탕한 정통선이며 최상승선으로 평가받는다.

<능가경>에는 '교의를 올바로 뚜렷이 이해하면 자심에서 성스러운 진리(지혜)를 깨닫는다'는 내용이 여러차례 나온 것를 보면 이를 뒷받침한다.

박건주씨(동국역경원 역경위원)가 해설한 이 책 <달마선>은 수행에 지침이 될 수 있고, 왜곡된 여러 사항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심과 무생법인' '즉입의 가르침' '점법과 돈법' 등 달마선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조목별로 간추려서 그 요의를 해설하고 있다.



■ **깨침의철학**(히사마쯔 신이지 지음, 들꽃누리)= 대개의 학문, 종교, 철학 등이 서양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이 책은 불교를 통해 '동양적인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다.

일본의 불교학자 히사마쯔 신이지의 글들을 원연스님이 편역한 <깨침의 철학>은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깨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사람 정신에 대해 얘기한다.

책의 내용은 '동양적 무' '동양적으로 형이상적이 되는 것' '법계 연기론' '참 종교를 찾아서' '불교 철학의 방법' 등으로 되어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오체투지	작가의집, 한경혜, 9000원
·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민족사, 나무불 스님, 6000원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틱낫한 스님의 아미타경	미토스, 틱낫한 스님, 9800원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부, 무비 스님, 9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 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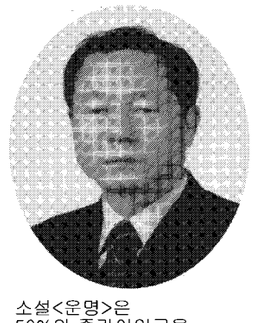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베갯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종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가좌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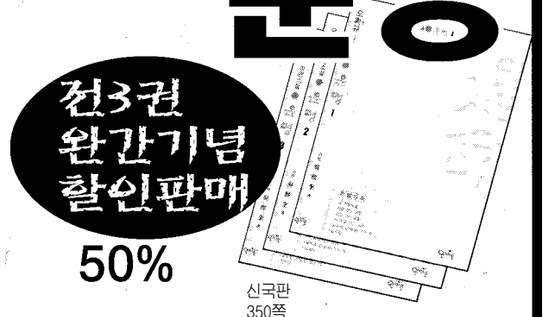
도서출판 백교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k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kyo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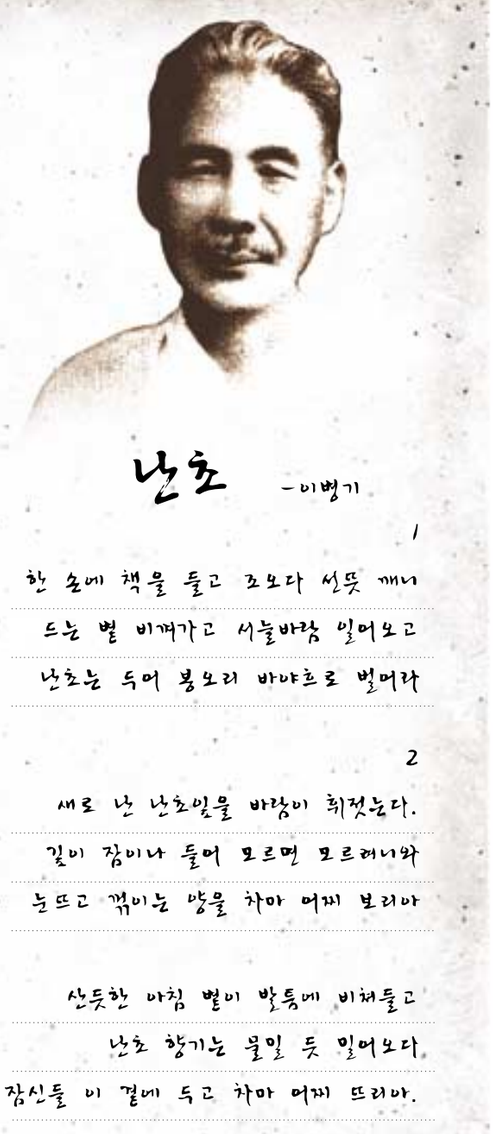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현대시조 탄생 어언 100년

7월 21일 '시조의 날' 선포

현대시조 시인 100인 시조집 100권 동시 발간 합동 출판기념회
다양한 행사 마련…8월 5일 직지사 시인학교에선 시조 백일장



이은상의 '가고파', 조운의 '구룡폭포', 이병기의 '난초'. 시조시인 93인이 가장 좋아하는 현대시조로 뽑은 작품들이다. 고시조로는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 1위로 꼽혔다.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계간 <나래시조>가 조사한 결과다.

7월 21일, 한국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 기념 '시조의 날' 선포식과 현대시조 100인 시조집 100권 동시 합동 출판기념회가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린다. '홍순관과 함께 하는 현대시조 100주년 콘서트' '현대시조 발생지 헌화 및 분향' 등도 열릴 이날 행사는 현대시조 탄생 100년이기도 하고 우리 시조 탄생 1000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포함한다.

선포식에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일보사 12층 대강당에서는 현대시조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현대시조의 100년 흐름과 시대문학으로서의 역할' '현대시조의 양식적 위상과 쟁점' '시조 100인집의 의의와 시조 발전의 혁신적 제안' 등이 발표된다.

이근배 현대시조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은 "시조의 날 선포식 이후 세계 각국의 시인들을 초청해 세계민족시 세미나를 열어 우리 시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조시인들의 작품에 그림을 붙여 시화전을 열고, 가곡으로 만들어 공연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중견 시조시인 이지엽 교수(경기대)는 "'시조의 날' 선포식과 함께 완간되는 100권의 시조집은 6년 만에 완간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조의 날'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6년 7월 21일, 충정공 민영환의 충절을 그린 '혈죽가'가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다. '사동우 대구여사'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혈죽가'는 문헌상으로 가장 앞선 현대시조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현대시조의 첫 작품을 바로 이 '혈죽가'로 인정하고 7월 21일을 시조의 날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대구여사의 '혈죽가' 이후 수많은 아류작품이 나오면서 현대시조의 틀이 마련됐다. 현대시조(現代時調)는 보통 갑오개혁 이후의 시조를 말한다. 형식적 구속(자수율 따위)이 완화되고, 현대적 정서가 도입되는가 하면 연시조의 형태가 많은 것이 현대시조의 특징이다.

한편 시조의 날 선포식 공동 주최 중 나래시조시인협회는 김천문인협회와 직지사의 후원을 받아 8월 5~6일 직지사 여름 시인학교(054-436-6174)에서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 기념 '白水 정완영 시인 특강'과 시조 백일장을 마련한다.

현대시조 100주년을 맞아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회장 한분순)는 6월 초 '현대시조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8차 교과서에 현대시조를 확대 수록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대 시조의 나아갈 길에 대해 다각적으로 짚었다. 시조분과회는 그동안 현대시조 대중화에 힘써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달빛 여울에 선율을 싣고…

여주 고달사지 달오름 음악회 22일 열려

황량한 폐사지가 아름다운 선율과 부드러운 달빛으로 감싸인다.

문화복지연대(상임공동대표 김종엽)가 여주 고달사지에서 달오름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0월 양주 회암사지 음악회로 폐사지 음악회의 첫 발을 내디딘 문화복지연대가 폐사지 보존과 지역문화복지 증진을 앞세워 두 번째 폐사지 음악회를 마련한 것이다.

7월 22일 오후 7시부터 여주 고달사 앞마당에서 펼쳐질 달오름음악회는 입장에서부터 퇴장까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연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복지연대 주최
두번째 폐사지 공연
임지훈 · 한영애 출연

입장 할 때는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중간 중간 흩어진 고달사지의 국보 보물 등 각종 유물들을 설명해준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암사지 음악회에서는 영산재 일부분을 공연화해서 선보였다.

퇴장할 때는 공연의 여운을 즐길 수 있도록 간이 공연장을 설치했다. 움직일 수 있는 길에는 연등이 좌우로 장식돼 고달사지 공연장은 고즈넉한 정원으로 변신한다.

국악관현악 대중음악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준비해 '폐사지와 국악의 만남'을 시도한다. 가수 임지훈, 한영애, 바리톤 홍일, 국악인 박애리,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등이 출연한다. 고달사지와 달오름음악회 준비과정은 한편의 다큐로 제작해 보여준다.

장용철 공동대표는 "폐사지 음악회는 폐사지 보존과 폐사지 보존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두 가지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지역문화복지에도 역할하고 있음을 이미 첫 번째 회암사지 음악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암사지 음악회는 양주시가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인정을 받아 올 가을 한 차례 더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폐사지 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지난해 처음 열린 폐사지 음악회는 회암사지에서 진행됐다.

서포 김만중, 남해 용문사에 서다

15일 높이 2.7m 입석상 제막식…문태준 시인 문학강연

3대 지장도량의 하나인 남해 용문사에 낭랑하게 시가 울려 퍼진다. 7월 15일 용문사(주지 성전)는 남해문학회 남해역사연구회의 후원을 받아 '21세기 서포, 산사에서 시를 쓰다' 행사를 마련한다.

행사의 1부는 <구운몽>으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의 입석상 제막식이 열린다. 남해역사연구회가 제작한 서포 김만중 입석상은 높이 270cm로 용문사 부지 내에 설치된다. 앞으로 용문사 관련 시비를 제작 설치해 용문사를 문학공간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2부는 문학행사로 마련된다. 소월시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문태준 시인(불교방송 PD)이 강연한다.

남해는 서포 김만중을 비롯해 약천 남구만, 후송 유의양 등 유배객들의 작품이 탄생했던 곳이다. 서포 김만중의 '남해적사유고목죽림유감우심작시(南海謫舍有古木竹林有感于心作詩)', 약천 남구만의 '영유자이십수(詠柚子二十首)' '입용문사견등반자(入龍門寺見登盤者)', 후송 유의양의 '남해문견록(南海聞見錄)' '용문사기행(龍門寺紀行)' 등은 용문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055)862-4425

강지연 기자

능인 스님 라이브 공연
7월 16일 종묘 국악정

노래하는 포교사 능인 스님이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묘 국악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을 마련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 하나가 되자' '그리운 어머니' 등 창작곡을 노래한다.


능인 스님은 종묘 국악정 공연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꾸준히 소외 이웃을 위해 공연해온 능인 스님이 2006년 하반기 공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7월 29일 오전11시 강화군 야외공연장에서 자비나눔 음악회를, 8월 13일 오후 2시에는 제10회 라이브공연이 서울 종묘 국악정에서 이어진다.

9월 4일~12월 5일 전국을 돌며 교도소 교화 공연에 나선다. 대전 교도소(9월 4일), 청주 교도소(15일), 청주 여자교도소(29일), 공주 교도소(10월 13일), 논산 교도소(20일), 충주 교도소(11월 3일), 천안 개방교도소(13일), 천안 교도소(12월 1일), 홍성 교도소(15일) 등의 일정으로 재소자를 위한 공연을 계획 중이다.

능인 스님은 요즘 '심향 마음의 향기' 4집을 준비 중이다. 4집은 발라드 풍의 '향수' '가면 안돼 늪 속으로' 등이 수록된다. 거기에 랩과 발라드, 디스코 풍으로 만든 찬불가도 선보일 예정이다. (02)945-3424 강지연 기자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 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뱅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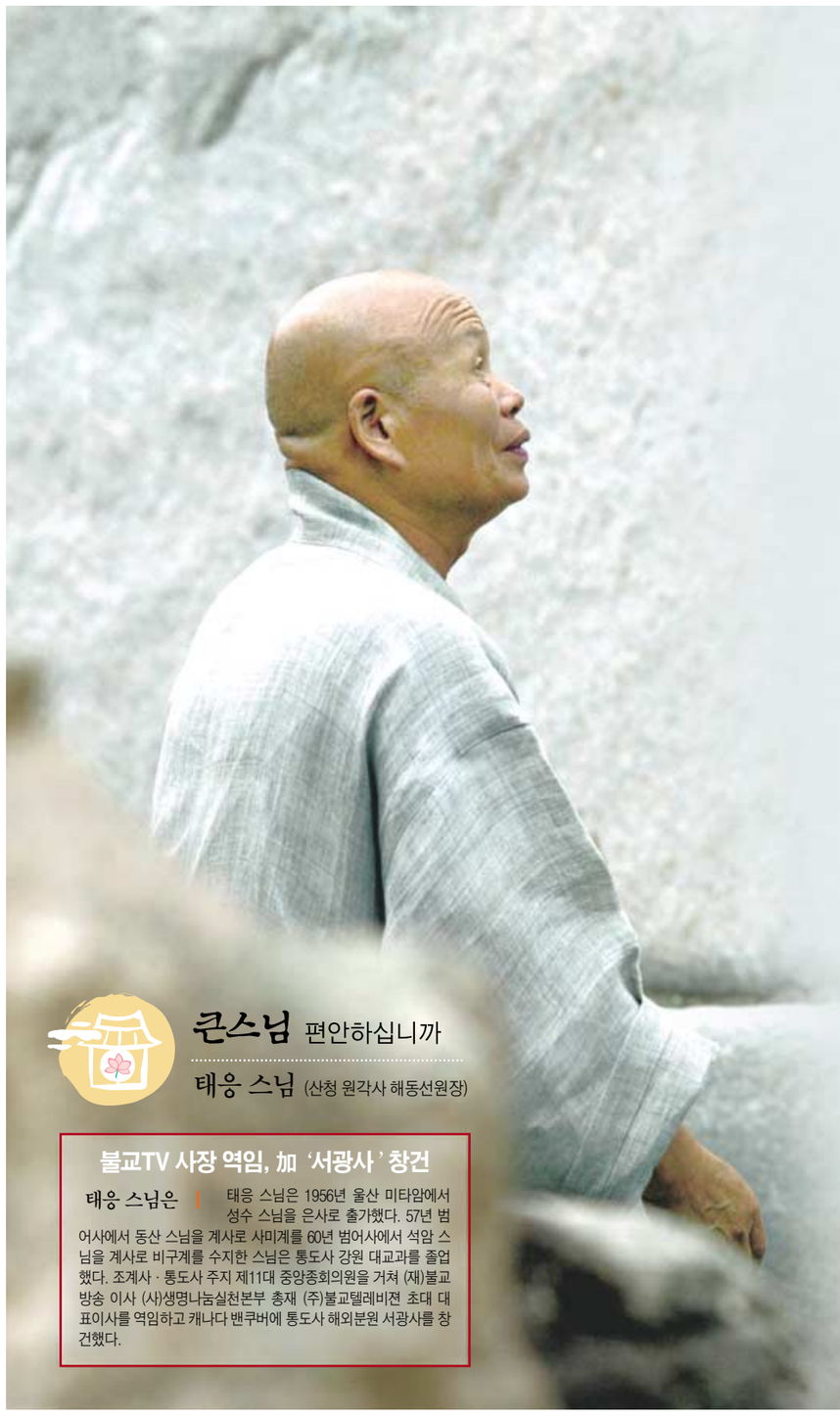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6. 7. 13 (목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10명)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우울증, 신경불안증, 정신병, 공포증, 기관지 천식,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각종 피부병, 불임증, 불면증, 말더듬, 알콜중독, 무통분만 치유 비법**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태응 스님 (산청 원각사 해동선원장)

불교TV 사장 역임, 加 '서광사' 창건

태응 스님은 | 태응 스님은 1956년 울산 미타암에서 성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7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통도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조계사 · 통도사 주지 제11대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재)불교방송 이사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총재 (주)불교텔레비전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캐나다 밴쿠버에 통도사 해외분원 서광사를 창건했다.

1초도 허투루 쓰는 일 없어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 폐교를 개조해 세운 원각사 해동선원(海東禪源)은 6월 30일 장마철 흐린 날씨에도 야외법당인 선불장을 조성하는 대작불사로 분주하다.

운동장 한가운데는 22자 108톤 규모의 통일대불이 우뚝 서있고, 주위에는 청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달마상, 11면관음보살상, 약사여래불, 18나한상 12지신상 등 100여위의 다양한 석조부처님들이 봉안돼 있다. 7월 12일 봉행되는 통일대불 복장봉안과 8월 28일 선불장 통일대불 점안 봉불식을 앞두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크레인 소리 사이로 원각사 해동선원장 태응 스님은 불사 하나 하나를 직접 꼼꼼히 챙겼다.

돌 하나 옮기고 앉히는데도 온 정성을 기울이는 태응 스님. 스님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통도사 분원 서광사를 창건하고, 6만평 부지위에 한국 전통 목조 건축 양식의 법당을 세워 한국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장본인이다.

매일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고 새벽예불, 사시예불, 저녁예불은 빠지지 않는다. 공양도 물론 대중과 같이 한다. 원각사 해동선원은 결제기간 중, 하루 두 시간씩 4회의 수행정진시간 역시 불사 때문에 모든 시간을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매번 한 시간씩은 동참하려고 애쓴다. 스님의 24시간은 단 1초도 허투루 지내는 일이 없다. 24시간을 오롯이 깨어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스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른다.

손상좌인 총무 동일 스님은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원력보살"이라고 말했다.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기 위해 원각사 해동선원을 찾은 한 재가불자는 "정말 부지런한 어른이며,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스님 요사채에 꼭 가보라"고 귀띔했다.

창고를 개조한 한 평 남짓한 스님의 거처.

"방이 너무 작아 불편하지 않습니까?"

"방이 커요. 서이(세 명이) 누워도 충분해. 큰 데 가 보면 큰 게 골치 아프거든. 절대 큰 거랑 바꾸지 않을 거예요." 스님은 작은 방에서 큰 만족을 이야기했다.

태응 스님은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7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고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회에 나가 살겠다는 뜻이 나질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 전에 기도하며 살고 싶었다는 스님은 17세 때, 불심이 깊은 형님을 따라 울산 미타암 주지로 있던 성수 스님께 세배하러 갔다가 '이렇게 큰 스님이 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는 형님의 말을 듣고 출가했다.

"성수 스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지요. 단,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니 깨달아야한다며 늘 참선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좌선하는 모습으로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재주나 기교, 꾸밈이 전혀 없지요. 천진면목 그대로인 분입니다."

태응 스님은 은사스님에 대해 한없는 존경심을 갖고 있다. 1966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을 때도 스님은 원래 강사를 하기 위해 도반스님 10여 명과 직지사 강원에서 일대시교를 다시 완전히 배울 계획이었는데 '강원에서 일대시교를 봤으면 실천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은사스님의 말에 모든 계획을 접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7년간 선 수행에 전념했다. '배운 걸 가지고 참선으로 불교가 뭔지 깨달아야지 말로 익혀서는 안 된다'는 은사스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당시 성수 스님은 "10년간 산에서 산돼지가 된다면 나올 때는 뭐가 되도 될 것"이라고 말해 주셨다.



원각사 해동선원 경내에 조성된 100여위의 다양한 석조 부처님들.

야외법당 선불장 조성 불사로 분주
돌 하나 옮기고 앉히는데도 온 정성
하루 세번 예불·공양 대중과 함께

가장 깊은 산을 찾아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간 태응 스님은 적멸보궁에서 1000일 기도를 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을 채우진 못했다. 극락암 조실로 계신 경봉 스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에 극락암에 잠시 내려와 살았는데, 성수 스님이 범어사 주지가 되는 바람에 범어사에서 원주 소임을 보며 은사 스님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스님, 운수납자의 삶에 미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는 않으세요?"

"초발심으로 산에 올라가 도를 닦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신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절 살림을 하면서, 불사를 하면서 수행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스님은 지금 이 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다.

이야기 중간 중간, 불사의 과정 과정을 점검하는 스님은 일을 돕겠다고 나선 총무 스님의 도반에 대한 배려도 각별했다. 혹 젊은 열기에 무리를 해서 몸을 다칠까 마음 쓰는 태응 스님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윙윙거리는 크레인 소리에 신경이 거슬릴 법도 하고, 대작불사의 마무리 과정에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귀찮게 물어대는 기자에게 한결같이 대하는 모습이다. 태응 스님에게서는 한 점 흐트러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을 지시할 때도 목소리엔 따뜻한 부드러움이 가득하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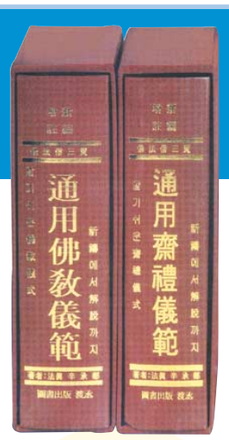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재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생사없는 영원한 삶을 믿으세요

이곳 원각사 해동선원은 새 땅에 사자새끼(인재)를 키우겠다며 은사 성수스님이 2002년 폐교를 개조해 세운 도량입니다. 선원이름에 원(院)자가 아닌 원(源)자를 쓴 것은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근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원각사'라는 이름은 평소 성수 스님이 천도할 때 늘 읽던 <원각경>의 이름을 따서 원각사라 지었고, 해동선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인 원효 스님을 일컬어 중국에서 '해동불'이라 했다는데서 따 해동선원이라 했습니다.

성수 스님은 어릴 때 자기또래의 친구들과는 놀지 않고 늘 노인들하고만 놀았습니다. 그래서 '햇노장'이라고 불렸답니다. 그 때 성수 스님이 노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원효대사 이야기였습니다. 성수 스님은 그래서 원효대사와 같은 분이 되기 위해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동선원에는 성수 스님이 직접 지시해서 조성한 원효성상을 주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과거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어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생겨나고,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는 물론 인재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중생의 업보로 생기는 것인데 모두의 정신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견성 성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수 스님의 원력이고 이 터를 잡고 불사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경주남산에 가면 돌마다 탑을 모시고 부처님을 조성했습니다. 남산전체가 박물관이고 노천법당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법당바닥으로 삼았으니 세계에서 제일 큰 법당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안목으로 불사를 시작하고자 했고, 그리고 옛날 신라시대 김대성이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우고 석굴암 부처님을 모신 뜻을 다시 새겨 이곳에 봉안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김대성은 다음생에 부잣집에 태어나 가난한 전생부모와 부자인 현생부모를 한집에 모시고 산 효자입니다. 그리고 과거 부모를 위해서는 다보탑을, 현생 부모를 위해서는 석가탑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달은 자신을 기다리다가 죽은 아사녀의 다음 생을 축복하기위해 석굴암 부처님을 조성했습니다. 인도의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영산회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토함산에 생동감 있게 재현함으로써 아사녀를 위한 사랑을 세계적인 문화재가 되도록 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라불교가 생사가 없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과거 부처님의 영산회상 당시를 활불로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불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생은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걸 재현한 것입니다. 김대성이 아사달에게 죽은 아사녀를 축복해주라고 한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또, 석굴암 부처님을 동해바다 해가 떠오르는 쪽에 조성해 해가 떠오를 때마다 붉은 햇빛을 받아 발그스레하게 살색을 띠면서 생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활불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불성이 영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사가 없는 영원한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원각사 통일 대불도 당시의 원력을 이 순간의 원력으로 끌어들여 삼고자 했습니다. 불성은 영원하며, 생사가 없는 영원한 삶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돌부처님 앞에서 기도 참선정진을 해서 견성성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지극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나는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세요. 실천의 첫 걸음은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등의 오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극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은 물질과 명예에 재미를 붙이지 말고 정신 수행으로 성품 깨달아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일반 세속에서는 산더미처럼 쌓고 끌어안아야 출세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왕좌도 버리고 금식하고 6년 고행해서 출세한 분입니다. 이처럼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거쳐야 생사 해탈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하구나' 무릎치고 박장대소할 수 있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왕좌까지 버린 그 자체가 대웅(大雄)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인 것입니다. 상대를 초월한 영웅, 그래서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3>



'옥야경'을 다시 읽는다(1)

<옥야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이 있습니다.

옥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부유하고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급고독장자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자기가 한 남자의 아내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 입장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나 봅니다.

그녀는 자기의 미모와 친정집의 배경을 믿고서 매우 교만하였고 시어른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도 무시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시아버지인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우리 며느리 사람 좀 만들어 달라는 청을 넣었겠습니까? 이런 사정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경이 바로 <옥야경>입니다.

부처님은 아름답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옥야에게 그 유명한 '일곱 종류의 아내'를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어머니같은 아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며 밤낮으로 살펴주고 옆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공양하며 때를 놓치지 않으며, 남편이 밖에서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업신여김을 당할까 노심초사하지만 그 마음이 지치고 피로할 줄 모르는 아내입니다.

둘째는 누이같은 아내입니다. 남편과는 한 나무에서 자라난 형제처럼 사이가 좋아서 오누이마냥 사랑하고 정성을 들이며 남편을 오빠처럼 좋아하고 소중하게 받드는 아내입니다.

셋째는 좋은 친구같은 아내입니다. 남편과 매우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리워하여 조금이라도 떨어져 지내지 못하며, 사적이고 비밀스런 일을 항상 서로 이야기하며,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충고하여 행실에 실수가 없게 하며, 착한 일로 서로 가르쳐 더욱 지혜로워지게 하며, 사이좋고 속 깊은 친구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아내입니다.

넷째는 며느리같은 아내입니다. 시부모님께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공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와 같이 어른 모시듯 받들어 섬기고, 집안일을 처리하고 단속할 때에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꼼꼼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예절을 세세히 닦아 조금이라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행동거지에 예의를 잃지 않고, 오직 집안의 화목을 귀하게 여기는 아내입니다.

다섯째는 하인같은 아내입니다. 남편을 비롯한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생각을 품어서 감히 자만하지 않으며, 조심성 있게 일해 나가되 피하고 꺼리는 것이 없고 말이 부드럽고 성품이 온화하며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정숙하고 진실하고 언제나 자신을 예(禮)로 엄하게 단속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다보니 남편의 극진한 사랑이나 홀대에도 금방 얼굴빛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인이 상전을 섬길 때에는 항상 자신을 낮추듯이 남편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아내입니다.

여섯째는 원수같은 아내입니다. 남편을 봐도 즐겁지 않고 항상 분노를 품으며, 밤낮으로 서로 떨어질 생각만 하니 부부간의 정이 없고 상대를 배우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빌붙어 사는 객처럼 여깁니다. 보기만 하면 싸우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누워서 자식과 가사를 돌보지 않고, 혹 음탕한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내입니다.

"하인과 같은 아내로 살겠습니다"
복종 강요하는 경으로 여겨져
여성불자들에게 되레 외면 당해

일곱째는 목숨을 빼앗는 아내입니다. 원수같은 아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만 생각합니다. 바라보기만 하여도 분노가 치밀어 급기야 남몰래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아내입니다.

옥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모와 친정집의 배경을 믿고 교만하였던지라 앞으로는 하인과 같은 아내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 경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경은 여자에게 굴욕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경으로 여겨져서 정작 주인공인 여성 불자들에게는 외면을 당하였고 스님들이나 남성들에게 오히려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 역시도 <옥야경>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흥…' 하며 고개를 돌려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경을 무리없이 받아들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에게 매우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며 똑같이 돈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여성은 자식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는 여성은 집안 생계를 남편과 똑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하인같은 아내로 살겠다는 뉘우침을 담은 <옥야경>이라니요….

그런데 경의 전후사정을 따져가면서 읽어가자니 우리가 너무 자기 좋은 대로만 이 경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물제현 선사님 역주 / 지음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게자 대원 문제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제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빌빌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법회 선가귀감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출간될 책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6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조립식 방가로 No-1210 7000×4000×3300(mm) 가격대명800,000
◆이중창 이중벽 원목문 방가로 No-1270 9960×4700×3300(mm) 가격대명 900,000
홈,홈속에서도 썩지 않는 기둥,정상은 갈라지거나 부식이 전혀없어
주말농장,휴양림,펜션,수련원,사찰에서 많이 사용됨 (원하는 사이즈 주문 상산가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 방을
◆통로 철스하는 탕상 No-1540 1600×1030×350(mm) 가격:190,000
견고, 이중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쉽지가 간단한 편함
갈라지거나 휘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한 영구적이며
화재 충격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재품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seo.com/현무학.kr/명상.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용목부기새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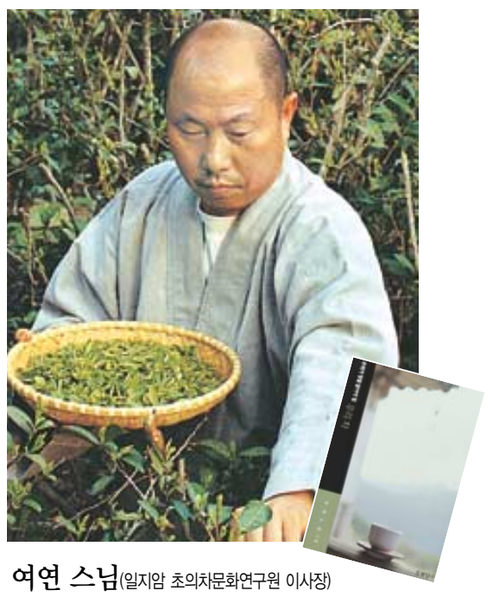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동성 출판 밀 양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달아 上智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新 유식학 고목 밀양



복달마! 돈달마!
무엇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는 친필달마도
황금돈이 수없이 모아드는 행운과 영험을
외면 하시렵니까??
신중기도 100일 후 출시합니다. ₩300,000원
미타정사 성각 합장
02)389-5991.2088

전문가가 설명하니 茶 입문 쉽네

차 관련 단체장들 경험 바탕으로 쓴 책 출간



여연 스님(일지암 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차〉

우리 고유차 밝히고 문제점 지적



박권흠(한국차인연합회 회장)

〈한국의 차문화〉

차문화 역사와 현황 자세히 소개



김영숙(중국다예연구중심 원장)

〈중국의 차와 예(藝)〉

79종 茶 유래 생산지 품질특징 등

최근 서점가에 차 관련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차(茶) 붐'에 편승한 졸속 기획물도 없지 않지만, 차 관련 단체장들이 펴낸 굵직한 입문서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여연 스님(일지암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차 관련서적으론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현암사)를 펴냈다. 1971년 해인사에서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여연 스님은 불교잡지 〈해인〉의 창간 멤버로 편집주간을 지냈으며 이후 조계종 종회의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중진 스님. 차계에서는 대흥사 일지암 암주로서 사단법인 일지암초의차문화연구원을 설립해 초의 스님의 차 정신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다승(茶僧)으로 더 유명하다.

여연 스님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차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차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격화된 하나의 종합적인 문화"라 규정하는 스님은 "이러한 차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다. 어렵고 복잡한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이나 사무실 심지어 건설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 속의 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오늘날 우리 차문화계에 만연해 있는 문제점을 짚는다.

스님은 "찻잎을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삶는다는 '구증구포(九蒸九泡)'는 흔히 알려진 것과 같은 녹차의 제다법이 아니라, 병차(餠茶) 즉 떡차의 제다법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최근 '선(禪)'자만 넣으면 '선차'가 되는 양 너스레를 떠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며 "'선차'란 선의 방편으로 행다(行茶)를 하는 것이지, 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는 믿음은 허황되다"고 말한다.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은 〈한국의 차문화〉(삶과꿈)를 선보였다.

대구일보 사장과 10~12대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세월 언론 · 정치계에 몸담았던 박 회장을 규정짓는 또 하나의 단어는 '차'다. 지난 15년간 한국차인연합회를 이끌어 온 박 회장은 '차로써 병을 뛰어넘는다(以茶越病)'고 주장한다. 박 회장 자신이 차를 마시고 건강을 되찾은 경험을 토대로 "차를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다도를 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차문화〉에서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와 오늘날의 차문화 현황을 밝히는 한편, 차의 정신이 '중정(中正)이라 밝히고 있다.

"차인이란 모든 것에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차의 다섯 가지 맛이 잘 혼합된 것처럼 '중정'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비로소 진정한 차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차와 예(藝)〉(차의세계)를 출간한 중국다예연구중심 김영숙 원장은 중국절강대학 다학과에서 통치칭(童啓慶) 교수로부터 중국차를 사사한 인물. '차를 배우겠다'는 결심 하나로 1997년 낯선 땅 중국을 찾은 김 원장은 2000년 7월, 중국 절강성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다예사 자격증을 취득해 차계에 이름을 알렸다. 2001년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중국다예연구중심을 개원하고 중국차 교육에 나섰으며, 중국 절강성 다엽학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한 · 중 차문화강연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국의 차와 예〉에서는 중국의 차와 다예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녹차 31종, 백차 2종, 오룡차 20종 등 79종류 차의 유래와 생산지, 품질특징 등을 심평 기준에 맞추어 소개한다. '중국의 다예'에서는 다예표연(茶藝表演) 13종류를 보여준다. 김 원장은 "다예표연은 차를 우리는 사람이 기교와 재주, 기술로써 차를 우리는 방법에서부터 맛 보는 것까지 모든 동작을 펼쳐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다예는 정서를 배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여주며, 인간관계의 매개체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끝〉



22. 연재를 마치며

누군가 '보이차는 이야기로 마시는 차'라 했다. 처음엔 중후한 찻빛에 마음이 끌리고 다음으로는 찻잔을 돌려 취하는 보이차의 향, 머금었을 때 입안을 조이는 천(千)의 맛 그리고 목젖을 타고 넘는 저릿한 촉감 등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이차는 어떤 차보다 '분위기'를 많이 타는 차다.

보이차의 분위기는 와인과 많이 닮아 있다. 와인은 술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비즈니스에서 협상을 좀 더 부드럽게 진행시켜주는 훌륭한 매개체다. 보이차도 마찬가지다. 만드는 과정을 보면 산지와 품종, 찻잎의 수학, 원료의 고르기 등 조건들이 와인과 별반차이가 없다. 저장과정을 보면 발효에서 숙성까지 와인과 쌍둥이처럼 쏙 빼닮았다. 와인 병을 잘 보관하면 숙성이 잘 되어 맛이 더욱 좋듯 보이차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향과 맛이 더 개선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차는 와인과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와인의 모든 정보는 라벨에서 제공된다. 로고, 빈티지, 상표, 등급 그리고 병 입지와 로트번호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물론 보이차에도 라벨이 있다. 포장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귀를 믿지 않는다.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달리 쓰여 지는 것이 보이차의 라벨문구다.

야생, 교목, 노차수(老茶樹) 등 원료의 선택부터 이무(易武), 반장(班章) 등 산지의 출신까지, 정보가 아닌 거짓 글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보이차의 현주소다. 그 결과 보이차는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죽어가는 보이차 시장을 살리고자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썬페이핑(沈培平) 사모시(思茅市) 시장이다. 정부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차의 신뢰문제와 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차농(茶農)문제 해결에 밤낮으로 헌신적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보이차의 발전과 신뢰는 정보의 투명화에 달려 있고,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임기 동안 이를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 보이차를 와인과 같은 개런티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고 다짐한다. 지금 보이차계에서 그를 '보이차의 복성(福星)'이라 칭송하고 있다.

나는 믿는다. 보이차의 복성이 많이 나올수록 보이차는 와인과 더불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서 있는 현재를 창조하고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연재를 시작하며'를 쓴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다. 아직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남아 있는데 마침표를 찍어야하니 왠지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한 평생을 푼다해도 완벽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차가 보이차며, 아무리 써도 메마르지 않는 이야기가 보이차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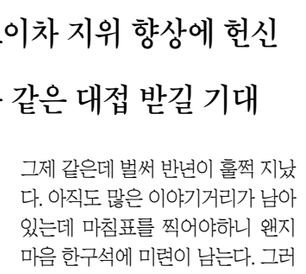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면 많은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옛 보이차 상품들을 집중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한된 지면에서 그림을 통해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보이차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옳은가'에 중심을 두어 글을 썼던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 동안 미흡하고 부족했던 글을 읽어주고 격려와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펜을 거두고자 한다.

■ 한서대학교

썬페이핑 사모시장 보이차 지위 향상에 헌신

정보 투명화로 와인과 같은 대접 받길 기대



보이차의 발전과 지위향상, 신뢰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 사모시 썬페이핑 시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자녀 입장에 서면 나도 좋은 아버지”

봉은사 ‘좋은 아버지 교실’ 참가자에게 들어보니…



6월 30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30여 명의 아버지들이 모였다.

직장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 가족의 따뜻한 환대를 기대했지만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빠져 관심조차 없다. 아이들과 말 한마디라도 나눠보려고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왜 참견이냐”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느냐”며 방문을 닫아버리기 일쑤다. 그리 낯설지 않은 이 시대 아버지의 자화상이다. 가정의 ‘외딴 섬’으로 남겨진 아버지들을 구출해 낼 해결책은 없을까?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가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한 ‘좋은 아버지 교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살피고 자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30여 명의 아버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5주간의 수업에 동참했다. ‘좋은 아버지 되는 일’이 그렇게 절박했을까? 아버지 교실에 참가하게 된 이유와 변화 과정을 들어봤다.

자녀와 대화 잘하는 법 두가지

1 자기표현 잘 못한다고 말 끊지말고 끝까지 듣자

▷ **침묵의 대화**

부모와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쩌다 한 번 입을 열어도 대개 자기주장이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통의 부모는 답답한 나머지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 일쑤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맞장구를 치며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넌 왜 그 모양이냐” *NO* “아버지는…가 걱정이다” *YES*

▷ **‘너 메시지’와 ‘나 메시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너’의 행동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너 메시지(you-message)’와 나의 기분과 감정을 설명하는 ‘나 메시지(I-message)’가 있다.

흔히 부모는 “너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냐”는 식으로 아이의 행동을 꾸짖게 된다. 이 같은 ‘너 메시지’는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대화법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대신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아빠는 무척 섭섭하다”는 식의 ‘나 메시지’는 화자(話者)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표현함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대화법이다. ‘나 메시지’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 없이 묘사하고,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다.

“제가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 또한 몰랐죠. 자녀가 중2, 고2인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방법을 모르니 아이들을 권위적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유정용, 46, 서울 노원구)

참가자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회식문화, 엄한 아버지를 강요하는 가부장적 분위기 등을 탓하며 서로를 위로해보지만 결국 문제는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변해야 가족도 변하는 것이다.

“아이가 원하는 건 장난감 아닌 대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나 장난감이 아닌 아빠와의 대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경만, 56, 서울 성동구)

‘좋은 아버지 되기’의 핵심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데 있다. 강의를 맡은 정명애 강사(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수석강사)는 ‘잘 듣는 법’으로는 ‘침묵의 대화’를, ‘잘 말하는 법’으로는 ‘나 메시지’와 ‘행동 언어’를 제시했다.

‘침묵의 대화’는 아이의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줌으로써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단을 칠 때는 “인터넷 좀 그만해라” “너 혼날래” 같은 ‘너 메시지(You message)’ 대신 “아빠는 네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는 식의 ‘나 메시지(I message)’를 사용한다. 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같은 아이의 존재감을 뒤흔드는 말 대신 “네가 화장실 불을 안 껐구나”처럼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어줌으로써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대화법 이론은 간단하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 때문에 수업을 시작할 때면 꼭 지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주일간 잘 실천했는지를 ‘점검’한다. 쏟아지는 아버지들의 체험담.

“중학교 2학년 된 아이에게 템플스테이에 한 번 가보라고 했더니 무작정 싫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혼내고 윽박질러서라도 가라고 했겠지만, 지난 수업 내용을 떠올리며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절에 가서 느꼈던 좋은 감정과 추억들을 들려주었더니 아이가 조금씩 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준비를 하는 아이가 매일 늦게 들어오고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먼저 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지금이 네게 얼마나 힘든 시기인줄 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윽박질러 보냈을텐데…”

처음엔 자녀에게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이 쑥스럽지만 한두 번 횟수가 늘수록 대화법에 익숙해지게 된다. 처음엔 “하던 대로 하시라”며 어색해하던 자녀도 곧 아버지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정명애 강사의 조언이다.

취직 준비 중인 자녀를 둔 황진호(60, 서울 송파구)씨는 “대화법을 배울수록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며 “자녀가 어렸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강사는 “불자들은 자녀문제를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대화법을 실천하기가 한결 쉽다”며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가자들끼리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류한다면 더욱 좋은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사진=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5〉

녹차나물과 칡 콩나물





절에서 1년 내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녹차. 저 역시 절에 가면 정갈한 차방에서 스님이 우려 주는 차를 많이 얻어 마시곤 합니다.

작고 예쁜 다기 속에서 은은하게 우러나는 녹차의 그윽한 향이 제 코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녹차의 향보다 그 맛의 새로운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녹차의 맛, 궁금하시죠?

바로 녹차나물입니다. 요즘은 요리 책이나 잡지에서 녹차로 만든 음식들이 봇물 터지듯 소개되고 있지만, 차 음식은 예로부터 절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음식입니다.

스님들은 수행에 도움을 주고 몸을 정화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차를 우려 마십니다. 차를 마시고 난 뒤에 남는 찻잎으로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그 알뜰살뜰함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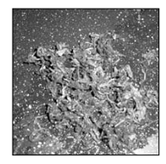
제가 아는 절의 한 공양간 보살님은 남은 녹차 찌꺼기를 모아 나물로 무쳐 먹거나 밥을 할 때 올려 녹차 밥을 만들기도 하고 녹차기름을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음식찌꺼기’ 정도로만 여기던 찻잎을 꼭 짜서 들기름에 버무려 나물로 승화시킨 것은 요리를 하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우려 마시고 난 쑥차와 댓잎차, 녹차 등을 버리지 않고 음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머무는 차의 은은한 향이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입맛 없는 여름철에는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는 녹찻잎으로 음식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차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차의 버려진 잎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과 건강을 주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사찰음식을 공부하는 제 자신이 조금씩 더 성숙해 지는 것 같습니다.

■ **만드는 법**



〈녹차나물〉 재료: 마시고 난 녹차 잎 1컵, 들기름 1작은 술, 죽염 약간, 들깨 약간

① 마시고 난 녹차 잎은 물기를 꼭 짠다. ②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녹차 잎에 죽염을 약간만 넣어 조물조물 버무려 준다. ③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녹차 잎을 단시간에 볶아준다. ④ 들깨를 버무려 완성한다.



〈칡 콩나물국〉 재료: 콩나물 300g, 칡 50g, 표고버섯 2개, 조선간장, 채 썬 홍고추 • 청고추 약간, 죽염

① 칡은 깨끗하게 씻어 물 5컵을 붓고 국물을 내준다. ② 표고버섯은 물 5컵을 붓고 먼저 끓여 국물을 내준다. ③ 콩나물은 잘 다듬어서 준비한다. ④ 칡물과 표고버섯물을 1:1로 섞고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끓여준다. ⑤ 콩나물이 거의 익으면 조선간장과 죽염으로 간을 맞춘다. ⑥ 먹기 전에 채 썬 홍고추와 청고추를 넣어 한번 끓여준다. 식성에 따라 고춧가루를 첨가한다.

▶다음 주에는 메밀 수제비와 메밀묵 무침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올 여름 자연과 소통해 보자

전국 방방곡곡 농어촌 체험광장이 활짝 열렸다. 올 여름에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찾아 자연과 함께 어울려보자. 숲과 강,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에서 지친 심신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

도시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산과 강, 논과 밭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단순히 자연과 전통 체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체험 마을에서는 전통 먹거리 체험으로 건강을 다지고 가까운 사찰을 찾아 불향에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제 지평선결두리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용두레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제 지평선결두리마을


강화 화문석마을에서는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는다. 사진은 논에 오리넣기 체험. 사진제공=강화 화문석마을

친환경 체험으로 건강 지키고 사찰 들러 참배하고

도선국사 얼 느끼며 선차도 마시고

▮ 도선국사의 얼이 스민 광양 도선국사마을과 옥룡사지

도선국사마을에서는 도선선차를 맛볼 수 있다. 도선 스님의 얼이 스며있는 옥룡사지,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생태숲공원 등도 볼거리. 도선국사마을의 특산물은 고로쇠된장이다. 도선선차 외에도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손두부 만들기, 짚풀공예 등을 할 수 있다.

마을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도선국사 유적지 체험도 열린다. 마을입구 정자에서 출발하는 유적 탐방코스는 도선국사가 선덕을 베풀기 위해 집집마다 심어주었다는 참배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그루의 일미배를 보고, 옥녀배혈, 3각형 석주와 공원, 휴양림 황토길 걷기, 옥룡사지와 동백림을 돌아 다시 정자로 돌아오는 코스다. 옛 옥룡사를 복원해서 지은 운암사 주지 종견 스님과 함께 하는 다도체험도 있다. *(dosun.go2vil.org)*


여주 오감도토리마을에서 짚풀공예를 해보는 방문객들. 사진제공=여주 오감도토리마을


무안 백련흑콩마을에서 연잎차를 시음할 수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전통음식 체험 · 벌집 아파트 분양 등

▮ 고인돌 마을 순천 용오름마을과 재천사

순천 용오름마을에서는 참선 · 다도 배우기, <반야심경> 사경, 사찰음식 만들기 등 재천사 산사체험을 할 수 있다. 보물용 찾기, 용등 띄우기, 메굿배우기 등의 전통문화체험과 꿀고추장 메주 콩국수 두부 만들기 등 전통음식체험 등도 제공한다.

농사체험에서는 짚풀을 이용한 벌멍덕(벌집 지붕)과 천연 밀납초를 만들어보고, 벌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송광사 선암사와 가깝고 주암호 낙안읍성민속마을, 순천만고인돌공원 등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 관광명소로 꼽힌다. *(oreum.go2vil.org)*

원효 · 의상 수행처에서 밭농사 체험!

▮ 원효대사의 고향 문경 궁터마을

문경 궁터마을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수행하던 곳이며 후백제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의 고향이다. 견훤이 어린시절 호연지기를 기르던 곳으로 유명하다. 목공예체험을 하고 메주와 청국장을 담아볼 수 있다. 고추와 옥수수 등을 따는 밭농사 체험도 제공한다. 마을 뒷산에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수행했던 곳이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불당곡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 조선중엽까지 있었으나 빈대가 너무 많아 그 절을 태워버려 불당곡이라 했다고 전해온다. 청화산에 위치한 의상대 또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수시로 만나 불법을 논한 곳으로 유명하다. *(gungteo.co.kr)*

물고기 잡고 탑돌이…소원 빌어봐

▮ 탑돌이 체험 밀양 꽃새미마을과 표충사

태백산맥의 끝자락인 종남산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밀양 꽃새미마을. 종남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이루어진 봉황저수지에서는 물놀이와 물고기 잡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꽃새미마을의 자랑은 백팔돌탑. 백팔돌탑을 모두 돌며 기원하는 백팔돌탑돌이를 체험할 수 있다. 사명대사 유적지와 표충사 등이 가깝다. *(kkotsaemi.go2vil.org)*

냉족욕 연잎팩으로 건강 지키세요

▮ 무안 백련흑콩마을과 초의선사유적지

지장수를 이용한 냉족욕, 지장수 연잎팩 등 건강체험이 마련된 무안 백련흑콩마을에서는 연잎차와 연씨 휴대폰걸이도 만들 수 있다. 무안백련대축제자 열리는 회산 백련지와 이웃하고 있어 백련과 논두렁에서 재배된 흑콩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초의선사유적지, 법천사 목우암 등이 있다. *(baekyeon.go2vil.org)*

지리산의 달 · 허브로 氣 채워볼까!

▮ 남원 달오름마을 · 춘향허브마을과 실상사

지리산의 정기가 모였다. 남원 달오름마을에서는 달의 정기를 받아 명상하며 다도와 요가 등을 통해 기체험을 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약선시식, 보양음식, 찜질방 등 건강 챙기기에 적합한 코스이다. 남원 광한루, 실상사, 금대암, 황산대첩비 등이 주변 볼거리. 특히 금대암에 오르면 지리산 천왕봉, 형제봉 등 지리산의 전체적인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금상첨화다. *(dalorum.go2vil.org)*

춘향허브마을도 실상사에서 가깝다. 허브 체험, 도토리묵만들기, 승마, 판소리체험 등을 제공한다. *(chunhyang.go2vil.org)*

슬로우푸드 농촌체험 인기

▮ 여주 상호리마을 · 오감도토리마을과 신륵사

표고버섯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상호리마을에서는 참외 따기, 도자기 체험,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친환경 프로그램 지렁이 만지기 등으로 아이들은 자연으로 성큼 다가선다. 인근에는 신륵사를 비롯해 명성황후생가,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등 역사적 볼거리들도 가득하다. *(www.suksoo.com)*

슬로우푸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각광받고 있는 여주 오감도토리마을도 신륵사에서 가깝다. 고려시대 다섯 명의 대감이 살았다고 해서 오감이라 이름 붙은 오감도토리마을은 도토리 체험으로 유명하다. *(ogam.invil.org)*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농촌 속 문화학교 봉화 관북마을과 청량사 · 부석사 (binari.invil.org)
봉화 관북마을은 미술캠프 종이공예 천연염색캠프 등 산촌문화교실이 열린다. 고구마 송이 사과 따기 등 체험과 더불어 된장과 김장김치도 담글 수 있다. 청량산도립공원 청량사 안동농암 저택 등이 가깝다. 봉화 관북마을에서 각종 문화체험을 하고 영주 부석사를 찾아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보자.

갓김치 여수 돌산갓장터마을과 향일암 (dolsangot.go2vil.org)
돌산갓으로 담근 갓김치가 유명한 돌산갓장터마을. 갓김치를 직접 담글 수 있다. 낚시와 해돋이를 비롯해 더덕 도라지 감자 등을 수확하는 농사체험도 제공한다. 해산물이 풍부해 전복죽, 솔잎굴구이 등이 유명하다. 일출과 해수관음으로 유명한 관음기도도량 향일암이 옆이다.

1급수 산천어가 사는 양평 명달마을과 용문사 (ecosanchon.invil.org)
우렁이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양평 명달마을에는 명달분교를 이용한 환경교육센터가 있다. 표고버섯따기, 야생화관찰, 숲길체험 등 자연체험과 더불어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센터가 눈길을 끈다. 중미산휴양림, 두물머리 등이 볼거리. 용문사에 들러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끽하는 것도 즐겁다.

사슴이 뛰어노는 여주 주록사슴마을과 목아불교박물관 (julokfarm.com)
빙어와 가재, 여름철에는 미꾸라지 붕어도 있다. 개천물놀이 체험에서 아이들은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직접 농사도 짓고 짚풀을 이용한 공예품도 손수 만들어볼 수 있다. 제기차기 널뛰기 등 전통놀이도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O.K. 가까운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여러 불상과 목공예품을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무형문화재 용두레 체험 강화 용두레마을과 보문사 (yongdure.go2vil.org)
용두레는 삼국시대부터 두레 맞두레 두레박 무자위 등과 함께 한국의 지형과 인력에 맞게 고안 • 사용돼온 물을 대는 대표적인 용구이다. 용두레마을에서는 용두레가락을 직접 불러보고 용두레를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떡메치기, 장담그기, 갯벌체험, 천연염색, 산나물 채취 등도 용두레마을이 제공하는 체험들. 속노랑고구마, 강화흑미 등 특산물도 만나고 보문사 마애불도 관람하자. 화문석 체험을 할 수 있는 강화 화문석마을도 보문사에서 가깝다. (hwamunseok.go2vil.org)

음성 용바위골마을과 미타사 (greentour.or.kr)
하늘로 올라가던 용이 마을 경치에 반해서 내려온 곳이라는 전설이 담긴 '용바위골'. 음성 용바위골마을은 취나물 고사리 등 산나물 뜯기 체험과 더불어 감자 캐기, 과일 솎기 등을 할 수 있다. 고추장을 직접 담그는 체험도 마련돼 있다. 용이 반한 용바위골마을을 지나 미타사와 마애불, 화양동계곡, 월악산국립공원 등을 한바퀴 돌아보면 어느새 더위는 저만큼 물러가 있다.

화랑정신이 살아 숨쉬는 진천 생거진천화랑촌과 도솔암 (baryen.go2vil.org)
화랑이 되어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생거진천화랑촌. 인근 도솔암과 김유신장군태실 등이 볼자들을 유혹한다. 연곡저수지와 어우러져 생거진천화랑촌은 한 폭의 그림이다. 화랑체험 외에도 고리던지기, 반딧불이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보탑사도 있다.

예산 삼베길쌈마을 · 해바라기마을과 수덕사 향천사 (sambea.go2vil.org)
달밤에 볏섬을 나르던 의좋은 형제이야기가 전설로 남아있는 마을. 삼베길쌈마을에서는 삼베길쌈체험을 할 수 있다. 쑥개떡 향낭 등 어르신들은 옛 추억에 잠기고, 아이들은 전통을 맛볼 수 있다. 삼베와 국화베개 등 특산물도 살펴보고 수덕사 향천사 등에서 불향에도 잠겨보자.
인근 예당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예산 해바라기마을도 빼놓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이곳에서는 어죽 끓이기, 오리 밥주기, 고구마 캐기, 메뚜기 잡기, 밤 줍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준비돼 있다. (greentour.or.kr)

고창 선산마을 · 만돌마을과 선운사 (농촌체험마을.com)
고창 선산마을은 봄 청보리밭축제, 가을 메밀축제 등으로 유명하다. 씨앗뿌리기, 모내기, 감자캐기 고추 심기 등 농사 체험을 제공한다.
만돌마을은 4km 앞에 위치한 죽도까지 간조 때 바닷길이 열리는 환상체험을 할 수 있다. 바다 마을답게 건각망 후릿그물 등 어업 체험이 가능하다. (seantour.com)
선운사를 비롯해 선운산도립공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등이 주변 볼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김제 지평선결두리마을과 금산사 (gyeotduri.go2vil.org)
아름다운 석양으로 유명한 김제 지평선결두리마을은 일몰일출관찰 체험을 제공한다. 주변에 산이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황토염색, 농경문화탐방 뿐 아니라 지평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보는 것도 이곳의 장점이자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벽골제 수리민속박물관 벽천미술관을 둘러보고 금산사를 참배하면 코스가 마무리된다.

호랑이울음이 들리는 강진 청자골달마지마을과 무위사 (dalmagi.go2vil.org)
호랑이굴이 있어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강진 청자골달마지마을. 물놀이 황토염색 거기에 야외볼링체험 등 남도의 정을 흠뻑 느껴보자. 왕겨숯콩나물, 솥뚜껑새송이부침개도 만들면서 자연과 정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무위사를 비롯해 고려청자도요지, 10만평 규모의 녹차밭, 다산 초당, 영랑 생가 등 다양한 볼거리도 널려있다.

토종 꿀벌의 곡성 하늘나리마을과 태안사 (nari.go2vil.org)
한봉(토종꿀벌)과 고로쇠 산채 과실 등 무농약농법으로 농사짓는 곡성 하늘나리마을은 해발 300미터에 위치해 있다. 밀납초 벌통 야생차 인절미 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섬진강기차마을, 압록유원지, 태안사 등과 이웃하고 있는 곳이다.

신비의 바닷길 진도 죽림마을과 쌍계사 (jindo.go.kr)
2002년부터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벌이고 있는 진도 죽림마을에서는 채낚기 해조류채취 김 채취건조 조개잡이 체험등 다채로운 어업 체험을 할 수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남진미술관 등에서 문화의 향기에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 쌍계사와 여귀산 세방낙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조선8경 가야산 성주 중기마을과 해인사 (gayasan.invil.org)
가야산 호랑이의 전설. 성철 스님의 수행담이 생생하게 살아 내려오는 가야산 자락에는 중기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참외로 장아찌를 담글 수 있다. 방사과 따기, 감자 캐기, 벌꿀 채취 등을 하며 공해에 찌든 심신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다. 합천 해인사, 가야산국립공원, 야생화생태식물원 등도 둘러보자.

하동 영당마을과 쌍계사 화엄사 (youngdang.co.kr)
야생차를 따고 차를 마시는 시음행사가 이어진다. 하동 영당마을에서는 차와 함께 하는 체험의 장이 열린다. 매실장아찌 담그는 법도 전수받을 수 있다. 섬진강에서 유명한 재첩과 은어도 볼 수 있다. 하동군 송림, 섬진강, 최참판댁 등이 인근 볼거리. 쌍계사와 화엄사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 위치이다.

농촌 속 역사체험 안성 칠장리와 칠장사 (kgtour.co.kr)
천년고찰 칠장사와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다락논이 돋보이는 곳. 칠장리는 임꺽정과 어사 박문수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옥수수와 감도 따고 벼를 베는 것도 가능하다. 복조리를 만들어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도 있다.

충남의 알프스 청양 가파마을과 장곡사 (gapa.go2vil.org)
칠갑산 서북부에 위치한 산간마을 가파마을은 '아름다운 언덕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청양고추의 주산지. 장승목걸이깍기 천연염색, 고추따기, 고추장 만들기, 꽃다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다. 칠갑산과 장곡사, 장승공원 등이 가깝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586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7월 12일(음력 6월 17일) 수요일

비바람 아무리 쳐도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해야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영계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내보면은 참 가난하고 이를 데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는가 하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해서 부모들이 속을 썩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인과성이며 그게 업보성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왜 공부가 하기 싫겠습니까마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속의 업식이 다 '싫어해라, 싫어해! 그건 해서 뭘 하니?' 하고 자꾸 하니까 거기 따라서 그냥 더불어 같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식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몸속이 다 업식이거든요. 악업 선업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다 없다 이러는 겁니다. 자기한테 콩씨도 불어 있고 자기한테 진딧물도 불어 있고 자기한테 모두 벌레도 있는 거지, 다른 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진딧물에 속지 말고 그 콩씨에게만 집중해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니까 자기 마음에서 진짜 나오는 건 줄 알고, 전부 이게 나쁜지 좋은 건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저지르는 것뿐이죠. 물론 생각해본다고 하겠죠. 그런데 잘못되게 하는 그런 쪽의 업식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기울어질 수밖에요.

한마디만 더 하고 일어납시다. 이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몸속에 지금 악업이고 선업이고, 팔자 운명이고 인과고 또는 유전성이고, 다 여러분 몸속에 지금 갖추어서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거일동, 너의 껍데기가 생겼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고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알맹이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그게 몸뚱이에 결부가 된 거다. 그러니 그거를 믿지 말고 어떠한 거든지 나오는 대로,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놔라 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 넣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앞서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팔자 운명 뭐 영계성 · 업보성 · 유전성 · 인과성 · 세균성 이게 다 입력이 됐었는데 그거 차례차례로 자꾸자꾸 솔솔 나오는데 그게 다 녹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도 그냥 벌집 일어나듯 하고 바깥에서도 닥쳐오고 이러니까 그냥 얼마나 이게 인생살이가 힘들겠어요? 몸만 망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로 네가 일거수일투족 생활하는 그 자체, 어떤 업보가 닥치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든지 하여간에 모든 거는 고놈이 하는 거다, 그 자동 녹음기가 하는 거다, 자동 컴퓨터가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라는 이름은 숙명통(宿命通)에 해당한다. 이 지금 천안(天眼) · 천이(天耳) 또는 신족(神足) · 타심(他心) · 숙명 이 다섯 가지가 합해서 자동적인 컴퓨터 그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 다섯 가지로 인해서 벌여놓는 거고 생활하는 거고, 다섯 가지로 인해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시는 데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니까 어저께 입력된 것이 오늘 아는 것에 바로 그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다 거기다가 놓으시라는 겁니다. 왜 놔야 하느냐 하면 공(空)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공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허허허.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더불어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세계가 돼서, 한 혹성이 돼서 살고 있으니까요. 따로 내가 했다, 내가 뭐 당한다, 내가 죄를 졌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허, "야, 한마음 속에서 한 덩어리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덩어리 속에서 한마음으로 처리해." 그러고는 거기다가 되놓는 겁니다.

아니, 지금 놓고 가지 않습니까? 아,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항상 얘기하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일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이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물을 먹어도 내가 혼자 먹었습니까, 어디? 이 속에서 모두 "야! 목 타, 물 좀 줘!" 하니까 이걸 주는 심부름꾼이죠. 안 그래요? 허허허. (대중 박수) 그래서 심부름꾼이자 관리인, 그리고 집합소예요. 그러니 아예 네가 했다, 네가 했다 하다가 또 네가 너라고 하지 말라. 모든 게 공했느니라. 그러니 색(色)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러니 그대로 허공에 꽃이 피어서 만발했으니 그 도리를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란 얘기죠. 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뭔가 확 트이는 것 같고 뭔가 넓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러지마는, 점차 가다보면 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저것이 저것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오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동굴 속을 헤매고 있을 때 큰스님께서 등불 하나 밝혀주셨는데, 그 빛만 볼 줄 알았지 그 밖에 광대한 법이 있는 것을 모르는 저희들의 마음을 통감하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들은 세계를 보란 말입니다. 그것만 보면 전 대천세계가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자기 몸속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천차만별의 의식과 천차만별의 생각이 들어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제가끔 일어나는 거를 자기라고들 모두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깐 멋대로 과거에 어떻게 가서 뿌리에 달린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싹이 있는데에 붙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도 콩씨입니다. 콩씨가 그 뿌리로 화(化)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한 콩씨와 화하지 않은 콩씨와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子)와 부(父)가 둘이 아니게끔 통하면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자와 부가 하나로 돼가지고 부가 돼서 부처가 되고, 또 무슨 일할 게 있어서 생각을 했다 하면은 부가 자로 하나가 돼서 법신(法身)이 되고, 또 움죽거리고 모두 이렇게 간다, 움죽거릴 게 있다 행동할 게 있다 이런다면 법신이 그 자인 육신과 하나가 돼가지고 화신(化身)이 된다. 화신이 된다는 건 화한다 이거죠. 화해서 또 남을 위한다 할 때는 응신(應身)이 됩니다. 이렇게 잘나잘나 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그렇게 묘법인데 우리가 그걸 알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권리를 찾지 않고 그냥 더퍽더퍽 가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다면, 또 그 자리에서 나와서 종자는 종자로 또 나와서 그 종자로 또 살 겁니다. 깨씨가 팥씨 될 리 없고 팥씨가 깨씨 될 리 없고, 씨 종자대로 이 세상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란 씨 종자가 따로 없이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즉, 불씨가 된다 이겁니다. 불종자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제?

▲질문자1(남): 그 믿음의 변함없는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2(여): 이렇게 큰스님을 대하고 보니 참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미련한 중생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자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장남이 이 절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서른셋입니다.

▲큰스님: 서른셋이요?

▲질문자2(여): 네, 장남이요. 그런데 어쩐지 저리 혼사일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큰스님: 아, 그거는 본인이 맞는 사람이 없기에 마음을 내지 않겠죠.

▲질문자2(여): 아무리 제가 몸이 피곤하고 자다가라도 이렇게 이 절에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참….

▲사회자: 결혼시켜달라는 말이죠?

▲큰스님: 그거는요.

▲질문자2(여): 예.

▲큰스님: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딱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질문자2(여): 그렇게 되겠습니까?

▲큰스님: 네. (대중 웃음) 그것이, 그것이 법이니깐요.

▲질문자2(여): 네, 하도 부모된 도리로써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큰스님을 뵈었습니다.

▲큰스님: 답답해하실 게 없어요. 그냥 탁 놔버리면 그냥 배고프면 먹고 똥마려우면 똥 누고 자고 싶으면 잘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손들이 제대로 될 게 못된단 말입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3(여):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질문드리러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아들하고 동시에 같이 체험한 걸 너무 감사해서 말씀 올리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요번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와가지고 큰스님께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공부하고 오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발을 삐어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래서 관법(觀法) 노트를 썼는데요, 큰스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큰스님: (왼손으로 질문자 마이크를 가리키시며) 조금 떼고 하세요.

▲질문자3(여): 저는 대구지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며 주인공이 제일 고맙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경험담도 체험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중학생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하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씁니다.

때는 5월 초,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결에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거짓말로 나는 "차를 잘 몬다. 내 경력이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라고 거짓말을 하였더니 친구들은 정말로 믿고 언제 한번 타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였습니다. 5월 초 어느 토요일 날, 진짜로 아이들은 독서실 간다며 핑계를 대고 새벽 한 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라고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래 천성이 좀 겁이 없기 때문에 엄마 몰래 키를 훔쳐내어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막상 키를 갖고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차 안에 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친구들을 부르고 차에 태워서 운전대 한 번 잡지 못한 실력으로 막상 출발을 하였습니다. 차는 오토매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보라서 잘 못하겠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초보보다 더 낮은, 면허증도 없고 운전대에 손도 한 번 안 올려본 내가 그래도 출발하였다니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 용기가 불어 대구를 3시간 동안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놓고 이러기를, 매주 공휴일 새벽마다 계속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구미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간이 붓지 않은 이상 이 같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고 다녔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참 동화 속의 주인공인 줄 착각할 정도로 심하였습니다.

계속 그러기를 한 달, 때는 6월 5일. 학교에서 제 친구 중에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은 즉시 친구에게 두 차로 구미까지 가자고 제안을 하니, 즉시 좋다고 하며 새벽 2시까지 앞산 주차장으로 오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저는 차를 몰래 몰고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을 태우고 주차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도착하니 과연 프린스 신형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엘란트라고요. 즉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추월하지 말고 따라와라. 길은 내가 아니까." 라고 말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신천 대로를 진입하여 약 시속 100km를 밟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신천 대로는 말 그대로 큰 도로기 때문에 위험도 높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긴 길이었기에 저는 그대로 달렸던 겁니다. 가다 보니 차들이 좀 있기에 그대로 다 추월하여 달렸습니다. 가다 보면 북대구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그리로 가면 다른 데가 나오기 때문에 직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로 가려다 내 친구가 "니 어디로 가노?"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틀었습니다. 사고가 날 뻔 하였지요.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한마음 속에서 한 덩어리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덩어리 속에서 한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그냥 이론으로 이름만 그냥 졸졸졸졸 외우고선 금강경을 읽었다, 무슨 화엄경을 읽었다, 법화경을 읽었다, 능엄경을 읽었다 온통 읽었다는 소리는 다 하죠. 그러나 읽었다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도 자기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 자기의 에너지를 배려해 줄 수가 없죠. 그 말은 이론이기 때문에 한데 떨어지고 말아버리니깐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전부터 보지 말라. 마음의 도리부터 공부해서 완전히 뿌리가 박혀서 흔어지지 않을 때에 경전을 한번 봐라. 그러면 경전이 너를 보지 않을 거고 네가 경전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나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서 공부하시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인도나 일본이나 그런 데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불교 교재가 나와서 대학에서 철학이니 뭐니 다 배우게끔 돼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배출되지 못하고 있죠. 모두 우리 한국은 불교라는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들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의 회향하는 법과 하심하는 법을 크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문외한임을 통감하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스님의 법을 받들어 처음에는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들이 생겨난 것인데, 그 업식들이 해코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잘 생각이 나오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 우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지구에 불어서 다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라고요. 그럴 때 그것이 모두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이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혼자 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내가 잘못됐든 잘됐든 거기다 다 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너 자신 혼자 그냥 이 껍데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껍데기 속에서 한 거니까 껍데기 속에다가 다 맡겨 놓으라는 거죠. 껍데기 속에다 맡겨 놓으면 거기서 벌써 대뇌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四大)로 또 통신이 되죠. 그럼으로써 이거는 내가 살 길이 터지는 겁니다. 또 살 길이 막히는 것도 이 한생각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한생각을 잘하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가 하면 한생각을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누가 다스리고 나갑니까! 자기 주인공 선장입니다. 그 선장은 영원한 자기의 선장이며 불기둥입니다. 그 불기둥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레에 모두 실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기 콩싹이 자기 콩씨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 콩이 과거 일로 돌아

잘 됐든 못 됐든 다 놓으라!

☞29면에서 계속

그런데 그 날은 이상하게 100km만 밟아도 차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구미 갈 때는 150km를 밟아도 아무 이상 없던 차가 그날따라 이상하였습니다. 미리 주인공이 암시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 습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제 뒤의 차가 쌍라이트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차였습니다. 저는 왜 쌍라이트를 켰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까 다른 데로 빠질려다 갑자기 들어온 것을 보고 쌍라이트를 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런데 문제점이 제 친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떠한 생각으로 불을 켰느냐 하면은 '너희 차는 소형차고 인구도 많으니까 내 차에 태워라. 따라서 내가 앞질러 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제가 비상 깜빡이로 대답을 준 것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알았다. 날 앞질러 가라.'라는 뜻으로 들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120km로 가고 있었고 제 친구는 절 따라 잡는다고 140km로 갔습니다. 저는 물론 추월하는지도 몰랐죠. 옆에 번쩍거리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어 제 차 앞부분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끽 소리가 나는 동시에 중앙분리대를 박고 제 친구 차가 위로 붕 떴습니다. 쿵 하고 내려옴과 동시에 차가 뒹굴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제 차 안에 탄 사람은 모두 안전벨트를 해서 밖으로 나가 떨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뒹굴었을 때 찌그러져서 안전벨트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 주인공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차가 제 친구 차를 밀고 나갈 당시에, 찰나에 수억만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게 '주인공!'이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막상 세우고 나서 생각나는 게 친구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차는 뒤집어져 있고 반은 부서져 있었으니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진 차에서 뒷창문을 깨고 절룩거리며 3명이 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리는 피하자고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기 있는 데까지 뛰어가는데 계속 큰스님 부르고 주인공을 부르며 갔습니다.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백 번도 더 관(觀)하며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 현장으로 오시라고 연락을 해놓고 우리끼리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절망적으로 큰스님을 불렀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일을 보시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친절하게 내 일처럼 하며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다 주인공의 나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은 좋게 일단락지었습니다. 사고 난 이튿날 주인공에게 "주인공, 감사해! 큰스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을 더욱 더 믿고 관(觀)하게 되었으며 차만 보면 소름끼치는 것도 생겼습니다. 해결사 주인공, 해결사 주인공을 믿는 만큼 더 크게 해결해주시는 주인공 더욱더 믿고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 마이크를 어머니한테로 옮김) 그런데 큰스님,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사건이 나고 해결되기까지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이 물 흐르듯이

> "허공에 꽃이 피어 만발했으니
>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 열매를 맺게 하라!"

해결이 되고 아침에 지원 스님께 전화드리고 나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생각이 났거든요.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법회에서 큰스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이 도리를 물려주는 것이 세세생생 건지는 것'이라고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부모로서 저 자식한테 어떤 걸 해줄까 마음이 막 올라왔고, 그래서 자식 앞으로 아들 이름으로 저축된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예금한 거하고 또 보험에서 축하금으로 나온 거하고 아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금한 것이 있었는데, 보이는 통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에다가 아들 앞으로 저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스님께 그 보시금을 올리려고 가져가면서 주인공한테 관하기를 '주인공, 이 돈을 올리는 자리도 받는 자리도 한마음 주인공이고 나는 철저하게 심부름만 할 뿐이라.'고 관하고는 스님 방에 들어가서는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삽니다. 지금 당장 이후에 뭐가 풀려나올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 돈은 제 아이의 돈이니까 아이 앞으로 올리니 스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한생각이 나면서 제 주인 많은 시주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허허허. 그랬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 시주입니다. 헛 시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분이 나는 있는 통장보다도 없는 통장을 위해서, 난 그애한테 없는 통장에 예금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여기다가 놔도 또 지원의 스님한테다 줘도 그 스님 자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스님 자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 자기 거를 자기가 한 거지, 자기네 그 아들한테로 무심통장을 한 거지 그건 개별적인 우리들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주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심코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스님네들을 준 게 아니고 불사를 하라고 줬어도 그건 앞으로 자기 불사를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 중들의 불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는 양 무제더러 네가 이 시주를 하고, 네가 시주한 거는 대가를 바라고 또 시주를 내가 했다고 만백성들한테 퐁기고 그러고 했으니 무슨 시주가 공덕이 될 게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 하나도 한 게 없다 이거야.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시주를 해도 누가 요만한 거 하나 거저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리 한마음선원의 식구들은 말입니다, 거저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네들 자기 밥들 먹고 사는 스님네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남들이 갖다 주는 밥 먹고선 왜 자기 밥들이라고 하느냐 그런다면 자기 할 일을 다 잘하고 가니깐,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니깐, 그 밥을 자기가 내려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넙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희번덕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차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럭합니까? 근중한 내 부모가 내 종자를 줬고 그 종자로 인해서 몸을 탄생을 시켰는데, 그것도 그 몸을 탄생을 시킨 것도 제대로 못 가지고 갈 걸, 영원히 가지고 못 있을 걸 왜 그것을 짐을 져요? 내가 왜 짐을 집니까? 여러분의 짐을 왜 내가 집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대중 박수)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된 겁니까? (합장하심)

▲대중: 네.

▲큰스님: 그러나 이 시간에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여러 마디 중에 그래도 어딘가가 뭐 한 가지라도 있겠죠.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면서 무조건 자기를 믿으세요. 못났든 잘났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잘살든 못살든 자기 주처만이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의 부모가 잘나고 부자라고 해서 내 부모를 바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위 법문은 1994년 6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별난 수행 (상)

송화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우리는 흔히 새싹이 돋는 모습과 따사로운 햇빛에서 봄을 느낀다.

내 신행생활은 봄의 생명력처럼 왕성하지 않지만, 내 신행의 싹은 유년기의 추억 속에서 아지랑이 같이 피어오르는 듯하다.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내가 세상 구경을 하기 전부터였다.

집안 대대로 신행생활을 하던 곳이 범어사 말사인 경남 김해 장유암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면 한 달씩 조그만 토굴이 있는 장유암(지금은 장유사가 되었지만)에서 지냈다.

불모산(佛母山)에 자리한 장유암(長遊庵)은 참 조용하면서도 역사가 묻어 있는 곳이다. 당시 집안 어르신이기도 한 백운 스님께서 주지로 계셨는데 동생과 나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땐 옛날이야기가 마냥 재미있었는데, 좀 더 철이 들고 보니 그 재미있던 옛날이야기는 부처님 말씀과 선사들의 이야기, 사찰에 얽힌 이야기였다.

동생과 방학동안 장유암에 머물 때였다.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스님께 불려갔다. 스님께서 그때 이야기 한 구절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김수로왕 왕후인 허 황후에게는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었단다. 인도에서 가야까지 오면서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 남동생과 함께 왔는데, 누나가 가야 황후가 되어 궁으로 들어가자 동생은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단다. 그러다 누나가 사는 가야왕궁이 보이는 이 곳 불모산에 살면서 누나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단다. 화진이와 현주도 언제까지나 함께 오래 오래 살 것 같아도 얼마 지나 떨어져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지…."

대웅전에서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를 눈물이 났고, 혹시 동생과 헤어지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하며 내가 마치 장유화상의 마음을 아는 냥 동생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그곳에서의 추억은 나의 유년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방학이면 몇 주씩 머물면서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불을 보고 참선하는 법도 배웠다. 그땐 그게 참선인지도 몰랐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쪽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30분정도 참선을 시키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질문하시던 스님의 모습이 선하다.

집안 대대로 다니던 사찰서 신행 싹 키워

할머니의 불심은 내 인생의 큰 밑거름

그때는 눈꺼풀의 무거움에 짓눌려 잠들기도 했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또 집에서 먹던 과자생각만 나기도 했다.

아침 먹기 전에 도량을 돌며 말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을 잠재우게 했던 묵언수행의 가르침도 무엇인지 몰랐다. 그땐 왜 그리 말을 하고 싶고 장난을 치고 싶었던지….

백운 스님께서 버릇없던 나에게 해 주신 말씀이 지금의 내 직업을 예견하고 하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는 할머니 귀여움 다 독차지 하고 커서 나중에 크면 어르신들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많이 어루만지고 살아야 해"라고. 어린마음에 "예"라고 대답은 잘 했다.

난 스물일곱에 청상이 되신 친할머니의 사랑과 귀여움을 많이 받고 커온 터라 버릇없고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유치원에 다닐 때, "할머니는 왜 신랑이 없어요? 부처님께 할아버지 보내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할머니 신랑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머니를 난처하게 했다. 그래서 야버진 할아버지 초상화를 할머니 방에 걸어주셨다.

난 매일같이 일어나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인사도 하고 가끔은 할머니 흉을 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젊은데 할머니는 늙었어요?"라고. 사진속의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찍은 사진이었으니 삼십대 초반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저녁예불을 보시고 정진하시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집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새벽 예불을 마치고 오시는 할머니는 가족들이 깰까봐 살짝 내방 창문을 두드리시며,

"진아, 문 열어라. 잠 귀 밝은 우리 손녀 빨리 문 열어라."

"누가 새벽에 오라고 했어. 나 잘 거야. 추운데 더 서 있어. 난 몰라" 라며 억지를 부리고 할머니를 새벽바람에 세워두던 못된 손녀였다. 그리고 절에 할머니를 따라가면 금방 엄마 보고 싶다며 집에 가자고 하고, 또 할머니가 절에 가신다면 또 따라 나서며 떼를 쓰는 좀 극성스러운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며 49재를 지내고 무덤 앞에서 우는 꿈을 꿨다. 꿈에서도 얼마나 울었던지 일어나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잘못 했어요. 다음부터 새벽에 문 잘 열어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백운 스님의 권유로 부산 초량 소림사의 어린이법회에 나가게 되었다. 늘 할머니가 외우시던 <반야심경>을 듣고 자란 터라 어린이법회에 참가하는 누구보다도 빨리 반야심경을 외웠고, 수계를 받아 법명도 생겼다.

습성의 무서움인지 지금도 조금 불안하거나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땐 반야심경을 중얼거리게 된다. 할머니와 부모님께서 생활 속에 심어주신 마음자리 찾는 좋은 씨앗인 것 같다. 마음이 힘들거나, 머리속 번뇌가 날 괴롭힐 때면 백팔 배 절을 하게 된 것도 그때 그 습관에서 오는 것 같다. 요즘 게을러져 절하는 수행을 자꾸 미루고 있지만 말이다.

20대 방황기엔 스님의 말씀을 따라 1080배를 100일간 하며 매일 <천수경>을 열 번씩, <반야심경>을 108번을 읽으며 나를 찾는 수행을 한 적도 있다. 100일 동안의 정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이 수행을 하면서 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해본 정진 수행이 나에게 남모를 힘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결혼은 또 다른 수행의 길인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 가는 신비함도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육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왔다. 마치 전생에 절에 살았는지 채식이 몸에 잘 맞고 육식을 하고 나면 탈이 나 거의 입에 대지 못한다. 그러나 남편은 육식을 좋아하고 시댁어른들도 고기 요리를 즐겨드신다.

어머니가 명절에 손님들을 위해 곰국을 준비하고 갈비찜을 준비할 때면 난 성질을 부리며 짜증을 많이 냈다. 난 먹지도 않는데 이 싫은 냄새를 맡아야 하고 찜통은 옮겨야 하냐며 성질을 부렸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직인무효공고

● 사찰명 : 관음암
● 주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구 78-6번지
● 주 지 : 수암(전순재)
(사)한국불교교화원 임명장 129호

위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6년 7월 12일 이후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관음암
● 주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구 78-6번지
● 주 지 : 수암(전순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心福寺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상가 8번지
● 주 지 : 慧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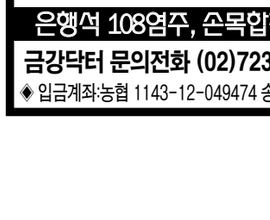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2일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거리감 없이 친근한 신선의 세계

불화 속의 명장면 (12)

日 교토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

장엄한 산수 속에 석가삼존인가 하여 다가가 보니 수많은 봉우리와 계곡들 속엔 오백나한으로 가득 물결집니다. 아니 바로 산봉우리와 능선, 언덕과 계곡들이 곧 오백나한이었습니다(그림1).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은 어느새 봉황이 되고, 이 오색 금빛 봉황을 타고 유유히 비상하는 나한(그림2), 호랑이 · 낙타 · 말 · 흰 코끼리 · 사자 등 맹수를 태연히 부리며 타고 노니는 나한, 용 · 외각수 등 상서롭고도 기괴한 금수들을 희롱하는 나한, 발우와 석장에서 먼 하늘까지 솟구치는 빛, 구름을 타고 홀연히 날아오르는 모습, 나한은 여섯 가지 신통력(六神通)을 부리고 색탐 등의 욕망을 버리고 팔해탈법(八解脫法)을 터득한 성자라고 하는데, 과연 신선의 세계가 따로 없는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토굴 속에서의 고독한 명상, 치열한 참선 수행으로 몸은 마르고 머리와 수염으로 털북숭이가 된 모습, 토론에 열중인 총기 가득한 젊은 나한무리, 시원한 강물에 발을 담그고 한가히 앉은 모습, 개울가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쭈그리고 앉아 승복을 빨아 헹구는 장면, 공양 그릇을 세척하는 모습, 경전 꾸러미와 법복 옷가지를 둘러메고 수행에 들어가려는 스님 행렬, 까마귀에게 모이를 던져주며 소일하는 모습, 둘러앉아 차를 음미하며 담화를 나누는 노스님의 무리(그림4) 등 스님들의 소박하고 친근한 일상이 어우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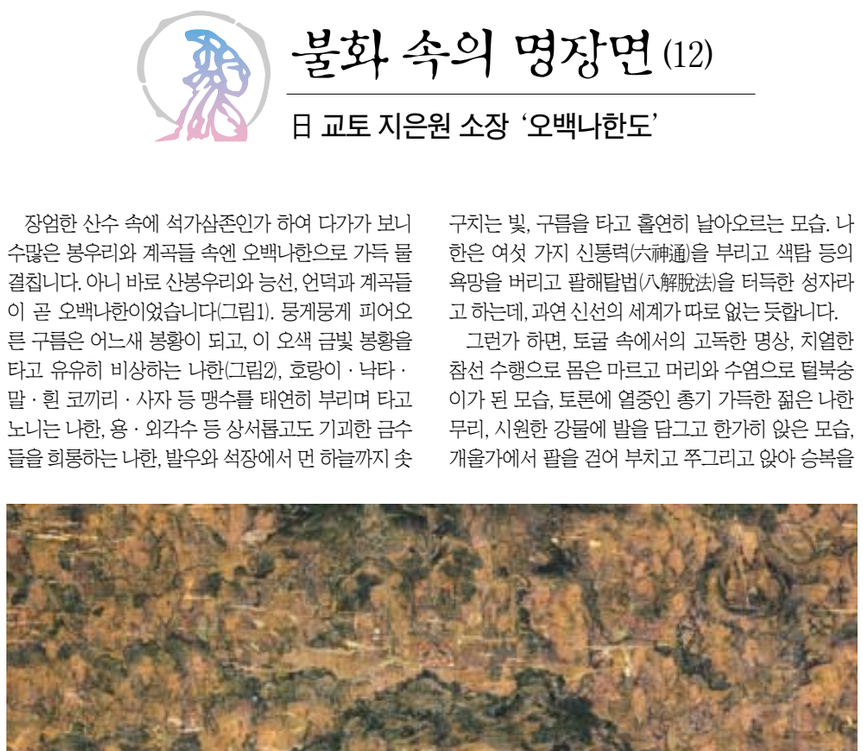


그림1 : 日 교토 지은원소장 '오백나한도'의 중심 부분

산수 음영과 굴곡 등으로 천태만상의 인간적인 모습 표현
마이크로 세계로 마크로 세계 웅변해주는 걸작 중 하나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된 '오백나한도'는 길이 약 2미터(188x121.4cm)에 달하는 대작인데, 화폭에는 산수 장면과 더불어 약 2~3cm 작은 크기의 오백나한이 깨알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산수의 음영과 굴곡, 전경 후경 등이 실상 오백나한으로 구성되어 그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고 나면 관람자들은 저절로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수 백구의 작은 부처가 화면 가득 그려진 일본 고베시립박물관 소장 '비로자나불도', 보살의 천의와 화면 바탕에 여래가 빼곡히 수놓아진 히로시마 부동원 소장의 좌상 보살도 작품과 같이, 마이크로의 세계(소우주)로 마크로의 세계(대우주)를 웅변해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물론 나한도는 천태종 및 선종의 나한신앙의 유행과 더불어 한 · 중 · 일 동아시아 삼국에서 모두 유행하여 그 작례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오백나한을 그것도 한 폭에 그린 것은 본 작품이 유일한 예입니다.

'나한(또는 아라한)'은 공양받아 마땅한 자(應供), 공양으로 복을 심는 밭(福田), 진리에 상응하는 자(應眞, 그래서 나한전을 응진전이라고도 합니다), 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난 자(不生),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자(無學) 등으로도 불립니다. 나한으로는 우선 석가모니의 제자인 십대제가가 유명한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석가설법의 청중으로 불법(佛法)의 전수자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나한이 독립적 신앙 대상으로서 숭배될 때는 주로 16나한이 채택되는데, 이러한 독립적인 나한신앙의 유행은 16나한의 이름과 주거지가 구체적으로 기입된 <법주기(法住記)>(당대 현장법사 번역)에 근거합니다. 더 나아가 나한신앙은 오백나한으로 극대화되는데, 개개의 오백나한의 존명은 명판(明版)속장경에 수록된 <남송강음군건명원나한존호비>에서 찾아볼 수 있어 일찍이 중국 남송대부터 오백나한이 조형되어 숭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한은 석가의 정법(正法)을 전수하고 수호하는 존재로서, 그 신앙의 전파는 선종의 유행과 불가분의 관계이겠지요. 선종에서 석가는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라기보다 큰 영웅(大雄)이자 큰 스승 나의 근본 스승(是我本師)인데, 이러한 큰 스승의 입멸 후 그 가르침이 잊혀질까 하는 우려 속에 제1차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때 모인 제자가 오백나한이었답니다(<오분율, 사분율>). 그런데 석가의 일체지(一切智)의 경지를 목표로 하지 않고, 즉 성불(成佛)을 궁극적 목표로 하지 않고, 단지 아라한이 되고자 아라한도(阿羅漢道) 또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목표로 하는 소승불교적 태도에 대승불교는 일침을 가합니다. <법화경>의 '오백제자수기품'에는 유명한 '계주(繫珠)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술 취해 잠들었을 때, 친구가 값 모르는 보석을 옷 속에 매어 준 줄도 모르고, 유랑을 떠나 살기위해 백방으로 발버둥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어, 조금이라도 얻음이 있으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족하게 여기더라' 즉 아라한과를 얻은 것을 하루 끼니 정도 얻은 소득에 불과하다고 하고,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는 불성(佛性)이란 보석은 이미 옷 속에 버려진 채 있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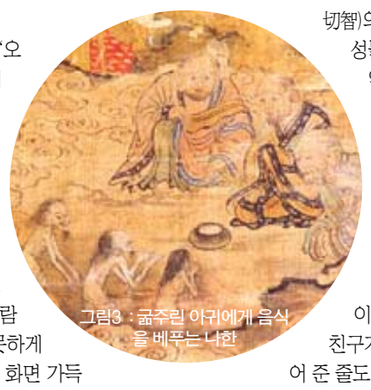


그림3 : 굶주린 아귀에게 음식을 베푸는 나한

정법 전수 · 수호하는 존재로서 부처와 속세 이어주는 가교
범부의 모습으로 묘사해 일반 민중과 친숙해지는데 일조

그리고 이 오백제자수기품에는 운집한 오백나한이 이 아라한도(작은 별도)에서 벗어나는 수기(授記)를 차례로 받는 희열의 광경이 바야흐로 펼쳐집니다.

또 나한과 같은 범부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섞이어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방편을 쓴 보살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방편은 보살로, 보살의 방편은 나한으로, 즉 보다 더 중생에 가까이 가려고 부처에서 보살의 모습으로, 다시 보살에서 성문의 모습으로 하화중생(下化衆生), 아래로 아래로의 교화라는 겁니다.



그림4 : 차 마시는 나한

이같이 부처의 세계와 속세를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나한의 존재는, 본 작품에서처럼 실제로 천태만상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그 유머러스한 친근감으로 인해 불교가 일반 민중과 더욱 친숙해지는데 일조합니다. 나한신앙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신선들의 모습들과도 중첩되어 그 친밀한 파급력을 더해왔습니다. 나한의 조형미술로서의 가장 큰 종교적 기능은 그 인간미 넘치는 묘사에 기인하는 거리감 없는 대중적 어필이겠지요.

<금강경>에서 세존은 말합니다. "수보리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실무유법(實無有法, 진실로 법이 없는 경지)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하였을 뿐입니다.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한다면 이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 집착한 것뿐일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여 무아지경(無我之境), 마침내 내가 없는 순간, 아상(我相)에서 벗어나는 순간, 접신(接神)하는 순간, 내 안의 불성(佛性)과 만나는 순간, 버거웠던 세상은 별 도리없이 무릎 아래에서 굽이칠 것입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KY Life is Entertainment Kumyoung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직), 2004-8219(현대불교 영업1팀)